



저작자표시-동일조건변경허락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 이차적 저작물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
-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동일조건변경허락. 귀하가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했을 경우에는, 이 저작물과 동일한 이용허락조건하에서만 배포할 수 있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김 경 희 교수지도  
박사학위 청구논문

미메시스 개념을 응용한  
바다아트 표현에 관한 연구

2014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의 류 학 과  
김 현 진

미메시스 개념을 응용한  
바다아트 표현에 관한 연구

김 경 희 교수지도






이 논문을 박사학위 논문으로 제출함

2014년 4월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의 류 학 과  
김 현 진

# 인 준 서

김현진의 박사학위 논문으로 인준함

심사위원	한 지수	
심사위원	김 서영	
심사위원	이 성주	
심사위원	김 미영	
심사위원	김 정희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 논문개요

오늘날 미메시스(Mimesis)는 '창조적 재현'이라는 긍정적 의미로서 사회, 문화, 예술 분야에서 모방과 변형, 창조를 되풀이하며 다양한 형태로 표현되고 있다.

본 연구는 패션컬렉션의 메이크업 분야에서 끊임없이 변화하고 있는 미메시스적 특성을 분석하고 이를 응용하여 바디아트 작품을 제작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또한 미메시스의 특성을 바디아트에 응용함으로써 트렌드를 살펴보고 얼굴에 한정하지 않고 전신에 확대하여 메이크업과 바디아트의 다양한 접근방법을 시도하는데 연구의 의의가 있다.

본 연구의 연구방법 및 범위는 다음과 같다.

첫째, 선행 논문 및 학술자료의 수집 및 분석을 통하여 미메시스의 개념 및 형성 배경을 살펴보고 이를 바탕으로 미메시스의 특성을 파악하여 요인을 도출하였다. 또한 바디아트의 개념 및 기원을 살펴보고 바디아트의 유형을 분석하였다.

둘째, 도출된 요인을 중심으로 2000년 이후부터 2014년 F/W 까지 패션컬렉션의 메이크업에서 미메시스의 표현이 잘 나타난 디자이너의 작품 85점을 선정하여 미메시스의 표현 특성을 분석하였다.

셋째, 미메시스 이론을 바탕으로, 이를 바디아트에 응용한 디자인 의도와 제작방법을 제시하고 미메시스 특성의 이미지를 적용한 바디아트 작품을 제작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에서는 이론적 배경과 선행연구를 토대로 미메시스를 외형적 미메시스, 내면적 미메시스, 복합적 미메시스로 구분하였다.

외형적 미메시스(imitation)는 대상을 따라하거나 흉내내는 동일성과 유사하게 재해석하는 재현성의 특징을 갖는다.

내면적 미메시스(inner imitation)는 내적 관념을 형상화하여 표현하는 상징성과 내면의 심리 상태를 전달하려는 메시지를 포함하는 은유성의 특징을 갖는다.

복합적 미메시스(complex imitation)는 20세기 이후 미메시스의 개념이 다양하게 해석되어지면서 외형적 미메시스와 내면적 미메시스가 혼합되거나 형태가 왜곡되어 혼합성과 왜곡성으로 나타났다.

둘째, 미메시스의 표현 특성을 토대로 패션컬렉션에서 표현된 메이크업을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외형적 미메시스의 동일성은 얼굴의 형태에 변화를 주지 않고 표현한 내추럴 메이크업이 주로 나타났고, 재현성은 특정한 시간과 장소의 이미지를 표현하는 형태로 나타났다.

내면적 미메시스의 상징성에는 내면의 이미지를 형상화하여 종교적 색채나 공포를 상징하는 그로테스크적 이미지를 표현하고 있었다. 은유성에는 팝아트의 특성이나 키치적 요소가 포함되어 유머스럽고 풍자적인 표현이나 메시지를 전달하고자 하는 숨은 의도가 담겨져 있었다.

복합적 미메시스는 입체적 조형물이 첨가되거나 다양한 오브제의 사용, 이질적 소재가 혼합되어 표현된 혼합성과 형태와 질감이 왜곡되거나 변형된 표현으로 단순화, 도식화, 과장된 표현, 추상화 등을 통해 왜곡성의 특징이 나타났다.

셋째, 미학적 개념에서 미메시스의 특성을 분석하여 이를 응용한 페이스 페인팅 5점, 상반신 바디페인팅 5점, 전신 바디페인팅 5점, 총 15점의 바디아트 작품을 제작하였다.

작품 I ~ V 는 미메시스의 특성을 얼굴에 표현한 작품으로, 작품 I 과 작

품 II는 각각 몬드리안 작품의 패턴과 아프리카 문양을 모티브로 동일성과 재현성을 표현하였고, 작품 III은 무분별한 성형에 대한 경각심의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 내면적 미메시스의 은유성을 표현하였다. 작품 IV와 작품 V는 얼굴의 골격을 강조하여 중첩시켜 혼합하거나 얼굴의 형태를 왜곡하여 표현하였다.

작품 VI ~ X은 미메시스의 특성을 상반신에 표현한 작품으로, 작품 VI은 이집트의 상형문자를 인체의 곡선을 따라 표현하여 외형적 미메시스의 재현성을 나타냈고, 작품 VII과 작품 VIII은 각각 십자가를 통한 종교적 이미지의 상징성과 환경오염의 경각심의 메시지 전달을 위한 은유성을 표현하였다. 또한 작품 IX와 작품 X은 복합적 미메시스의 혼합성과 왜곡성의 특징을 중심으로 각각 붉은 선을 모티브로 한 이질적 소재의 혼합과 도형의 이미지를 인체에 왜곡하여 표현하였다.

작품 XI ~ XV는 미메시스의 특성을 전신에 표현한 바디페인팅 작품으로, 작품 XI은 한글의 패턴을 모티브로 한지를 소재로 하여 인체에 입체감을 주어 표현함으로써 외형적 미메시스의 동일성 특성을 나타내었고, 작품 XIII와 작품 XIII은 내면적 미메시스의 상징성과 은유성을 특징으로 문장 부호와 미국의 그래피티 아티스트 키스해링의 작품을 모티브로 표현하였다. 작품 XIV와 작품 XV는 각각 식물줄기와 꽃의 이미지를 통해 아르누보적인 곡선과 입체적인 조형물의 혼합과 인체의 골격을 과장시킴으로써 복합적 미메시스의 혼합성과 왜곡성을 표현하였다.

이상과 같이 선사시대 이후부터 끊임없이 논의되어지고 있는 미메시스의 개념과 특성을 패션컬렉션의 메이크업에 적용하여 미메시스의 표현특성을 시각적으로 분류하였다. 이를 바디아트에 응용함으로써 트렌드를 바디아트 디자인에 적용하여 바디아트 디자인의 연구와 발전 가능성을 제시하였다. 아울러 미

메시스의 개념을 단순한 모방이 아닌 창조적인 재현의 개념으로 더욱 폭넓게 이해하여 바디아트 분야의 지속적인 발전을 기대한다.

# 목 차

## 논문 개요

<b>I. 서론</b> .....	<b>1</b>
1. 연구의 목적 및 의의 .....	1
2. 연구의 방법 및 범위 .....	3
<b>II. 이론적 배경</b> .....	<b>5</b>
1. 미메시스의 이해 .....	5
1) 미메시스의 개념 .....	5
2) 미메시스의 변천 .....	7
2. 미메시스의 유형 .....	23
1) 미메시스 관련 선행연구 .....	23
2) 미메시스의 유형분류와 하위요인 .....	27
3. 바디아트의 이론적 고찰 .....	33
1) 바디아트의 개념 및 기원 .....	33
2) 바디아트의 유형 .....	37
<b>III. 메이크업에 표현된 미메시스 특징</b> .....	<b>42</b>
1. 외형적 미메시스 .....	42
1) 동일성	
2) 재현성	
2. 내면적 미메시스 .....	54
1) 상징성	
2) 은유성	
3. 복합적 미메시스 .....	67

- 1) 혼합성
- 2) 왜곡성

IV. 작품 제작 .....	83
1. 제작 의도 및 제작방법 .....	83
1) 디자인 계획	
2) 제작 방법	
2. 작품 제작 .....	86
V. 결론 및 제언 .....	143

참 고 문 헌

ABSTRACT

# 표 목 차

<표 1> 미메시스 개념의 시대별 변천 .....	21
<표 2> 미메시스 관련 선행연구 .....	26
<표 3> 미메시스의 하위요인 .....	30
<표 4> 패션컬렉션 메이크업에 표현된 미메시스 .....	82
<표 5> 디자인 계획 .....	85
<표 6> 작품 I 의 디자인 이미지와 구성내용 .....	87
<표 7> 작품 II 의 디자인 이미지와 구성내용 .....	90
<표 8> 작품 III 의 디자인 이미지와 구성내용 .....	93
<표 9> 작품 IV 의 디자인 이미지와 구성내용 .....	96
<표 10> 작품 V 의 디자인 이미지와 구성내용 .....	99
<표 11> 작품 VI 의 디자인 이미지와 구성내용 .....	103
<표 12> 작품 VII 의 디자인 이미지와 구성내용 .....	108
<표 13> 작품 VIII 의 디자인 이미지와 구성내용 .....	112
<표 14> 작품 IX 의 디자인 이미지와 구성내용 .....	116
<표 15> 작품 X 의 디자인 이미지와 구성내용 .....	120
<표 16> 작품 XI 의 디자인 이미지와 구성내용 .....	124
<표 17> 작품 XII 의 디자인 이미지와 구성내용 .....	128
<표 18> 작품 XIII 의 디자인 이미지와 구성내용 .....	132
<표 19> 작품 XIV 의 디자인 이미지와 구성내용 .....	136
<표 20> 작품 XV 의 디자인 이미지와 구성내용 .....	140

## 그림 목 차

<그림 1> 연구의 전개 .....	32
<그림 2> 상흔에 의한 신체장식 .....	36
<그림 3> 아프리카 원주민의 페이스페인팅 .....	36
<그림 4> 채색을 이용한 신체장식 .....	36
<그림 5> 문신을 이용한 신체표현 .....	36
<그림 6> 오브제를 활용한 페이스페인팅 .....	40
<그림 7> 회화적 기법의 페이스페인팅 .....	40
<그림 8> 상반신 환타지 메이크업 .....	40
<그림 9> 인체를 활용한 환타지 메이크업 .....	40
<그림 10> 다양한 색채의 바디페인팅 .....	41
<그림 11> 이질적 질감의 바디페인팅 .....	41
<그림 12> Christopher Kane 2009 F/W .....	48
<그림 13> Valentino 2009 F/W .....	48
<그림 14> Chanel 2010 S/S .....	48
<그림 15> Giambattista Valli 2014 S/S .....	48
<그림 16> Alexander McQueen 2002 F/W .....	49
<그림 17> John Galliano 2009 S/S - ( i ) .....	49
<그림 18> Manish Arora 2009 S/S .....	49
<그림 19> Vivienne Westwood 2009 F/W .....	49
<그림 20> John Galliano 2010 F/W .....	50
<그림 21> Zazo & Brull 2009 S/S .....	50
<그림 22> Alexander McQueen 2007 F/W .....	50

<그림 23> Alexander McQueen 2005 S/S .....	50
<그림 24> Christian Dior 2010 S/S .....	51
<그림 25> Christian Dior 2009 F/W .....	51
<그림 26> Teresa Helbig 2009 S/S .....	51
<그림 27> Zucca 2009 F/W .....	51
<그림 28> Christian Dior 2004 F/W - ( i ) .....	52
<그림 29> John Galliano 2006 S/S .....	52
<그림 30> Christian Dior 2006 F/W - ( i ) .....	52
<그림 31> Fabrizio Capriata 2009 S/S .....	52
<그림 32> John Galliano 2009 S/S - ( ii ) .....	53
<그림 33> Yohji Yamamoto 2009 F/W .....	53
<그림 34> Givenchy 2008 S/S .....	60
<그림 35> Dupre Santa Barbara 2009 F/W .....	60
<그림 36> Junya Watanabe 2009 F/W .....	60
<그림 37> Hass Idriss 2009 F/W - ( i ) .....	60
<그림 38> Jean Paul Gaultier 2010 S/S .....	61
<그림 39> Vivienne Westwood Red Label 2014 S/S .....	61
<그림 40> Christian Dior 2003 F/W - ( i ) .....	61
<그림 41> Christian Dior 2006 F/W - ( ii ) .....	61
<그림 42> John Galliano 2007 F/W .....	62
<그림 43> Gerlan Jeans 2010 S/S .....	62
<그림 44> Byblos 2010 S/S .....	62
<그림 45> Jean Charles De Castelbajac 2010 F/W .....	62
<그림 46> John Galliano 2003 F/W .....	63

<그림 47> Christian Dior 2004 F/W - (ii)	63
<그림 48> Luella 2010 S/S	63
<그림 49> Emma Bell 2009 S/S	63
<그림 50> Mercibeaucoup 2009 S/S	64
<그림 51> Laura Lees 2009 S/S	64
<그림 52> Ashish 2009 F/W	64
<그림 53> Vivienne Westwood Red Label 2013 F/W	64
<그림 54> Victor & Rolf 2008 F/W	65
<그림 55> Levhon 2009 S/S	65
<그림 56> Maison Martin Margiela 2009 S/S	65
<그림 57> Bernard Willhelm 2009 F/W	65
<그림 58> Alexander Mcqueen 2009 F/W	66
<그림 59> Viktor & Rolf 2011 F/W	66
<그림 60> Alexis Mabille 2012 S/S	66
<그림 61> John Galliano 2002 F/W	73
<그림 62> Christian Dior 2006 F/W - (iii)	73
<그림 63> Chanel 2007 S/S	73
<그림 64> Jean Paul Gaultier 2007 F/W	73
<그림 65> Andres Sarda 2009 S/S	74
<그림 66> Alexander Mcqueen 2009 S/S	74
<그림 67> Jean Paul Gaultier 2009 F/W	74
<그림 68> Ann Demeulemeester 2010 S/S	74
<그림 69> Comme des garcons 2010 F/W	75
<그림 70> Yohji Yamamoto 2006 S/S	75

<그림 71> Christian Dior 2008 S/S - ( i ) .....	75
<그림 72> Alexander Mcqueen 2008 S/S .....	75
<그림 73> Kamishima Chinami 2009 S/S .....	76
<그림 74> Natasha Stolle 2009 F/W .....	76
<그림 75> Threearfour 2010 S/S .....	76
<그림 76> Christian Dior 2003 F/W - ( ii ) .....	76
<그림 77> Christian Dior 2005 F/W .....	77
<그림 78> Christian Dior 2006 S/S .....	77
<그림 79> Jean Paul Gaultier 2009 S/S .....	77
<그림 80> Manish Arora 2009 F/W .....	77
<그림 81> Mary Katrantzou 2009 F/W .....	78
<그림 82> Nico D 2009 F/W .....	78
<그림 83> Alexander Mcqueen 2010 S/S .....	78
<그림 84> Mary Katrantzou 2010 S/S .....	78
<그림 85> Charlie Le Mindu 2014 S/S .....	79
<그림 86> Nadia + Zehra 2014 F/W .....	79
<그림 87> John Galliano 2007 S/S .....	79
<그림 88> Givenchy 2007 S/S .....	79
<그림 89> Christian Dior 2008 S/S - ( ii ) .....	80
<그림 90> Fabia Bercsek 2009 S/S .....	80
<그림 91> Hass Idriss 2009 F/W - ( ii ) .....	80
<그림 92> Barbie 2009 F/W .....	80
<그림 93> Manish Arora 2010 S/S .....	81
<그림 94> Christian Dior 2013 S/S .....	81

<그림 95> Gareth Pugh 2014 S/S .....	81
<그림 96> Givenchy 2014 S/S .....	81
<그림 97> 작품 I .....	88
<그림 98> 작품 II .....	91
<그림 99> 작품 III .....	94
<그림 100> 작품 IV .....	97
<그림 101> 작품 V - ( i ) .....	100
<그림 102> 작품 V - ( ii ) .....	101
<그림 103> 작품 VI - ( i ) .....	104
<그림 104> 작품 VI - ( ii ) .....	105
<그림 105> 작품 VII - ( i ) .....	109
<그림 106> 작품 VII - ( ii ) .....	110
<그림 107> 작품 VIII - ( i ) .....	113
<그림 108> 작품 VIII - ( ii ) .....	114
<그림 109> 작품 IX - ( i ) .....	117
<그림 110> 작품 IX - ( ii ) .....	118
<그림 111> 작품 X - ( i ) .....	121
<그림 112> 작품 X - ( ii ) .....	122
<그림 113> 작품 XI - ( i ) .....	125
<그림 114> 작품 XI - ( ii ) .....	126
<그림 115> 작품 XII - ( i ) .....	129
<그림 116> 작품 XII - ( ii ) .....	130
<그림 117> 작품 XIII - ( i ) .....	133
<그림 118> 작품 XIII - ( ii ) .....	134

<그림 119> 작품 XIV - ( i ) .....	137
<그림 120> 작품 XIV - ( ii ) .....	138
<그림 121> 작품 XV - ( i ) .....	141
<그림 122> 작품 XV - ( ii ) .....	142

# I. 서론

## 1. 연구의 목적 및 의의

현대 사회는 탈중심, 경계의 해체, 의미의 비결정성과 불확실성의 특징을 가지며 포스트모더니즘과 포스트구조주의의 영향으로 매우 다양하고 복잡한 양상을 띄고 있다.<sup>1)</sup> 이러한 가운데 문화, 예술의 여러 분야에서 모방이라는 개념이 재창조 또는 변형되어 다양한 형태로 표현되고 있다. 이러한 예는 영화나 연극의 주인공의 캐릭터를 패러디하여 또 다른 극에 사용하거나, 예술 사조나 화가의 작품에서 영감을 얻은 디자인을 상품화하는 경우에서 볼 수 있다.

모방에 대한 연구는 고대부터 시작되었고 자연의 재현으로 이해되어 ‘미메시스(Mimesis)’라는 개념으로 설명되어지고 있다. 미메시스의 기원은 디오니소스(Dionysos)의 제전에서 본래는 모방의 의미가 아닌 소리와 동작을 통한 재현이나 표현의 의미로 사용되었다.<sup>2)</sup> 오늘날 미메시스 이론은 가장 오래된 예술 이론으로, 그리스어로 춤, 몸짓, 얼굴표정 등에 의하여 신, 인간, 사물 등을 모방하는 것을 의미하며 플라톤(Platon)과 아리스토텔레스(Aristoteles)가 문학의 본질을 설명하는 주요 개념으로 사용하였다.<sup>3)</sup> 중세와 르네상스 시대에는 모방과 그에 해당하는 유사어들이 미메시스의 개념을 설명하기 위해 사용되었다.<sup>4)</sup> 또한 미메시스는 근세와 근대를 거치면서 모방의

---

1) 김성곤 (1988), 탈구조주의의 이해, 서울: 민음사, pp. 215-229.

2) 원준식 (2007), 아도르노의 미메시스론 연구, 홍익대학교대학원, 박사학위논문, p. 41.

3) P. Smith, C. Wilde (2008), "A Companion to Art Theory " (The Classical Concept of Mimesis: Göran Sörbom, Wiley-Blackwell. p. 19.

4) T. Maran (2003), "Mimesis as a phenomenon of semiotic communication", Tartu, Estonia, Dept. of Semiotics, University of Tartu, Sign Systems Studies, 31:1 p. 202.

원리를 배격하거나 지지하면서 논의되어졌다.<sup>5)</sup> 20세기 이후의 미메시스  
단순한 재현을 넘어서는 독립적이고 복합적인 개념의 다양한 의미로 변화하  
고 발전되고 있다.

오늘날 미메시스는 우리 사회의 미디어 분야를 비롯한 사회, 정치, 경제,  
예술, 철학 등의 다양한 분야에서 모방과 재현의 형태로 표현되고 있다. 미  
메시스에 관한 선행 연구를 살펴보면, 건축(박영태<sup>6)</sup>, 이상훈<sup>7)</sup>, 철학(원준  
식<sup>8)</sup>, 강손근<sup>9)</sup>, 이주영<sup>10)</sup>, 디자인(신재욱<sup>11)</sup>, 김효일<sup>12)</sup>, 영화(김수련<sup>13)</sup>, 서대  
정<sup>14)</sup> 등의 다양한 분야에서 활발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패션분야의 연  
구(양수미<sup>15)</sup>, 양희영<sup>16)</sup>)에는 현대패션과 미디어의상에 나타난 미메시스에 관  
한 연구와 들뢰즈의 되기이론을 중심으로 한 현대패션에 나타난 재현  
(representation)과 되기현상(becoming phenomenon)의 비교연구가 있다. 이  
외에도 바디아트분야(정연자<sup>17)</sup>)에는 루카치 후기 미학을 중심으로 한 바디

---

5) 양수미 (2012), 현대패션과 미디어의상에 표현된 미메시스 연구, 부산대학교대학원, 박사학위논문. p. 14.

6) 박영태 (2013), 성찰적 근대화 이후 건축의 전복적 미메시스 표현 특성에 관한 연구, 홍익대학교대학원, 박사학위논문.

7) 이상훈 (2009), 현대건축에서 재현의 의미에 관한연구; 비표상주의 비판을 중심으로, 명지대학교대학원, 박사학위논문.

8) 원준식, op. cit.,

9) 강손근 (1997), 플라톤 미학에 있어서 '미메시스'에 관한 연구, 동아대학교대학원, 박사학위논문.

10) 이주영 (1996), 루카치 미학연구; 미메시스론을 통해 본 예술과 현실의 관계, 홍익대학교대학원, 박사학위논문.

11) 신재욱 (2012), 현대 미메시스 문화와 캐릭터 디자인의 시각적 불일치에 관한 연구, 홍익대학교대학원, 박사학위논문.

12) 김효일 (2006), "영상이미지의 다시점구조에 의한 미메시스 연구", 한국기초조형학회지, 7(4), pp. 195-203.

13) 김수련 (2012), "폴 리쾨르의 미메시스 이론으로 본 영화적 재현방식 고찰", 한국콘텐츠학회지, 12(8), pp. 146-156.

14) 서대정 (2007) 재현의 위기 시대의 메타 담론 연구 - 영화의 자기 반영 미학을 중심으로-, 한양대학교대학원, 박사학위논문.

15) 양수미, op. cit.,

16) 양희영 (2009), "현대패션에 나타난 재현과 되기현상에 대한 비교연구; 미메시스와 들뢰즈의 되기이론을 중심으로", 한국의류학회지, 33(2). pp. 200-211.

17) 정연자 (2009), "바디페인팅에 표현된 미적 미메시스- 루카치의 후기미학을 중심으로-", 한국인체예

페인팅에 표현된 미메시스에 관한 연구가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특정 철학자의 미메시스 이론에 한정되어 이루어졌으며 미메시스의 포괄적인 특성을 바디아트에 적용시킨 연구는 미비한 실정이다. 따라서 미메시스 개념을 응용한 바디아트 표현에 관한 연구에 대한 체계적인 분석을 위한 필요성이 높다고 사료된다. 이에 본 연구는 패션컬렉션에 표현된 메이크업의 분석을 통해 미메시스의 요인을 도출하고 이를 바탕으로 바디아트 작품을 제작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를 통하여 바디아트의 다양한 표현의 시도와 더불어 메이크업과 바디아트의 다양한 접근방법을 시도하는데 그 의의가 있다.

## 2. 연구의 방법 및 범위

본 연구는 미메시스 이론을 바탕으로 패션컬렉션 메이크업에 나타난 미메시스의 특성을 분석하여 이를 바디아트 작품으로 제작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구체적인 방법과 범위는 다음과 같다.

첫째, 국내·외의 단행본, 학위논문 및 학회지 등의 자료 수집 및 분석을 통하여 미메시스의 개념 및 형성 배경을 살펴보고 이를 바탕으로 미메시스의 특성을 파악하여 요인을 도출한다. 또한 바디아트의 이론적 고찰을 통해 바디아트의 개념 및 유형을 살펴본다.

둘째, 도출된 요인을 중심으로 패션컬렉션의 메이크업에서 미메시스의 표현이 잘 나타난 디자이너의 작품 85점을 선정하여 미메시스의 표현 특성을 분석한다. 이때 분석 대상은 미메시스의 주요한 개념인 모방, 재현을 인식하여 복고적 경향, 레트로의 개념이 나타나기 시작했던 2000년 이후부터 2014

---

술학회지, 10(3). pp. 181-193.

년 F/F 까지의 패션컬렉션 메이크업 작품으로 한정한다.

셋째, 미메시스 이론을 바탕으로, 이를 바디아트에 응용한 디자인 의도와 제작방법을 제시하고 미메시스 특성의 이미지를 적용한 바디아트 작품을 제작한다.

## Ⅱ. 이론적 배경

### 1. 미메시스의 이해

#### 1) 미메시스의 개념

21세기는 매스 미디어, 디지털 기술의 발달로 유행의 주기가 짧아지고 있으며 창조, 변화, 발전이 반복되는 가운데 현대인은 급변하는 현실에 대한 이해를 위하여 새로운 인식의 틀의 변화를 겪고 있다. 현대 사회는 다양한 분야에서 계속해서 새로운 것이 창조되고 변화, 발전되어지고 있는 가운데 실제와 모방에 대한 새로운 개념이 요구되게 되었고, 이로 인해 재현과 모방의 개념으로 ‘미메시스’에 관심을 갖게 되었다.

미메시스란 ‘재현(representation)’ 또는 ‘모방(imitation)’의 뜻으로 그리스어로 춤, 몸짓, 얼굴표정 등을 통해 인간, 신, 사물 등을 모방하는 것을 의미한다.<sup>18)</sup> 재현과 모방의 구분은 모호하나 현대 사회의 문화 예술 분야의 다양한 방면에서 재현, 모방, 창조, 표절 등이 언급되어져 긍정적, 혹은 부정적 의미를 포함하고 있다. 오늘날에는 미메시스의 번역과는 상관없이 예술작품과 다텔의 논의에서 가치 지향적인 ‘모방’이라는 언급보다는 ‘재현’을 더 많이 사용하여 미적 맥락을 강조한다.<sup>19)</sup>

예술의 대상이 되는 모든 사물은 인지 작용을 통해서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다가오는데, 사물뿐 아니라 인간의 감정이나 외부의 사물을 통해서 생성된 이미지 또한 감각 기관에 매개되어 표현되었으며, 미메시스라는 구체적

---

18) 김광요 외 (2010), 드라마 사전, 서울: 문예림, p. 162.

19) 유효전 역 (2001), 미학개론, 서울: 동문선, p. 17.

방법론을 통해 예술의 창작 원리로 받아들여졌다.<sup>20)</sup>

하이데거의 후기 저작인 「예술 작품의 근원」에서 미메시스의 기원이 단순한 모방에 대응하는 모습으로 나타나는 점과 도구를 다루는 것과 관련하여 사용되었던 점으로 봐도 미메시스는 단순한 모방과는 다른 의미를 갖는다고 할 수 있겠다.<sup>21)</sup>

미메시스의 개념은 20세기를 전후해서 철학, 미학, 예술학분야 뿐만 아니라 인류학, 심리학 등 사회과학 분야에서도 중심개념으로 자리 잡아 다양한 의미로 발전하고 있다.<sup>22)</sup> 현대에 와서 미메시스는 부정적인 의미의 모방이 아닌 인간의 원초적 활동과 창조적 변형을 의미하는 긍정적인 개념으로 인식되어 활발히 논의되고 있다. ‘모방’이 다소 저급한 의미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이보다는 ‘재현’이라는 단어가 긍정적일 수 있겠으나 이 또한 미메시스의 창조적 관점을 온전하게 표현하기에는 한계가 있기에 본 연구에서는 미메시스라는 단어를 쓰고자 한다.

현대 메이크업은 그림, 건축, 영화, 광고, 패션 등 다양한 분야에서 영감을 얻어 그것을 토대로 새롭게 재현하여 메이크업에 응용하고 있다. 예를 들어 화가의 그림, 디자인의 이미지 등에서 영감을 얻어 아트메이크업, 바디페인팅 등에 응용하고, 유명 연예인의 메이크업이나 영화나 연극의 주인공의 메이크업이 한 시즌의 트렌드로 결정되어 지기도 한다. 특히 패션컬렉션에서 선보이는 메이크업은 한 시즌의 유행을 미리 예측 할 수 있을 만큼 트렌드를 잘 반영한다. 이렇듯 메이크업의 다양한 영역에서 미메시스의 양상들이 나타나고 있다.

---

20) 서대정, op. cit., p. 14.

21) T. Huhn (2003), "Heidegger, Adorno, And Mimesis", Dialogue and Universalism, (11-12), p. 43.

22) 정연자, op. cit., p. 182.

## 2) 미메시스의 변천

오늘날 모방의 의미는 재현이라는 의미로 쓰이는 경우가 많지만 고대에는 의미가 달랐다. 모방은 그리스어로 미메시스(μιμησις), 라틴어로 이미타티오(imitatio)로 불리었는데, 모방의 그리스어 표현인 ‘미메시스’의 어원은 불확실하지만 일부 언어학자들은 디오니소스 숭배의식과 미신으로부터 기원하였을 것이라 추정한다.<sup>23)</sup> 선사시대 미메시스의 최초의 의미는 사제의 무용, 흥내 내기, 음악 등의 숭배행위로 외적 행위의 따라 하기의 표현으로 보여 지는데, 후에 고대 그리스인들에게 있어서 춤은 감정을 달래고 진정시키는 역할을 하여 이러한 정화를 카타르시스(Katharsis : Catharsis)라 불렀다. 즉, 모방은 외면적 실재의 재생이 아닌 내면적 실재의 표현이라는 의미였다.<sup>24)</sup> 선사시대의 미메시스는 무용, 흥내 내기, 음악 행위를 통한 외적 행위의 따라 하기의 표현으로 볼 수 있다.

미메시스는 BC 5세기경에 외부세계의 재창조를 의미하는 철학적 의미로 변화되기 시작하였는데,<sup>25)</sup> 데모크리토스(Democritos), 소크라테스(Socrates), 플라톤(Platon) 등이 이를 철학적 용어로 사용하면서 외면적 실재를 재생한다는 의미로 쓰이기 시작했다. 데모크리토스는 미메시스를 자연이 작용하는 방식의 모방으로 보았고, 소크라테스는 사물의 외관을 복제한다는 개념으로 정의 하였으며, 후에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는 이 생각을 더욱 발전시켰다.<sup>26)</sup>

---

23) V. Timofeev (2009), "Creators, Literature and the Fine Arts", EOLSS Publishers Co(On-Line). p. 65.

24) 손효주 역 (2006), 미학의 기본개념사, 서울: 미술문화, pp. 323-324.

25) V. Timofeev, op. cit., p. 65.

26) 양수미, op. cit., p. 9.

## (1) 고대

### ① 플라톤 (Platon : B.C.427~347)

미메시스의 개념은 소크라테스의 제자인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에 의해 발전되었는데, 소크라테스까지는 미메시스가 미적 관심의 대상이 아닌 단순한 자연의 모방의 개념이었다가 플라톤에 들어와서 재현이라는 예술적 원리로 정착되었다.<sup>27)</sup>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 시대에 미메시스는 형이상학, 도덕, 예술과 인간 본성 등과 관련된 철학적 논쟁의 핵심으로 떠올랐고 수세기 동안 서구 사상의 중심적 사고로 놓였다.<sup>28)</sup>

예술은 현실의 미메시스로 플라톤에 의해 철학적으로 확립되었는데, 그는 철학적 미메시스와 예술적 미메시스로 나눠 경험적 현실을 이데아의 미메시스로, 예술은 경험현실의 미메시스로 간주하여 예술을 참된 현실인 이데아보다 낮은 단계로 생각하였다. 그러므로 예술은 미메시스라는 방식을 통해 현실에서 본질로의 접근통로를 갖고 있다고 할 수 있다.<sup>29)</sup> 그는 그의 철학적 대화편인 티마이오스(Timaeus)에서 우주를 성스러운 기술자와 세상의 창조자(Demiurge)에 의해 만들어진 예술 작품으로 묘사하여 인간 기획자와 성스런 창조자 사이의 유추에서 얻어지는 이상적인 형식을 복제하여 세상을 만들어 내었다고 보았다.<sup>30)</sup> 이러한 미메시스는 외형의 생산을 의미 하지만, 예술적 재현은 실재로 존재하는 모습이 아니라 현상적인 것의 모습이다<sup>31)</sup>

플라톤은 「국가」의 예술론에서 미메시스의 개념에 감각 가능한 현상의

---

27) 오병남 (2003), 미학강의, 서울대학교 출판부, p. 5.

28) T. Maran, op. cit., p. 194.

29) 이주영 (1998), 루카치 미학연구, 서울: 서광사, p. 52.

30) V. Timofeev, op. cit., p. 66.

31) David P. Parris (2002), "Imitating the Parables: Allegory, Narrative and the Role of Mimesis" Colorado Springs, *Journal for the Study of the New Testament* 25(1), Fuller Theological Seminary in Colorado, p. 40.

모방뿐만 아니라 인간의 행동, 성격, 감정 등의 비감각적 의미의 표현을 포함시켰다. 이러한 의미에서 미메시스(imitation)는 ‘인간의 행동, 성격, 감정 등의 비감각적 의미의 표현으로 기능하는, 감각 가능한 현상의 모방’으로 정리 할 수 있겠다.<sup>32)</sup>

## ② 아리스토텔레스 (Aristoteles : B.C.384~322)

아리스토텔레스는 예술을 모방으로 본 것은 플라톤과 견해를 같이하지만 플라톤과는 달리 이데아의 세계를 거부하며 모방은 복사가 아닌 실재에 대한 접근으로 인간행위와 자연의 모방으로 발전시켰다.<sup>33)</sup>

아리스토텔레스는 모방을 인간 본능의 밑바탕으로 설명하여 미메시스를 감각적 실재를 위조하는 것이 아닌 보편성을 제시하는 것으로 재정의 하여 그에게 있어서 모방은 최선을 다한 복제가 아니라 본질에 대한 자유롭고 간편한 접근을 의미하게 된다. 그는 플라톤과 같이 비유적 존재로서가 아닌 인간의 사고, 감각 및 행동의 영구적이고 특징적인 형태로 단순하게 미메시스를 설명하였다.<sup>34)</sup> 즉, 아리스토텔레스에게 미메시스는 인간행동의 인과성을 설명하기 위한 주된 개념으로 특정한 것에서 보편적인 것으로의 움직임을 허용한 인간 행동의 재현을 요구하여 자연과 인간행동의 중요성에 대한 이해를 돕는다.<sup>35)</sup> 또한 언어, 리듬 등을 매개로 한 모방 예술은 마음의 내부를 모방하는 것이고, 개별성은 보편적인 것의 구체화이므로 개별적인 것의 재현 또한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사태로 보아 예술에 대한 멸시는 보이지 않는다.<sup>36)</sup>

32) 권혁성 (2012), “플라톤에 있어서 미메시스와 예술 - 「국가」를 중심으로”, 한국미학회지, 69, p. 43.

33) 천병희 역 (2004), 시학, 서울: 문예출판사, p. 13.

34) V. Timofeev, op. cit., p. 66

35) P. Dybicz (2010), Mimesis: Linking postmodern theory to human behavior", Journal of Social Work Education, 46(3), (Fall 2010). Council on Social Work Education, Inc. p. 343.

아리스토텔레스의 예술론은 대부분 「시학」에서 다루어지고 있는데, 여기에 나타난 예술 수용 효과는 미적 효과로서의 고찰로, 직접 현실을 변화한다고 보아서는 안되므로, 아리스토텔레스의 윤리적 척도는 플라톤과는 다르게 미적 판단의 기준이 되지 않는다. 그러므로 아리스토텔레스의 미메시스의 개념은 예술과 관련하여 논의되어 미적 생산물을 만들어 내고 미적 효과를 가져오는 예술의 본질적 측면의 원리라는 점에서 미적 미메시스로 볼 수 있겠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예술의 토대로서 삶을 중시하고 미메시스가 인간의 고유한 본성에 내재해 있으며 인간의 능력을 신장시키는 기능임을 강조한다.<sup>37)</sup>

아리스토텔레스는 「시학」에서 “모방하는 것은 인간 본성에 내재한 것이고, 인간이 다른 동물과 다른 것도 인간이 가장 모방을 잘하고, 지식도 모방으로 획득한다. 또한 모방된 것에 대해 모든 인간은 희열을 느낀다.”라고 언급한다.<sup>38)</sup> 그는 비극적 감정을 경험하는 것은 자신을 정결하게 하는 건강한 방법이고 심미적 감성을 향유하는 것은 우리가 그들의 모방적인 표현으로부터 배울 수 있음으로 인해 우리들로 하여금 감정적인 반응들을 처리하는 방식을 배울 수 있도록 도와준다고 주장한다. 즉 미메시스는 현실의 한계가 아니고 현실에 대한 직접적 사례인 것이다. 그 사례 속에서 우리는 현실을 좀 더 명확하게 이해하게 되는 것이다.<sup>39)</sup>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는 ‘사물과 외관의 복제’라는 뜻에 있어서 공통점이 있으나 플라톤의 미메시스는 외관의 단순한 모사를 의미하여 대상의 비

---

36) 임석진 외 (2008), 哲學史典, 서울: 중원문화, p. 239.

37) 이주영, op. cit., p. 57.

38) I. Bywater (1985), The Complete Works of Aristotle, New Jersey; Princeton Univ. Press. pp. 233-258.

39) Sarah E. Worth (2000), "Aristotle, Thought, and Mimesis: Our Responses to Fiction", The Journal of Aesthetics and Art Criticism, 58; 4 Fall, p. 335.

본질적인 것을 흉내내는 것에 한정하지만, 아리스토텔레스는 미메시스를 본질적인 것을 학습하는 수단으로서 이해하여 현실로의 창조적 접근으로 간주하였다.<sup>40)</sup> 즉 플라톤은 미메시스를 외부세계의 충실한 복제로, 아리스토텔레스는 실재에 대한 자유로운 접근의 의미로 보았다.

BC 4세기 고전기의 모방의 개념은 제의적 표현, 데모크리토스의 자연과정의 모방, 플라톤의 자연의 복제, 아리스토텔레스의 자연의 요소에 근거를 둔 예술작품의 창조의 네 가지로 정리 할 수 있는데, 본래의 개념은 점차 사라지고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의 개념만이 융합, 변화 하면서 지속되었다.<sup>41)</sup>

## (2) 중세 (13세기 - 15세기)

중세에서의 예술은 현실을 모방하여 기독교적 진리를 가시적으로 표현한 반면, 비잔틴에서의 예술은 비가시적인 세계를 모방하여 상징에서 모방의 의미를 이해하고자 하였다. 중세에는 예술은 보이는 세계보다 더욱 완벽한 보이지 않는 세계에 집중하였고 영구적인 아름다움을 찾았으므로 모방에서 상징화로 의 이전은 불가피한 것이었다. 결과적으로 모방의 이론은 크게 다뤄지지 않았고 용어는 극소수로만 쓰였다.<sup>42)</sup>

아우구스티누스(Aurelius Augustinus : 354~430)는 예술은 가시적 세계보다는 비가시적인 세계를 모방해야 한다고 보아, 우리의 내면에서 진리의 원천을 찾아야하는 목적 때문에 실재의 재현 보다는 상징에 의해 내면을 보다 훌륭히 표현 할 수 있다고 생각했다.<sup>43)</sup> 이를 계승하여 스콜라 철학자들은 정신적 재현은 물질적 재현보다 우월하고 가치 있다고 여겼다. 중세는 신중심의 문화와 가시적인 세계를 나타내는 방식으로 상징이나 비가시적 세계의

---

40) 원준식, op. cit., p. 49.

41) 신재욱, op. cit., p. 15.

42) V. Timofeev, op. cit., p. 66.

43) 김희보 역 (2008), 고백록, 서울: 동서문화사, p. 76.

모방을 통해 미메시스를 표현하였다. 그러나 아리스토텔레스주의자인 토마스 아퀴나스(Thomas Aquinas : 1224~1274)는 예술은 자연을 모방한다고 보아 고대의 명제로 다시 돌아간다.<sup>44)</sup> 회화에서도 현실적 삶에 보다 더 관심을 두게 되어, 해부학, 원근법 등이 현실을 모사하는 수단으로 나타나 점차 확대 되어갔다. 이러한 과정으로 중세의 미메시스는 다시 예술론의 기존 개념이 되었다.

### (3) 근세 및 근대 (16세기 - 19세기)

르네상스 시대의 미메시스는 고대에서부터 신성시된 존재의 모방인 헬레니즘적 수사, 플라톤의 실재의 복제, 아리스토텔레스의 보편적 패턴의 재현(representation)의 세 가지 개념을 물려받았다. 각각은 일탈 또는 다양한 해석을 통하여 더욱 복잡해졌지만, 모방 이론은 다시 한번 예술과 시의 기본으로 자리 잡았다.<sup>45)</sup>

이 시대는 미메시스가 예술이론 분야의 하나의 기본개념으로 발전한 시기로 시각예술에서 인정을 받아 관심의 초점이 되었다. 이시대의 모방은 독창성이 있어야 했는데, 현실의 무조건적인 모사(模寫)가 아니라는 의미로 예술은 자연외관이 아닌 자연의 법칙이나 자연의 규범을 모방해야 한다는 견해가 나타났다. 또한 15세기에서 17세기 말까지는 자연만이 모방의 대상이 아니라 자연을 훌륭히 모방했던 고대인들도 모방의 대상이 되어야한다고 보아 모방개념의 역사에 큰 변화가 나타났다.<sup>46)</sup>

17세기에는 예술은 실재를 모방하지만 실재의 완전하고 보편적인 면만을 모방한다고 보았고, 그후 계몽주의 미학자 바뵈(Charles Batteux : 1713~

---

44) 손효주 역, op. cit., p. 327.

45) V. Timofeev, op. cit., p. 66.

46) 손효주 역, op. cit., p. 331.

1780)는 예술은 실재의 전체가 아닌 아름다운 실재만 모방한다고 하여 모방 이론을 협소하게 만들었다.<sup>47)</sup>

16세기에서 18세기에 이르기까지 플라톤의 개념을 표명한 이들은 복제의 개념으로 이해하여 모방의 원리를 배격하였고, 아리스토텔레스의 모방 개념을 표명한 이들은 창조적인 모방개념으로 생각하여 모방의 원리를 지지하였다.<sup>48)</sup>

칸트(Immanuel Kant : 1724~1804)는 경험론과 합리론을 통합하여 형이상학적 현실을 비판하여 비판철학을 확립하였는데, 현실의 사물과 조형적 이미지를 구별해야 한다고 보아 아리스토텔레스의 재현의 전통을 고수하고 있다.<sup>49)</sup> 그는 예술작품을 자연을 대하는 정신적인 자연의 아름다움을 모방한 내용을 천재의 기술에 의해 산출된 작품으로 보았다.<sup>50)</sup>

헤겔(Georg Wilhelm Friedrich Hegel : 1770~1831)은 단순한 형상의 재현이 아닌 예술은 종교나 철학보다 낮은 단계로 진리를 나타내는 목적을 갖고 있다고 보아 미메시스를 모방 예술을 포함한 모든 예술에 해당하는 보편적 속성으로 이해하였다. 그는 예술을 결합이 있는 자연을 완성하는 것으로 보아 자연미를 예술의 부속물로 간주했다.<sup>51)</sup>

19세기는 고대 보다는 자연주의에 심취하던 시기로 모방은 경멸스런 의미의 대상이 되었고, 진실하지 못한 것으로 예술의 이론으로부터 완전히 추방되게 되었다.<sup>52)</sup> 이 시기에는 모방이 실재의 복사가 아닌 사물의 자유로운 해석으로 이해되어 아리스토텔레스적 개념으로서의 미메시스로 쓰여졌다.

---

47) Ibid., pp. 333-334.

48) 양수미, op. cit., p. 14.

49) 안인경 역 (2009), 위대한 철학책, 서울: 지식나이트, p. 168.

50) 김상현 역 (2005), 판단력 비판, 서울: 책세상, p. 83.

51) 진중권 (2008), 진중권의 현대미학 송고와 시플라크르의 이중주 강의, 서울: 아트북스, p. 101.

52) V. Timofeev, op. cit., p. 67.

#### (4) 20세기 이후

20세기에 들어와서는 예술은 대상의 재현을 넘어선 창조적인 독립을 추구하게 되었고 미메시스의 개념 또한 예술, 철학 뿐 만 아니라 다양한 분야에서 복합적인 개념으로 발전하였다.

##### ① 벤야민(Walter Benjamin : 1892~1940)

벤야민은 발전하는 과학기술로 모든 것이 복제 가능한 현대 사회를 처음으로 비판한 철학자로 어떠한 복제품도 원본의 고유한 ‘아우라(Aura)’, 다시 말해 분위기 까지는 따라올 수 없다고 보았다.<sup>53)</sup> 그는 사물의 아우라를 느끼기 위해서는 사물이 다시 우리를 돌아보는 능력을 가지고 그것에 투자하여야 한다고 보았다.<sup>54)</sup>

벤야민에게 미메시스의 개념은 외부 세계와의 동일시를 가능하게 하여 자신과 다른 것 사이의 연결고리 형성의 가능성을 제공하는데, 이는 감정이입을 통하여 유사성(similarities)의 발견과 창조 속에서 인간이 다른 것과 가까워지게 한다. 그는 모방과 타협의 형태로서의 미메시스의 관점에 이의를 제기하여 미메시스를 원본의 재해석으로 보아 본질적인 창작활동으로 발전시킨다.<sup>55)</sup>

그는 미메시스를 단순한 모방이 아닌 대상과 유사해지고자 하는 능력으로 보아 유사성을 제시함으로써 넓은 뜻으로 해석하였고, 인간이 유사성을 지각할 수 있는 능력을 갖는 것도 미메시스 능력 때문으로 보았다. 언어 현상에는 감각적으로 지각할 수 없는 비감각적 유사성이 존재하여 유사성을 지각하는 언어능력에 미메시스 능력이 작용하여 미메시스론을 언어이론으로

---

53) 강용수 (2008), 발터 벤야민이 들려주는 복제 이야기, 서울: 자음과 모음, p. 2.

54) N. Leach (2005), "Mimesis, ATR : Special Issue on Walter Benjamin", 10(1), p. 20.

55) Ibid., p. 20.

확대 시켰다. 벤야민은 언어 철학적 성찰에 기초하여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의 전통을 벗어나 미메시스를 설명하여 아리스토텔레스 이후 예술에 초점을 맞춰온 유럽 학자들의 경향과는 다르게 인류학적 관점에서 미메시스의 범주를 넓힌다.<sup>56)</sup>

벤야민의 언어 능력을 통한 번역 개념은 번역자가 원전(原典)의 언어를 모국어에 동화 시키려는게 아니라, 모국어를 원전의 언어에 유사하도록 의도하는, 즉 대상을 주체에 동화 시키는게 아니라 주체가 대상과 유사해지려고 노력하는 것으로 미메시스적 태도의 특징을 잘 보여준다.<sup>57)</sup>

## ② 아도르노(Theodor Wiesengrur Adorno : 1903~1969)

아도르노는 언어와 미메시스 개념의 분석과 관련하여 벤야민에게 크게 영향을 받았다.<sup>58)</sup> 아도르노는 미메시스는 모방이 아니고 동화(assimilation)라고 언급하여 미메시스 행위는 모방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것에 스스로를 동화시키는 것이라 하였다.<sup>59)</sup> 미메시스는 단순한 모방이 아닌 동화시키는 것으로, 자연을 지배하는게 아니라 자연에 순응하는 것으로 해석한다. 그는 미메시스를 신체적 미메시스, 주술적 미메시스, 소외적 미메시스, 충동적 미메시스로 언급하면서 주체와 객체의 관계 속에서 주체는 합리성을, 객체는 특수성을 갖고자하는 예술적 미메시스를 제시하여 주체의 객체로서의 동화의 미메시스 개념을 정리한다.<sup>60)</sup>

아도르노에게 있어서 육체적 고통은 동일성 사유에 의해 합리화 될 수 없는 고통으로 고통은 사유의 범주 안에 들어갈 수 없는 독자성을 갖는다. 그

56) 유기환 (2010), “미메시스에 대한 네 가지 시각 -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벤야민, 리코르”, 세계문학비교학회지, 33, p. 383.

57) 최성만 역 (2007), 기술복제시대의 예술작품: 사진의 작은 역사 외, 서울: 길, p. 189.

58) H. Heynen (2000), “Architecture and Modernity”, Cambridge, MA, The MIT Press, p. 252.

59) N. Leach, op. cit., p. 16.

60) 박영태, op. cit., p. 26.

러므로 미메시스는 대상을 모방하는게 아니라 대상과 동일해지는 것으로 대상과 완전히 동화됨을 의미한다. 즉 고통에 대한 미메시스의 경험은 동일성 사유로 설명되지 않는 타자의 고통에 동화되는 경험이다<sup>61)</sup> 인간은 공포를 극복하기 위해 대상을 흉내냄으로써 공포의 대상과 동화되려 하는데, 이를 ‘대상과의 유사성’으로 표현한다.<sup>62)</sup>

아도르노의 미적 미메시스는 ‘비 대상적 유사성’으로 규정되어 유사성을 통한 자연이나 현실과 관련된 외적 미메시스와 ‘자기 자신과의 유사성’을 의미하는 예술 작품과 관련된 내적 미메시스로 구분한다.<sup>63)</sup> 아도르노는 미메시스를 단순히 비생산적 모방이 아닌, 인간의 원초적 활동과 생산적 기능의 개념으로 새롭게 이해하고자 하였다.

아도르노와 벤야민은 미메시스에 대한 철학적 가치 속에서, 자연을 인간의 경험으로부터 분리되어 있다고 보지만, 이는 우리가 자연세계의 일부라는 엄연한 사실에 모순된다. 폴 셰퍼드(Paul Shepard)는 신화, 민속, 이야기, 종교, 예술, 법과 규범이 미메시스적 행위에 의해 진화함을 상기시켜 아도르노와 벤야민의 미학적 이론 속의 언어와는 다르게 자연에 대한 찬양, 자연의 형성, 인간의 공동체와의 관계 등의 경우를 묘사한다.<sup>64)</sup>

벤야민과 아도르노가 말하는 최초의 미메시스의 개념은 자기 유지를 위해 본능적 행동으로 표현한 모습으로, 카멜레온이 위협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색을 변색하는 행위나, 달팽이의 더듬이를 건들이면 죽은 척 죽음을 모방하는 행위 등에서 볼 수 있다. 이성을 갖지 못한 존재로서의 인간은 유사성 인식능력이 가능해지면서 이성적 주체로서의 계기가 마련된다.

---

61) 정석현 (2012), "아도르노 미메시스 개념의 의미", 새한철학회지, 70(4), pp. 429-430.

62) 이종하 (2007), 아도르노 고통의 해석학, 서울; 살림, pp. 18-19.

63) 원준식, op. cit., p. 128.

64) M. Vincent (1999), "Re-Wilding Imagination : Mimesis and Ecological Restoration", Ecological Restoration, Winter 1999, University of Wisconsin Press, er.uwpress.org, p. 220.

### ③ 루카치(György Lukács : 1885~1971)

루카치는 예술과 현실의 관계를 미메시스적 관점에서 해석하였는데 예술은 현실의 부분적인 재현이 아니라 현실을 전체적으로 파악하여 재구성하는 과정에 있다고 보았다. 루카치는 현실과 연관성을 잃지 않고 자율성을 구축함으로써 개별성과 보편성의 특징을 ‘특수성’이라는 범주 안에서 찾고자 하였다. 그러므로 미메시스는 단순한 현실의 재현이 아니라, 현실의 측면을 총체적으로 파악하여 재구성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보았다.

그는 미메시스에서 부분과 전체의 관계는 ‘총체성’의 원리로, 개별성과 보편성의 관계는 ‘특수성’으로 설명한다<sup>65)</sup> 그에게 있어서 미메시스의 과제는 현실에서 본질적인 것을 추출하여 주관을 통해 미적으로 재구성함으로써 독립적인 현실을 성립시켜 예술의 ‘세계창조’를 이루는데 있는데, 이것이 곧 리얼리즘예술의 과제가 된다.<sup>66)</sup>

아도르노의 미적 미메시스는 ‘비대상적 유사성’으로 규정되는데 반해, 루카치의 미메시스는 ‘객관적 현실의 반영’이다. 이는 루카치의 관심은 리얼리즘 문학에 있고, 아도르노의 관심은 비대상적 음악과 비재현적 모더니즘 예술에 있는 것과 관계한다.<sup>67)</sup>

### ④ 가다머(Hans-Georg Gadamer : 1900~2002)

가다머는 해석학의 기초를 다진 철학자로 진리를 이해하고 선입견을 옹호해 객관주의 관점을 비판하면서 개인의 선입견이 진리를 이해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보았다.<sup>68)</sup> 그는 변증법적 진리의 이해를 가능하게 해주는 매

---

65) 이주영 (1996), “루카치의 미메시스론을 통해 본 예술과 현실의 관계”, 한국미학예술학회지, 6, p. 52.

66) Ibid., p. 54.

67) 원준식, op. cit., p. 123.

68) 조극훈 (2007), 가다머가 들려주는 선입견 이야기, 서울: 자음과 모음, p. 3.

개체를 언어로 보아 해석학적 입장에서 언어는 단순히 소통의 도구가 아닌, 경험 자체이며 분리될 수 없는 것으로 생각했다.

가다머는 예술적 체험을 재인식의 체험으로 보아 재현은 본질적인 것으로부터 추출한 것이라고 재인식하여 재인식을 통해 단순히 알려진 것 이상을 인식한다고 보았다.<sup>69)</sup>

가다머는 미학적인 것과 교육적인 것의 두가지 형태로 미메시스를 구분하여, 미학적 미메시스를 단순한 모방으로, 교육적인 형태의 미메시스는 어떤 특정한 행위를 하는 방식을 학습하기 위하여 그 행위를 관찰하는 것으로 인식하였다.<sup>70)</sup> 그는 미메시스는 단순한 원본의 복제가 아닌 인식으로, 미메시스의 인식의 기능을 강조하여 미메시스의 권리회복을 꾀하였는데, 여기서의 미메시스는 단순한 모방이 아닌 창조이다.<sup>71)</sup>

### ⑤ 리콤폴르(Paul Ricoeur : 1913~2005)

리콤폴르의 미메시스는 현실의 있는 그대로의 복사가 아닌 창조를 통해 새로운 것을 제시하는 실천의 행위로, 언어적 형상화를 통해 새로운 세계를 창조하여 미메시스는 줄거리가 있는 허구와 역사를 핵심 영역으로 한다.<sup>72)</sup>

그는 미메시스를 “재형상화(refiguration)” 라고 하여 불완전한 지식으로부터 새롭고 변화하는 진실의 형태를 보이는 완벽한 명확성에 이르는 인지 과정으로 보았다. 이러한 의미에서 미메시스는 과학의 역사에서 의식의 변화에 전통적으로 연계된 인식의 변화와 유사성을 보인다.<sup>73)</sup>

---

69) 이한우 역 (1999), 가다머, 서울: 민음사, p. 119.

70) T. Foster (2001), "Hermeneutics, Poetry, and the Irony of Plato", Kansas, Auslegung, 24(2), University of Kansas, p. 140.

71) 임호일 (2005), “가다머의 예술론- 미메시스의 권리회복”, 한국비히너학회지, 25, pp. 328-329.

72) Derrida, trans. B. Johnson (1981), "The Double Session; Dissemination", Chicago : University of Chicago Press, pp. 142-143.

73) William C. Dowling (2011), "Ricoeur on time and narrative", Notredame Indiana : University

그는 아리스토텔레스의 시학 이론과 아우구스티누스의 시간 이론을 합한 ‘삼중의 미메시스’를 통해 아리스토텔레스의 미메시스의 개념을 보다 넓힌다.<sup>74)</sup> 삼중의 미메시스의 세가지 분야는 전형상화(원형, prefiguration, Mimesis<sup>1</sup>), 형상화(Configuration, Mimesis<sup>2</sup>), 재형상화(Refiguration, Mimesis<sup>3</sup>)로 형상화는 설명자의 역할을 하고, 재형상화는 설명에 대한 청중의 역할을 한다는 개념으로 자신들이 듣고 있는 설명을 해석한다.<sup>75)</sup> 즉, 미메시스<sup>1</sup> 은 사전적 이해, 미메시스<sup>2</sup> 는 재현, 미메시스<sup>3</sup> 는 연계로 구분한다.<sup>76)</sup>

#### ⑥ 보드리야르(Jean Baudrillard :1929~2007)

보드리야르는 ‘시뮬라시옹(simulation)’ 개념을 제시하는데, ‘시뮬라크르(simulacres)’는 실제 존재하지 않는 대상을 존재하는 것처럼 만드는 인공물을 말한다. 이는 재현할 대상이 없는 이미지로, 원본 없는 이미지가 현실을 대체하고, 현실은 이미지의 지배를 받으므로 오히려 현실보다 더 현실적이다.<sup>77)</sup> 시뮬라시옹은 더 이상 준거 존재(referential being), 본질의 모방이 아니라 원천도 진실도 없는 모델, 즉 초현실(hyper-real)이다.<sup>78)</sup> 재현이 시뮬라시옹을 잘못된 재현으로 해석하여 흡수 하려는 반면, 시뮬라시옹은 재현의 축소물을 시뮬라크르로 감싸버려 시뮬라시옹은 재현과는 정반대이다.<sup>79)</sup>

보드리야르는 초현실주의가 컴퓨터 코드의 가상현실(Virtual Reality)과 같이 알고리즘 또는 수학 공식을 통해 생산된다고 하여, 이는 미메시스와 재

---

of Notre Dame Press, p. 15.

74) 유기환, op. cit., p. 386.

75) P. Dybicz, op. cit., pp. 347-350.

76) T. Maran, op. cit., pp. 199-200.

77) 하태환 역 (2003), 시뮬라시옹, 서울: 민음사, pp. 9-10.

78) M. Vincent, op. cit., p. 222.

79) J. Baudillard, op. cit., pp. 26-27.

현(representation)과는 분리되고 수학적 공식으로 함축된 것으로 보았다.<sup>80)</sup>

미메시스의 개념은 시대를 거쳐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의미로 변형, 재해석 되면서 발전하고 있다.

앞서 살펴 본대로 근대 이전의 미메시스는 흉내 내기, 외적인 것의 모방, 닮음의 표현 등에 중점한 외형적 미메시스와 인간의 내면에 내재된 본질적 측면의 모방, 비가시적 세계에 대한 모방, 정신적 재현 등을 통한 내면적 미메시스가 주로 등장했던 반면 근대 이후의 미메시스에서는 외형적인 것과 내면적인 미메시스가 공존하는 복합적인 미메시스의 양상들이 나타나고 있다.

이상과 같이 미메시스는 선사시대부터 20세기를 거쳐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계속해서 예술의 표현방법으로 적용되어 외적 형태의 있는 그대로의 표현이나 재해석한 창조적 재현, 내면적인 정신과 관념 등을 반영하여 상징, 은유적으로 표현하거나 이들의 특징을 모두 포함하여 혼합되거나 왜곡되어 경계가 모호한 복합적 미메시스의 형태로 나타난다.

위의 내용을 표로 정리하면 <표 1>과 같다.

---

80) Richard J. Lane (2001), Jean Baudrillard, Taylor & Francis e-Library, p. 86.

<표 1> 미메시스 개념의 시대별 변천

시대		미메시스의 개념	
선사시대		· 숭배의식 (무용, 흉내내기, 음악)	
고대 그리스	데모크리토스 (Democritos)	· 자연이 작용하는 방식의 모방	
	소크라테스 (Socrates)	· 사물의 외관을 포함	
	플라톤 (Platon)	· 예술 - 현실의 미메시스 현실 - 이데아의 미메시스 · 감각 가능한 현상의 모방 · 비감각적 의미의 표현도 포함 (인간의 행동, 성격, 감정) · 외관의 단순한 모사 · 비본질적인 것의 흉내내기	
	아리스토텔레스 (Aristoteles)	· 보편성의 제시 (본질로의 접근) · 인간의 능력을 신장시키는 기능 · 본질적인 것을 학습하는 수단	
중세	아우구스티누스 (Augustinus)	· 상징에 의한 내면에서 모방의 의미 이해	
	스콜라학과 (Scholasticism)	· 정신적 재현을 물질적 재현보다 우월하게 생각	
	토마스 퀴나스 (Tomas Aquinas)	· 자연의 모방 → 고대의 명제로 회귀	
근세 및 근대	16세기	· 자연의 법칙이나 규범을 모방	
	17세기	· 실재의 완전하고 보편적인 면만을 모방	
	18세기	· 아름다운 실재의 모방 : 바뉘 (Batteux)	
	19세기	· 아리스토텔레스적 개념의 모방	
		칸트 (Kant)	· 현실의 사물과 조형적 이미지 구별 · 아리스토텔레스 재현, 전통고수
	헤겔 (Hegel)	· 예술은 종교나 철학보다 낮은 단계로 진리를 나타내는 목적	

20세기 이후	벤야민 (Benjamin)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상과 유사해지고자 하는 능력 → 유사성 제시</li> <li>· 언어능력, 번역개념</li> <li>· 인류학적 관점에서의 미메시스 논의</li> </ul>
	아도르노 (Adorno)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동화의 개념으로 설명 (자연에 순응)</li> <li>· 비대상적 유사성</li> <li>· 타자의 고통에 동화되는 경험</li> <li>· 인간의 원초적 활동과 생산적 기능의 개념</li> </ul>
	루카치 (Lukács)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자율성 - 예술이 현실과의 연관성 유지</li> <li>· 특수성 - 개별성과 보편성의 관계설명</li> <li>· 총체성 - 부분과 전체의 관계 설명</li> <li>· 리얼리즘 예술</li> <li>· 객관적 현실의 반영</li> </ul>
	가다머 (Gadamer)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선입견 옹호</li> <li>· 미메시스의 인식의 기능을 강조</li> <li>· 단순한 모방이 아닌 창조</li> </ul>
	리쾨르 (Ricoeur)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언어적 형상화를 통한 세계창조</li> <li>· 재형상화 (삼중의 미메시스)</li> <li>· 아리스토텔레스의 개념 확대</li> </ul>
	보드리야르 (Baudrillard)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원본을 넘은 복제</li> <li>· 시뮬라시옹, 시뮬라크르</li> </ul>

## 2. 미메시스의 유형

### 1) 미메시스 관련 선행연구

미메시스에 관한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미메시스는 모방, 재현이라는 단어 나 미메시스 용어 자체를 그대로 사용하여 미술, 건축, 디자인, 패션, 메이크업 등 다양한 분야에서 연구되었다.

최광진<sup>81)</sup>은 재현의 의미를 세 가지로 분류하여 원본이 되는 대상과의 시각적 유사성을 가져 시각을 통해 구체적 대상의 외적 형태인 표면을 지시하는 작품을 표층적 재현으로 정의하였고 예술표현의 자율성을 획득한 것으로 형이상학적 본질이나 주체를 드러내는 작품을 심층적 재현, 기존의 이미지가 다층적으로 결합되어 의미가 변화하고 사라지는 작품을 메타적 재현으로 분류하였다. 표층적 재현에서는 외형적 미메시스가 심층적 재현에서는 내면적 미메시스가 메타적 재현에는 복합적 미메시스의 특징이 나타난다.

양희영<sup>82)</sup>은 패션 디자인에 나타난 형태론적 단순 모방으로서의 재현현상과 구조적 기능적으로 다른 대상으로 변화되어지는 패션의 되기현상을 비교하였다. 재현을 일정한 외관이나 형태로 환원 가능한 자연물을 모방한 1차적 재현, 자연물을 대상으로 인간에 의해 모방되어진 사물 또는 예술작품을 다시 모방한 2차적 재현으로 분류하여 1차적 재현은 대상과 작품 사이의 시각적 유사성이 존재하여 재현되어진 대상을 쉽게 인지 할 수 있는 반면, 2차적 재현은 재현 되어진 대상에 대한 이중적 모방으로 표현성과 상징성이 나타난다고 보았다. 1차적 재현에서는 외형적 미메시스를, 2차적 재현에서는 내면적 미메시스와 복합적 미메시스를 볼 수 있다.

---

81) 최광진 (2009), 현대 미술의 전략, 서울: 아트북스.

82) 양희영, op. cit..

정연자<sup>83)</sup>는 루카치의 리얼리즘적 미메시스론을 토대로 바디페인팅에 나타난 미메시스의 특성을 연구하였는데 루카치의 미메시스의 특성을 총체성, 특수성, 카타르시스, ‘유적인 것’으로 보고 예술의 형상화 방식이 상징을 통해 나타난다고 보았다. 미메시스의 특성에 따라 회화에 표현된 미적 미메시스의 특성을 왜곡과 변형, 상징, 기하학적 단순화로 분류하였는데 상징에서는 내면적 미메시스를, 왜곡과 변형, 기하학적 단순화에서는 복합적 미메시스를 볼 수 있다.

양수미<sup>84)</sup>는 동일성과 유사성을 외적 미메시스로, 은유성과 상징성을 내적 미메시스로, 변형성과 혼합성을 다원적 미메시스로 나누어 현대패션과 미디어 의상에 표현된 미메시스를 연구하였다.

신재욱<sup>85)</sup>은 디지털 문화시대의 캐릭터디자인이 시각적으로 수용자에게 얼마나 다양한 연상으로 기억되고 있는지를 미메시스 관점에서 분석하였다. 연구에서 미메시스 개념의 변화를 중세와 르네상스의 내면적 미메시스에서 17세기 이후 미메시스가 외형화 되었다고 보아 내면적 미메시스와 외형적 미메시스를 언급하였다.

박영태<sup>86)</sup>는 벤야민의 동화의 개념으로 주체가 객체에 동화하는 것과 아도르노의 부정미학 안에서 미메시스의 전복적 유용성을 중심으로 전복적 개념을 파악하여 건축에 나타난 전복적 미메시스의 표현 특성을 살펴보았다. 연구에서 개념적 미메시스의 특징을 비개념적 친화성으로, 미적 미메시스를 비대상적 유사성으로, 사물화에의 미메시스를 전복적 미메시스로 설명한다. 여기서 미메시스의 외형적이고 복합적인 특징을 찾아볼 수 있다.

---

83) 정연자, op. cit.,

84) 양수미, op. cit.,

85) 신재욱, op. cit.,

86) 박영태, op. cit.,

종합적으로 정리하면 공통된 유형을 도출할 수 있는데 외적이고 표면적이며 단순하고 1차적인 외형적 미메시스로 분류할 수 있으며, 심층적이고 2차적이고 상징적인 내적인 형태의 미메시스를 내면적 미메시스로, 메타적이고, 이중적이고 왜곡되고 변형되었으며 전복적 특징을 갖는 미메시스를 복합적 미메시스로 구분할 수 있다.

위의 선행 연구에서의 미메시스 유형을 정리하면 <표 2>와 같다.

<표 2> 미메시스 관련 선행연구

선행연구자	연구내용	범주의 구분
최광진 (2003)	현대 미술의 재현의 문제	표층적 미메시스 → 외형적 심층적 미메시스 → 내면적 메타적 미메시스 → 복합적
양희영 (2009)	패션 디자인의 재현과 되기현상	1차적 재현 → 외형적 2차적 재현 → 내면적, 복합적
정연자 (2009)	루카치의 미메시스를 토대로 한 바디페인팅의 미메시스 특성	상징 → 내면적 왜곡 → 복합적 기하학적 단순화 →
양수미 (2012)	현대패션과 미디어의상에 표현된 미메시스	외적 미메시스 → 외형적 내적 미메시스 → 내면적 다원적 미메시스 → 복합적
신재욱 (2012)	캐릭터디자인의 연상을 미메시스 관점에서 분석	내면적 미메시스 → 내면적 외형적 미메시스 → 외형적
박영태 (2013)	벤야민과 아도르노의 미메시스 이론을 중심으로 한 건축에 나타난 전복적 특징	비대상적 유사성 → 외형적 전복적 미메시스 → 복합적



유형분류		
외형적 미메시스	내면적 미메시스	복합적 미메시스

## 2) 미메시스의 유형분류와 하위요인

미메시스의 유형은 외형적 미메시스, 내면적 미메시스, 복합적 미메시스로 분류할 수 있다.

### (1) 외형적 미메시스

미메시스의 개념에는 여러 가지 의미가 포함되어 있으나, 선사시대의 외적 행위에 대한 따라하기의 표현이나 소크라테스의 사물의 외관을 복제하는 개념, 플라톤의 단순한 모사를 통한 흉내내기 등으로 정의 내려졌다.<sup>87)</sup> 이렇듯 미메시스는 대상을 현실에 있는 그대로 모방하여 동일하게 표현하거나, 비슷하게 재현하려는 표현방식이 있다.

대상을 현실세계에 반영하여 동일하게 표현하거나 비슷하게 재현하려는 특성을 외형적 미메시스로 분류한다.

외형적 미메시스는 선사시대에 따라하거나 흉내내기 또는 주술적인 것으로 대상을 동일한 모습으로 표현하므로 대상에 집중하여 형태를 충실하게 표현하는 동일성의 특징을 갖고, 대상의 무조건적인 모사가 아닌 재해석을 통해 부분적으로 변화를 주어 비슷한 상태를 유지하고자 하는 재현성을 특징으로 한다. 그러므로 외형적 미메시스는 대상의 형태의 그대로를 충실하게 표현한 동일성과 동일함과는 차이를 두어 대상의 그대로의 모사가 아닌 부분적 유사함의 특징을 갖는 재해석하여 표현된 재현성을 하위요인으로 갖는다.

### (2) 내면적 미메시스

중세시대는 실재의 재현보다는 상징을 통해 내면을 나타내거나 보이지 않

---

87) 손효주 역, op. cit., pp. 324-325.

는 세계를 모방함으로써 미메시스를 표현하여<sup>88)</sup> 내부적이고 본질적인 측면의 내면적 미메시스가 나타났다. 근대 아리스토텔레스적 개념의 모방예술의 형이상학적 규정 등을 통해서도 정신적, 내적 측면의 내면적 미메시스를 볼 수 있다.

내면적 미메시스는 본질적이고 내부적인 미메시스로 인간의 내면에 내재되어있는 내적 반영으로 주체를 가시화하는 형이상학적 개념으로 나타나 비유, 은유, 풍자, 상징 등으로 표현된다.

앞서 살펴 본대로 플라톤은 모방을 외부세계의 충실한 복제인 외형적 미메시스로 정의하였고, 아리스토텔레스는 모방을 현실로의 창조적 접근으로 간주하여<sup>89)</sup> 내면적 미메시스를 포함하는 개념으로 보아, 내면적 미메시스는 의미를 표현하는데 있어서 내적인 심리를 표출하는 것으로 다양한 형식으로 은유되거나 상징적으로 표현된다. 그러므로 내면적 미메시스는 내면의 사상과 관념이 이미지로 표현된 상징성과 내면이 은유적으로 표현되어 내적인 숨은 의도를 읽어내기 어려우며 풍자적인 전달을 포함하는 은유성을 하위요인으로 본다.

### (3) 복합적 미메시스

20세기 현대 사회에 나타난 미메시스는 대상과 이미지들의 다양한 형태의 결합으로, 추상적이고 기하학적 형태의 혼합과 변형, 현실의 재인식, 기호적인 요소, 언어적 능력으로 인한 도구화된 소외적 미메시스, 충동적 미메시스, 원본을 넘어서는 복제 등 외형적인 것과 본질적인 내부적인 형태의 변형과 혼합이 나타나고 있다. 벤야민과 아도르노는 정신 또는 내면적 심리의 작용으로 비감각적 유사성을 포함하여<sup>90)</sup> 왜곡된 변형을 설명함으로써 왜곡

---

88) V. Timofeev, op. cit., p. 66.

89) 원준식, op. cit., p. 49.

성을 설명하였고, 보드리야르는 복제된 이미지에서 반복되고 차용되어온 혼합성을 가지며 시물라크르는 외형적인 동일성을 갖지만, 내면적으로는 변형된 복합적인 개념을 갖는다고 보았다.<sup>91)</sup>

복합적 미메시스란 외형적 미메시스와 내면적 미메시스의 특징이 모두 나타나는 것으로 여기서는 혼합되거나 응용된 표현인 혼합성과 변형되어 형태가 다르게 표현된 왜곡성을 하위범주로 볼 수 있겠다.

이상과 같이 미메시스의 유형분류에 따른 하위요인을 외형적 미메시스는 동일성과 재현성, 내면적 미메시스는 상징성과 은유성, 복합적 미메시스는 혼합성과 왜곡성으로 도출할 수 있었으며 이를 <표 3>과 같이 정리할 수 있겠다.

---

90) 유기환, op. cit., p. 38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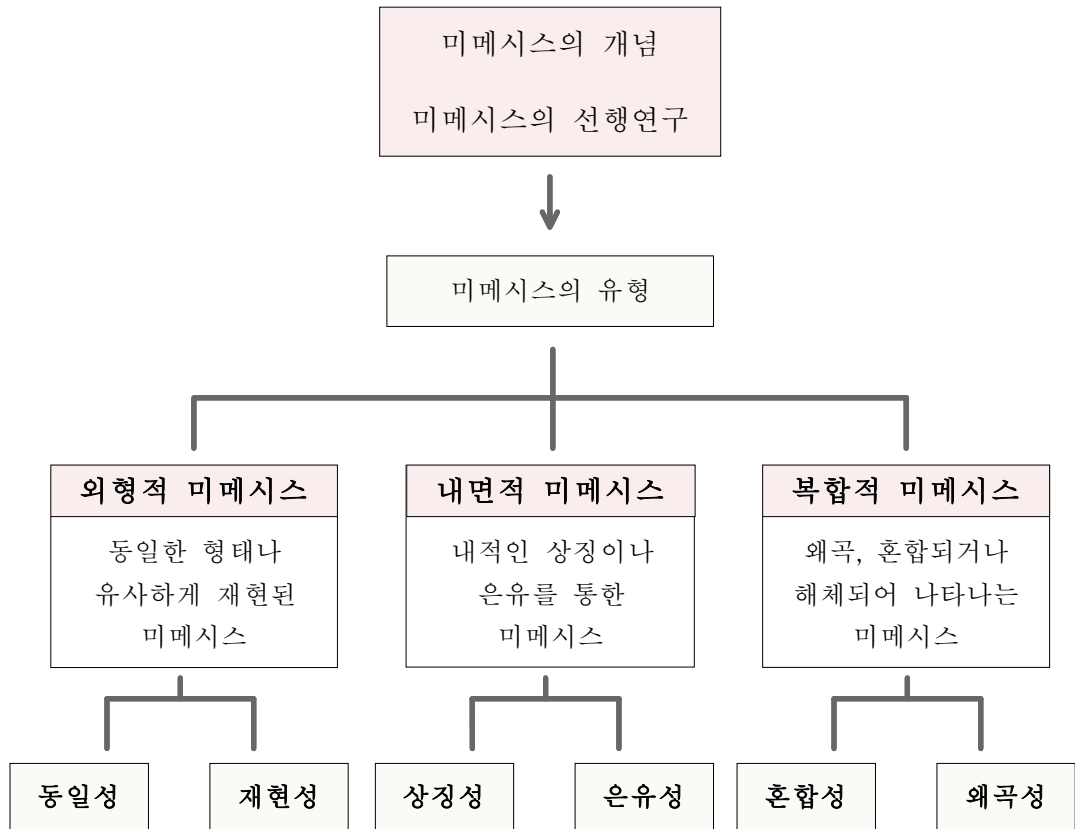
91) 하태환 역, op. cit., pp. 9-10.

<표 3> 미메시스의 하위요인

시대	대상	표현	특성	하위요인	유형분류
선사시대	·숭배의식, 미신 ·제의적 표현	·외적 행위의 따라하기 ·동일시	·동일성 ·모방성	동일성	외형적 미메시스
고대 그리스	·자연이 작용하는 방식 ·사물의 외관 복제	·외면적 실재 ·재창조	·보편성 ·유사성 ·재현성	재현성	
중세	·비가시적 세계의 모방 ·자연의 모방	·상상력 ·은유	·상징성 ·정신성	상징성	내면적 미메시스
근세 및 근대	·예술, 시 ·자연의 법칙, 규범 ·보편적인 것 ·아름다운 실재	·내적 ·상징	·동일성 ·은유성 ·상징성 ·내면성	은유성	
20세기 이후	·원본의 재해석 ·언어능력 ·비감각적 유사성 ·스스로를 동화 ·대상과의 유사성 ·현실의 재인식 ·가상현실 ·현실보다 더 현실적인 복제	·유사성 ·형태의 변형 ·내적 · 외적 변형 ·복제	·유사성 ·혼합성 ·변형성 ·재인식 ·상징성 ·복제성	혼합성  왜곡성	복합적 미메시스

본 연구에서는 미메시스의 개념과 변천에 따른 이론적배경과 미메시스의 선행연구를 기반으로 미메시스의 유형을 동일하게 묘사하거나 유사하게 재현하여 재해석된 개념인 외형적 미메시스와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한 상징이나 내면적인 은유를 통한 내면적 미메시스, 그리고 왜곡, 혼합되거나 해체되어 표현되거나 외형적이고 내면적인 특징이 모두 나타나는 복합적 미메시스로 분류하였다. 이에 대한 하위 요인을 외형적 미메시스의 있는 그대로의 표현인 동일성과 재해석하여 유사하게 창조한 재현성으로, 내면적 미메시스의 내면의 관념이나 사상을 상징하는 상징성과 내적인 메시지의 전달이나 풍자, 해학적인 표현의 은유성, 그리고 복합적 미메시스의 형태와 질감의 혼합성과 왜곡성으로 도출하였다.

이를 정리하면 <그림 1>과 같다.



<그림 1> 연구의 전개

### 3. 바디아트의 이론적 고찰

#### 1) 바디아트의 개념 및 기원

바디아트(Body Art)란 신체에 문신(tattoo)이나 피어싱(piercing), 보석장식을 장식하는 것을 관행으로 여기는 행위<sup>92)</sup>에서 비롯되어 인간의 몸을 대상으로 어떤 일정한 재료와 양식, 기교 등을 사용하여 미를 창조하고 표현하는 인간의 활동이나 산물이다.<sup>93)</sup>

바디아트는 인간의 신체에서부터 자연발생적으로 시작하였지만 신체를 삼차원의 공간으로 인식하고 공간적인 감각과 시간적인 감각을 표현하는 4차원의 공간표현의 조형예술<sup>94)</sup>로, 다른 예술에 비하여 많은 장점과 특성을 가지고 있다. 순수 예술은 작가의 작품 의도만이 표현되어지나 바디아트는 표현하는 사람의 의도와 작품성만이 아니라 시술을 받는 이의 표현의도와 협조, 시술 후의 시각적 표현성이 어우러져 더 큰 의미를 지니게 된다.<sup>95)</sup> 바디아트의 기원은 원시시대부터 이미 존재하였으며 수세기 동안 인간이 지닌 원초적이고 생명력 있는 활동으로써 한 집단이나 개인의 표현수단이었고 사회 문화적 반영체로 표현되어져 왔으며,<sup>96)</sup> 바디아트는 미적 본능, 신분과 지위를 표시하거나 주술적, 종교적 목적으로 때로는 적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수단으로 자신의 얼굴이나 신체에 행해졌다.<sup>97)</sup> <그림 2>의 상흔

92) <http://www.oxforddictionaries.com> (2014.02.15)

93) 이유나 (2011), 시물라시옹 개념에 따른 바디아트의 시각적 이미지 표현에 관한 연구, 성신여자대학교대학원, 박사학위논문, p. 29.

94) 태동숙 (2011), 투명성을 응용한 바디아트 표현 연구, 성신여자대학교대학원, 박사학위논문, p. 30.

95) 문정은 (2003), “현대 패션에 나타난 바디아트의 형태와 특성에 관한 연구”, 한국인체예술학회지, 4(1), p. 172.

96) 이진용 (2012), “카무플라주를 이용한 바디아트 연구”, 한국인체미술학회지, 12(2), p. 190.

97) 김유성, 홍세원 (2005), “바디아트에 나타난 타이포그래피 표현에 관한 연구”, 한국미술학회지, 11(2), p. 160.

은 전사들의 용맹의 상징이 되기도 하였고 신체 변형이나 문신, 채색을 함으로써 성인이 됨을 상징하였다. 또한 신이나 강한 동물처럼 되고자 하는 욕구를 나타내거나 집단 리더의 위엄과 권위를 나타내는 등 이는 인간 심리의 욕구와 미적 본능의 장식적인 수단에서 시작<sup>98)</sup>되었다고 볼 수 있다(그림 3, 4).

또한 사회적 지위와 종교적 필요성으로 행해진 경우가 많으며 문신도 한 예로 볼 수 있는데, 문신의 경우는 <그림 5>와 같이 육체손상의 풍습, 기념 기호와 부족계층, 소속집단의 표시, 용기와 부의 과시, 남존여비 등 여러 가지 목적으로 중복 사용되었으며 오늘날에도 많은 나라에서 행해지고 있다.<sup>99)</sup>

이렇듯 인류의 모든 인종은 피부를 자신들의 예술적 감성을 표현할 수 있는 표면이자 광범위하고 다양한 의미를 전달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장식으로 자신을 아름답게 꾸밀 수 있는 공간으로 사용<sup>100)</sup>했다고 볼 수 있으며, 사회·문화적으로 여러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었던 바디 아트는 인체 그 자체를 예술적 대상으로 인식하는 현대 미술 흐름 속에서 인간의 행동과 몸짓 등을 사실적으로 표현하는 신체미술로 발전하였고, 다양한 분야에서 광범위하게 행해지게 되었다.<sup>101)</sup>

이와 같이 현대의 바디아트는 다양한 신체적 표상을 시각적인 요소를 통하여 인지할 수 있도록 공간에 표현해냄으로써 여러 가지의 언어를 전달할 수 있으며, 신체 표현들은 가시적으로는 색채, 질감, 오브제의 특징을 시각

---

98) 오인영 외 (2009), 메이크업디자인, 서울: 훈민사, p. 18.

99) 유태순 역. (2004), 서양화장문화사 서울: 동서교류, p. 13.

100) Karl Gröning (1997), Decorated skin: A world survey of body art, New York: Thames & Hudson, p. 1.

101) 최경옥 (2009), 아르누보 문양 이미지를 응용한 바디아트 연구, 성신여자대학교대학원, 박사학위논문, p. 29.

적으로 지각시켜 감성을 주로 표현하고 있다.<sup>102)</sup>

오늘날의 바디아트는 예술성과 조형성을 추구하면서 표현상의 어떠한 구속도 받지 않으며 다양한 소재와 재료를 이용하여 창의적이고 실험적인 예술의 한 장르로 자리잡아가고 있다.

---

102) 태동숙, op. cit., pp. 37-38.



<그림 2>

상흔에 의한 신체장식  
 (Karl Gröning, Decorated Skin:  
 A World Survey of Body Art, p. 135.)



<그림 3>

아프리카 원주민의 페이스페인팅  
 (Hans Silvester, Natural Fashion:  
 Tribal Decoration from Africa, p. 1.)



<그림 4>

채색을 이용한 신체장식  
 (권구정 외, Makeup Icon, p. 10.)



<그림 5>

문신을 이용한 신체표현  
 (Karl Gröning, Decorated Skin:  
 A World Survey of Body Art, p. 125.)

## 2) 바디아트의 유형

현대인들은 신체 장식 방법을 단지 고대 원시인들이 표현하고자 했던 목적에서만 아니라 주술적인 의미는 배제되었지만 자신의 심리적, 신체적, 미적 욕구를 충족시키고 적극적인 자아표현의 방법으로 사용하고 있는데,<sup>103)</sup> 본 연구에서는 페이스 페인팅, 환타지 메이크업, 바디 페인팅으로 나누어 살펴보고자 한다.

### (1) 페이스페인팅(Face Painting)

페이스페인팅은 얼굴 전체에 표현하는 분장 예술의 한 장르로 주로 안면 위에 미리 디자인해 놓은 특정 도안과 형상을 그리고 칠하는 것을 말하며<sup>104)</sup> 얼굴의 작은 부위에 그리거나 전체에 그리는 형태로 고정화 되거나, 객관적인 어떠한 규율화 된 형식에 따르지 않고 개인의 주관에 따라 자유롭게 표현한다<sup>105)</sup>(그림 6, 7).

페이스페인팅은 바디아트의 개념으로 초기에는 하나로 묶어진 형태로 시작되어 현대에 와서 바디페인팅, 무대분장, 타투, 페이스페인팅 등으로 세분화되면서 많은 변화를 거쳐 전문성을 띤 영역으로 발전하였으며, 그 기원은 원시미술에서 찾아 볼 수 있는데 원시미술의 맥을 이어오고 있는 아프리카, 인디언들의 생활상·풍습을 통해 그 원형을 엿볼 수 있다.<sup>106)</sup>

오랜 전통을 자랑하는 중국의 경극이나 가부키 분장도 페이스페인팅의 범주에 속하는데, 이는 유럽이나 타 대륙에 비해 페이스페인팅이 드문 아시아

103) 조은숙 (2004), 현대메이크업에 나타난 오리엔탈리즘이 반영된 바디아트에 관한 연구, 성균관대학교 생활과학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 25.

104) 오인영 외 (2010), 아트 메이크업 디자인, 서울: 훈민사, p. 11.

105) 김양은 외 (2009), ART MAKE-UP, 과주: 광문각, p. 17.

106) 박경연 (2003), 지역문화축제에서 페이스페인팅 영향력에 관한 연구, 조선대학교산업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p. 37-38.

의 대표적인 페이스페인팅이라 할 수 있다.

## (2) 환타지 메이크업(Fantasy Make-up)

‘환타지(Fantasy, Phantasy)’는 사전에 의하면 기이한 세상이나 시대, 초자연적 존재나 형상이 위주가 되는 상상력을 기초로 한 허구를 지칭한다<sup>107)</sup>. 환타지 메이크업은 <그림 8, 9>와 같이 주로 상반신(décolleté) 위주로 작업하여 메이크업 뿐 만 아니라 의상, 헤어, 장식까지 포함한 토탈 스타일링<sup>108)</sup> 연출이 가능한 분야라고 할 수 있다.

환타지 메이크업은 다양한 소재를 이용하여 강하면서도 화려하고 과장되게 이미지를 표현하여 작품을 효과를 높이고자 하는 기법으로 자신이 상상하는 것을 구체적인 소재를 사용하여 표현하는 것과 추상적인 소재로 표현<sup>109)</sup>하는 두 가지로 구분 할 수 있다. 상반신을 중심으로 표현하는 환타지 메이크업은 페이스페인팅과 바디페인팅의 절충점으로서 메이크업의 표현력과 다양성을 극대화하면서 최상의 미적 가치를 추구하는 바디아트의 표현방법으로 사용되고 있다.

## (3) 바디페인팅(Body Painting)

바디 페인팅은 물감이나 진흙, 그 외에도 신체에 표현 될 수 있는 여러 가지 재료들을 이용하여 아름답게, 환상적으로 혹은 의도된 목적에 따라 채색하는 장식 방법<sup>110)</sup>으로, 인체를 캔버스로 간주하여 구체적인 형상이나 이미지를 표현하는 예술의 한 장르<sup>111)</sup>이다.

---

107) 정승희 (2010), 2000년대 패션쇼에 나타난 메이크업디자인의 이국적 이미지 연구, 경희대학교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pp. 30~31.에서 재인용

108) 오인영, op. cit., p. 14.

109) 천지연 외 (2013), Art & Character Make up, 서울: 청구문화사, p. 33.

110) 강대영 (1999), 한국분장예술, 서울: 지인당, p. 255.

바디페인팅은 인간이 지구상에 정착하면서부터 생존을 목적으로 행한 여러 행위 중 하나로, 112) 수 천년 동안 한 사회의 문화적 특성을 표현하기 위해 사용되어져 왔으며 그 표현의 형태인 바디 페인팅은 인간의 내적 심리뿐만 아니라 그들의 사회적 문화의식과 창조성을 동시에 보여준다.113)

바디페인팅의 색채나 디자인의 모티브와 기법들은 그 특정한 민족이 가지고 있는 가치와 믿음, 역사를 응축한 상징적 결정체를 보여주며 이는 치장과 장식으로 외모를 변형시킴으로써 전통적인 자신들의 문화를 대표하는 시각적 상징물로 변모114)시키는 것으로 해석 할 수 있다.

바디페인팅은 원시시대의 주술적인 신앙으로부터 시작되어 다양한 신체예술의 형태로 이어져 현대에는 독특한 예술의 한 분야로 자리 잡아 왔으며, <그림 10, 11>과 같이 즉흥적인 작품 뿐 아니라 실험성이 강한 작품까지, 그리고 무대에서 조명, 음악 그리고 퍼포먼스를 곁들여 표현하게 되는 무대 예술로서도 자리를 굳건히 하며 예술문화의 한 장르로 발전을 거듭하고 있다.115)

이렇듯 현대의 바디아트는 다양한 장르로 변모하고 발전하고 있으며 기존의 획일화된 표현이 아닌 실험적이고 예술적인 경향을 바탕으로 시각적 조형 예술로서 자리 잡아가고 있다.

---

111) 김혜선, 강은주 (2013), “바디페인팅을 활용한 광고의 광고속성이 구매의도에 미치는 영향”, 한국디자인문화학회지, 19(3), p. 149.

112) 한명숙 (2005), 바디아트에 나타난 메이크업의 포스트모더니즘적 특성에 관한 연구, 대구대학교대학원, 박사학위논문, p. 73.

113) 김유성, 홍세원, op. cit.. p. 162.

114) Ted Polhemus (2004), Hot Body: Cool Styles, New York: Thames and Hudson, p. 6.

115) 최경옥, op. cit.. p. 41.



<그림 6>  
오브제를 활용한 페이스페인팅  
(천지연 외, 아트&캐릭터메이크업, p. 156)



<그림 7>  
회화적 기법의 페이스페인팅  
(Karala Barendregt, Bringing body painting to life, p. 333)



<그림 8>  
상반신 환타지 메이크업  
(Karl Gröning, Decorated Skin:  
A World Survey of Body Art, p. 229)



<그림 9>  
인체를 활용한 환타지 메이크업  
(천지연 외, 아트&캐릭터메이크업, p. 19)



<그림 10>  
다양한 색채의 바디페인팅  
(Karala Barendregt, Bringing body painting  
to life, p. 372)



<그림 11>  
이질적 질감의 바디페인팅  
(김양은 외, Art Make-up, p. 124)

### Ⅲ. 메이크업에 표현된 미메시스 특징

현대 패션컬렉션 메이크업은 다양하고 복잡한 시도를 통한 디자인이 보여지며 디지털을 통한 정보의 발달로 유행의 주기 또한 점점 짧아지고 있는 추세이다. 이러한 정보화 사회에 문화 예술 장르의 경계가 허물어지고 메이크업에 있어서도 다양한 장르가 혼합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이미 과거에 유행했던 메이크업이 모방되어 다시 유행되거나 과거에 대한 재해석을 통해 다시 현재에 맞게 재창조 되어 지기도 한다. 모방과 창조의 경계가 모호해지면서 미메시스의 영역이 모방을 통한 재해석의 개념으로 확대되어 패션컬렉션 메이크업에서도 지속적으로 보여지고 있다.

본 장에서는 미메시스의 고찰과 선행연구를 통해 도출된 미메시스의 유형별 분류를 통해 메이크업 특성을 분석하고자 한다. 2000년대 이후부터 현재까지의 패션컬렉션 메이크업 특징은 과거 복고적 의미의 레트로(Retro) 경향과 이질적 요소를 재편성하여 새롭게 재해석하는 하이브리드(Hybrid) 경향이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모방의 개념과 재현의 형식으로 보여지는 21세기의 메이크업은 얼굴뿐 아니라 헤어와 바디를 포함하여 그 범위를 점차적으로 증대시키고 있다. 디자이너들의 작품은 다양한 매체와 패션쇼를 통해 대중에게 인식되며 많은 영향을 준다. 따라서 여러 가지 트렌드들이 공존하는 디자이너를 중심으로 한 패션컬렉션에 나타난 메이크업의 다양한 표현기법을 설명하며, 미메시스의 특징을 살펴보고자 한다.

#### 1. 외형적 미메시스

외형적 미메시스는 대상에 대한 동일하거나 비슷한 표현으로 다시 나타냄

을 의미한다. 이는 동일하게 표현하거나 부분적으로 변화를 주어 비슷하게 표현하는 것으로 재해석의 개념을 포함하여 하위요인으로 동일성과 재현성으로 구분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패션컬렉션에 나타난 메이크업에서 표현된 외형적 미메시스의 동일성은 형태를 그대로 동일하게 표현한 것과 따라하기, 흉내내기 등의 패러디 개념으로의 연상에 의한 동일로 구분 지을 수 있다. 재현성은 복고, 시대적 특징의 표현, 미래주의 등의 시간적인 재현과 각 나라의 특징이 나타나는 민속적 주제 등의 장소의 재현으로 구분지어 분류한다.

## 1) 동일성

동일성은 미메시스의 개념을 설명할 때 가장 많이 언급된 내용으로 하나의 대상 또는 현상이 자신과 동일함을 뜻하며, 또 몇 개의 대상 또는 현상이 그 성질, 관계에 있어서 동일함을 표현한다는 사전적 의미를 갖는다.<sup>116)</sup> 즉 동일한 표현을 의미하며 본 연구에서는 동일성의 표현을 기교나 과장됨이 없이 얼굴의 형태에 충실하여 형태를 동일하게 표현한 것과 고대 미메시스의 개념인 따라하기, 흉내내기 등과 같이 특정한 또는 독특한 스타일의 모방, 숨어있는 동기, 풍자적 충동이 숨겨져 있는 패러디<sup>117)</sup>의 개념으로 연상에 의한 동일을 포함한다.

### (1) 형태에 의한 동일

형태에 의한 동일에서는 형태나 컬러에 큰 변화를 주지 않고 본래의 형태에 충실하여 동일하게 표현한 것을 볼 수 있다.

---

116) 임석진 외, op, cit., p. 148.

117) 최광진 (2004), 현대미술의 전략, 서울: 아트북스, p. 214.

<그림 12>는 부드러운 브라운 계열의 아이섀도우, 캐주얼한 거리의 일상적인 모습을 동일색의 조화를 이용하여 표현하였고 자연스런 헤어의 연출을 통해 가공되지 않은 절제된 스타일링을 보여 주었다. <그림 13>은 아이메이크업의 라인을 모두 생략한 옅은 피부표현의 누드 메이크업으로 가벼운 핑크 블러셔와 핑크 립색상이 원래의 얼굴 형태를 살려 자연스럽게 생기있게 표현하였다. 연한 회갈색 아이섀도우와 핑크빛 볼터치는 자연스럽게 차분하게 표현되어 편안한 이미지를 준다(그림 14). 또한 <그림 15>는 얼굴의 형태를 있는 그대로 자연스럽게 표현함으로써 민낯의 분위기가 느껴지는 내추럴한 메이크업이다. 이 이미지의 주조색인 브라운 계열의 색상은 피부표현과 음영만으로 가볍게 표현하여 모델이 가지고 있는 이미지를 그대로 보여 주었다.

## (2) 연상에 의한 동일

연상에 의한 동일에서는 형태를 패러디하여 대상을 연상 가능하게 표현한 것으로 모든 예술분야에서 작가들은 소위 우리가 형식들의 창조라고 부르는 것을 단순히 조심스럽고 충실한 모방의 과정으로 인식하고 있다.<sup>118)</sup> 연상에 의한 동일은 선행 양식을 모방하는 ‘모방’의 개념과 재현의 형식으로서의 ‘패러디’ 개념으로 설명 할 수 있다.

알렉산더 맥퀸(Alexander McQueen)의 2002년 F/W 컬렉션에 나타난 <그림 16>의 메이크업은 영화 베트맨을 패러디하여 표현하였고, <그림 17>은 매트한 피부표현과 위와 아래의 인위적인 속눈썹, 금색과 은색의 입술로 마치 사람이 아닌 도자기 인형을 연상시키는 메이크업이다. <그림 18>은 얼굴을 하얗게 칠하고 하트를 그려 카드나 빼에로의 특징적인 부분을 강조하

---

118) 이승훈 역 (1990), 예술이란 무엇인가, 서울: 고려원, p. 82.

여 다양한 연상을 할 수 있도록 예술적으로 표현하였다. 연상에 의한 동일에서는 유명인을 패러디하여 표현한 경우도 나타나는데, 얼룩진 검은 눈을 표현하고 눈 앞머리는 은백색으로 포인트를 주고 입술은 누드립에 립라인을 강조하여 캐나다 태생의 섹시파 여배우 파멜라 앤더슨(Pamela Anderson)의 강한 모습을 연상시키며(그림 19), 가무잡잡한 피부표현과 눈썹 솥을 거칠게 그리고 좌우의 눈썹을 붙게 표현함으로써 멕시코의 여류화가 프리다 칼로(Frida Kahlo)를 연상시켰다(그림 20). 이와 같이 메이크업을 통해 연상에 의한 동일성을 표현 할 때엔 단순한 모방 보다는 과거의 이미지를 통해 더욱 새롭게 발전, 재생시키는 특성을 가지게 된다.

## 2) 재현성

재현성은 부분적으로 변화를 주어 비슷하게 표현하는 것으로 있는 그대로의 모방이 아닌 재해석을 통한 재창조를 의미하여 동일성의 개념과 구별된다. 본 연구에서는 재현성의 표현양상을 시간을 통한 재현과 장소를 통한 재현으로 나누어 살펴보겠다. 먼저 시간의 재현은 시간적 의미를 포함한 재현으로 시간을 거슬러 다시 유행되는 복고, 앞선 시간의 미래적 표현 등 시대적 특징을 표현한 다양한 메이크업을 포함하고, 장소의 재현은 지역적인 특성이나 민속적인 특징의 메이크업을 포함한다.

### (1) 시간의 재현

시간의 재현에서는 시대의 흐름에 따른 메이크업으로 과거와 미래를 포함한다.

<그림 21>은 모델의 강한 눈빛과 광대뼈 부위에 무채색의 문양을 입체적으로 넣어 고대 전사의 모습이 재현되었지만 동시에 미래의 이미지를 지니

고 있다. Alexander Mcqueen은 2007년 F/W 컬렉션에서 각지고 두꺼운 검은 눈썹과 물고기 모양의 과장된 아이라이너, 눈두덩이에 넓게 푸른 컬러를 표현하여 이집트 메이크업을 재현하였다(그림 22). 또한, 2005년 S/S 컬렉션에서는 창백한 피부표현과 흐린 눈썹, 넓은 이마로 중세 메이크업의 특징적인 이미지를 현대적인 감각으로 부활시켜 중세 여인의 모습을 재현하여 표현하였고(그림 23), 크리스찬 디올(Christian Dior)은 2010 S/S 컬렉션에서 희고 창백한 피부표현, 붉은 입술, 패치의 사용 등으로 로코코 시대를 재현하였다(그림 24). <그림 25>는 크리스찬 디올(Christian Dior)의 2009년 S/S 컬렉션으로 인위적인 가는 눈썹과 인커브의 입술로 1920년대의 복고적인 이미지를 표현하고 화려한 컬러와 성숙한 분위기는 1980년대 이미지를 재현하여 복합적 시대양식을 보인다. 미래를 표현한 메이크업으로는, 넓고 광활한 우주를 표현하기 위해 얼굴의 범주를 목과 헤어까지 연장하여 이마 전체를 하얗게 표현하고 아이메이크업도 눈을 벗어나 몽환적이고 환상적인 효과를 표현하여 암적색의 입술과 커다랗고 둥근 금색의 헤어장식으로 은하계의 이미지를 재현하였다(그림 26). 또한, 미래적이며 기계적인 이미지로 SF(공상과학)적인 모습으로 보이기 위해 은색의 색상으로 얼굴 주변의 피부를 표현하여 현재와 미래가 공존하는 것처럼 연출하였다(그림 27). 재현성이 보여지는 작품들은 시대의 있는 그대로의 동일한 모방이 아닌 각각의 특성을 나름대로 재해석하여 새롭게 창조한 미메시스의 표현들이다.

## (2) 장소의 재현

장소의 재현에서는 나라별 특성이 보여지는 민속적 표현이나 지역적 특성이 나타나는 메이크업을 포함한다.

<그림 28>은 흰 피부표현, 과장된 아이라이너, 축소된 붉은 입술을 통하

여 일본의 가부끼 메이크업을 현대적으로 재해석 하였고, <그림 29>는 과장된 피부표현, 검정 눈썹과 붉은 입술 표현으로 중국의 경극 느낌을 준다. <그림 30>은 강렬한 붉은색 입술과 황금색 펄 아이섀도우를 사용하여 동양과 서양의 문명이 공존하는 비잔틴의 오리엔탈 이미지를 보여주고 있으며, <그림 31>은 눈, 코, 볼, 턱, 이마의 패턴에서 아프리카의 특징을 볼 수 있다. 또한 <그림 32>는 2009년 S/S, 존 갈리아노의 컬렉션에 보여진 작품으로 하얀 베일과 동전으로 치장된 우크라이나의 신부를 표현하였다. 전체적으로 창백한 흰색과 은색을 사용하였고 머리 부분은 털실과 같은 줄과 장식으로 과장되게 표현하였다. 피부색 또한 흰 칠을 하여 붉은 색의 입술과 대조적으로 보여 마치 러시아 인형과 같은 모습을 재현하였다. 요오지 야마모토(Yohji Yamamoto)의 2009 F/W 컬렉션에서는 ‘일본의 향기’라는 주제로 장소의 재현이 보여 진다. 게이샤의 하얀 얼굴을 적용하고 한쪽 아이홀에 붉은 선, 볼 위에 작은 붉은 점, 각지고 선명한 붉은 입술로 강한 색상 대비를 이루며 일본의 특징을 단순화하여 현대적으로 표현하였다(그림 33).



<그림 12> Christopher Kane 2009 F/W  
(IN BEAUTY)



<그림 13> Valentino 2009 F/W  
([www.bellazon.com](http://www.bellazon.com))



<그림 14> Chanel 2010 S/S  
(IN BEAUTY)



<그림 15> Giambattista Valli 2014 S/S  
([www.style.com](http://www.style.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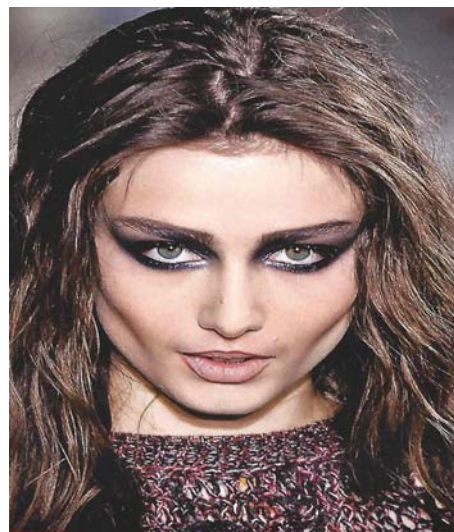
<그림 16> Alexander McQueen 2002 F/W  
([www.stylebistro.com](http://www.stylebistro.com))



<그림 17> John Galliano 2009 S/S  
([www.style.com](http://www.style.com))



<그림 18> Manish Arora 2009 S/S  
(IN BEAUTY)



<그림 19> Vivienne Westwood 2009 F/W  
(IN BEAUTY)



<그림 20> John Galliano 2010 F/W  
(www.style.com)



<그림 21> Zazo & Brull 2009 S/S  
(IN BEAUTY)



<그림 22> Alexander McQueen 2007 F/W  
(www.style.com)



<그림 23> Alexander McQueen 2005 S/S  
(www.style.com)



<그림 24> Christian Dior 2010 S/S  
([www.style.com](http://www.style.com))



<그림 25> Christian Dior 2009 F/W  
(<http://khooll-elinor.tumblr.com>)



<그림 26> Teresa Helbig 2009 S/S  
(IN BEAUTY)



<그림 27> Zucca 2009 F/W  
(IN BEAUTY)



<그림 28> Christian Dior 2004 F/W  
(eyesing.typepad.com)



<그림 29> John Galliano 2006 S/S  
(www.style.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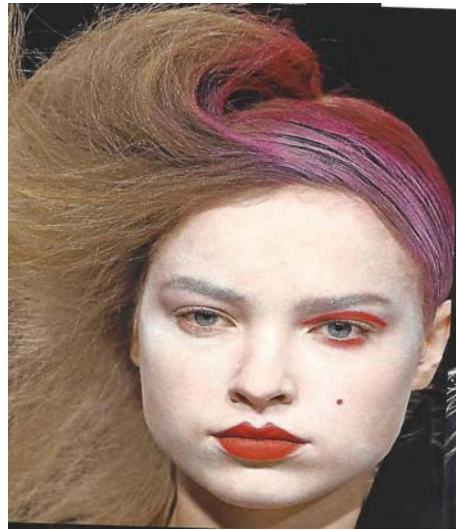
<그림 30> Christian Dior 2006 F/W  
(www.style.com)



<그림 31> Fabrizio Capriata 2009 S/S  
(IN BEAUTY)



<그림 32> John Galliano 2009 S/S  
(IN BEAUTY)



<그림 33> Yohji Yamamoto 2009 F/W  
(IN BEAUTY)

## 2. 내면적 미메시스

내면적 미메시스는 표현하기 난해한 내면의 본질적인 것들을 다른 대상으로 암시적으로 표현하여 인식시키며 내적인 심리를 전달하는 방법으로 이미지를 상징적으로 표현하거나 은유적으로 전달한다.

내면적 미메시스는 내부에 내제되어 있는 인간의 본질적인 것들을 비유, 은유, 풍자, 상징 등으로 표현하여 내면을 상징하거나 은유적으로 나타나는 것으로 상징성과 은유성으로 구분되어 진다. 상징성은 이미지나 관념을 상징하는 것으로, 비가시적인 세계를 메이크업으로 표현하며, 은유성은 외형적으로는 잘 드러나지 않는 내적인 사상의 은유적 표현으로 풍자, 해학을 통한 은유와 메시지 전달 목적의 은유를 포함한다.

내면적 미메시스의 특성은 상징성과 은유성 외에 내면성, 정신성, 동일성으로 설명되어지며 외형적 미메시스의 특징인 동일성과의 차이는 표현 방법의 차이로 내면적 미메시스의 동일성은 외적인 표현 방법보다는 내면의 보편적인 규범이나 비가시적인 예술의 미적 동일성으로 구분하고자 한다.

### 1) 상징성

상징(象徴)의 어원은 그리스어의 심벌론(symbolon)에서 시작됐으며 다의적 개념으로 직접 지각할 수 없는 의미나 가치 등을 어떠한 유사성에 의해 구상화하는 것으로 어떤 것을 둘로 나누었을 때 각각의 소유자가 그것을 합쳐 서로의 신원을 확인하는 것을 의미했다.<sup>119)</sup> 즉 사회적으로 승인된 약속으로써 사회적인 성격을 포함한다. 상징은 예를 들면 하트가 사랑, 십자가가

---

119) 한국사전연구소 (1998), 종교학대사전, p. 178.

기독교의 상징이 되듯이 어떤 추상적인 것을 감각적인 형상을 통해 나타내는 것을 말하는데, 여기에서의 두 단어는 필연적 관계는 없고 유사점만 보여진다.<sup>120)</sup> 그러므로 상징은 복잡한 개념을 단순하게 나타내거나 표시하도록 만든 의사 전달의 요소이다.

상징성은 내면을 이미지로 형상화하거나 내적 관념이 표현된 것으로 내면적 심리가 잘 나타난다. 여기에는 공포스러운, 기괴한 이미지, 종교적 이미지 등과 같은 이미지를 상징하는 메이크업과 히피, 펑크나 고스 메이크업 등의 관념을 상징하는 메이크업이 포함된다.

### (1) 이미지의 상징

이미지는 다른 말로 심상(心象)으로 감각에 의하여 획득한 현상이 마음속에서 재생된 것으로 하나의 현상을 보면 힘들이지 않고 떠오르는 매개체로 정리할 수 있겠다.<sup>121)</sup> 그러므로 이미지의 상징에서는 내면을 상징하는 이미지가 겉으로 잘 드러나 있다.

지방시(Givenchy)의 2008 S/S 컬렉션에서 보여진 메이크업은 실험적이고 비대중적인 이미지로 이마를 블랙으로 칠하고 눈주위에 가로선을 터치하여 어둡고 암울한 내면의 이미지를 표현하였다(그림 34). 새의 깃털로 머리를 감싸고 이마와 눈 주위를 블랙으로 칠한 <그림 35>는 어두운 야수의 이미지를 전달한다. 피부의 점이 그대로 드러나는 피부표현은 거칠게 보이고 언더라인 아래쪽은 입체적으로 장식하여 외형적 전통 이미지와는 다른 새로운 추상적 개념을 연출하였다. 준야 와타나베 (Junya Watanabe)의 2009 F/W 컬렉션에서는 얼굴을 흰색으로 표현하고 검은 그림자를 추가하여 암울한 이미지를 표현하였다. 입체적인 얼굴의 형태를 마치 2차원적인 캔버스처럼 그

---

120) 임석진 외, op. cit., p. 336.

121) 국립국어원 (1999), 표준국어대사전, 서울: 두산동아, p. 207.

립을 그리듯 표현 하였으며 무채색의 사용은 작가의 우울한 심상을 대변하는 듯하다(그림 36). 스모키한 그림자를 미간에서 시작하여 헤어라인까지 길게 연결하여 내면의 공허함과 허무주의의 깊은 심경을 이미지화 하였다(그림 37).

이미지의 상징에서는 부조화스럽고 기괴한 그로테스크적인 특징이나 반항적인 이미지가 보여지는 메이크업이 많이 나타났다(그림 38, 39). 그로테스크란 철저한 자기부정 또는 자학의 정신으로<sup>122)</sup> 현대에 와서는 애매모호하고 기이한 현상을 지칭하며 평범한 것에 무감각한 현대인들에게 시각적 충격을 유발한다.

## (2) 관념의 상징

관념의 상징에서는 내면적인 사상이나 관념이 상징적으로 표현되어진 것으로 관념의 상징이 보여지는 메이크업으로는 히피, 핑크, 고스 메이크업 등을 들 수 있다. 이러한 메이크업은 과거에 없던 엄격한 규율과 위계질서를 벗어나 새로운 시도, 반항과 불일치에 따른 사회적 개혁을 하고자 한다.

관념의 상징을 나타내는 메이크업에서는 세련됨과 고상함을 부정하며 기계적이고 우스꽝스럽게 과장하여 죽음, 어둠, 공포를 상징하는 기괴한 이미지의 고스 메이크업이 주로 나타났다(그림 40, 41, 42). 또한 반항적인 이미지를 보이는 히피나 핑크 메이크업은 기존의 아름다움을 부정하고 다른 스타일을 절충하며 충격과 놀라움, 혐오스러움을 불러일으킨다. 현대 메이크업에서는 반항적이고 가학적 이미지로 비정상적이고 공격적인 양상을 보여준다(그림 43, 44, 45).

---

122) 채금석 (2004), "현대 일본패션에 내재한 꾸밈 미학", 한국복식학회, 54(3), p. 114.

관념의 상징에서 나타난 메이크업은 히피 또는 핑크, 키치 메이크업의 특징이 보여지며, 보편적인 예술의 미적 개념을 확장시키며, 예술의 통속화와 저질화를 통해 이미지의 극대화를 드러내 보임으로써 충격적인 미의식을 접할 수 있다.

## 2) 은유성

은유는 하나의 의미체계를 기준으로 다른 의미체계를 설명하거나 명확하게 해줌으로써 작용한다. 하나의 의미체계는 구체적이고 잘 이해되는 반면, 또 다른 의미체계는 앞의 의미체계가 부여하는 의미 없이는 이해하기 어렵다. 그러므로 은유는 익숙하지 않은 것을 익숙하게, 낯선 세계를 인식가능하게 다시 기술하는 방법이다.<sup>123)</sup> 그러므로 은유성은 겉으로 표현되는 형태는 별도의 부연설명 없이는 이해되기 힘들며 내적인면과는 다른 형태로 나타난다. 현대에 들어와서 모방의 개념이 비유적인 표현으로 사회의 병폐나 부조리 등의 사회현상을 비판하여 경각심을 일깨우고자 한다. 메시지 전달의 표현방법으로는 대중적인 소재를 활용하여 팝아트적인 유머러스한 표현 등도 내면적 미메시스의 은유성을 나타낸다고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은유성을 감정, 사고 등을 전달하는 풍자 해학적인 은유와 메시지 전달을 목적으로 하는 메시지의 은유로 나누어 살펴보고자 한다.

### (1) 풍자 해학의 은유

풍자는 일반적으로 인간생활의 결함·악폐(惡弊)·불합리·우열(愚劣)·허위 등에 가해지는 기지 넘치는 비판적 또는 조소적(嘲笑的)인 발언을 의미하며<sup>124)</sup>, 풍자 해학의 은유는 내면의 심리상태가 우화적으로 표현되어 감정을

---

123) 최광진, op. cit., p. 156.

드러낸다.

<그림 46>은 과장된 눈썹과 입술, 처진 아이라인, 볼에 검은 큰 점 등 미인으로 표현되는 여러가지 특성을 한데 모아 인위적으로 크게 확대하여 해학적으로 표현하였다. <그림 47>은 눈썹을 지우고 그 위에 가늘고 길게 표현하고 입술 또한 과장되게 축소하여 표현함으로써 화려하고 엄숙한 왕관과 귀걸이의 이미지와는 대조적으로 유머러스한 모습으로 표현하고 있다. <그림 48>은 디즈니 만화의 캐릭터 미니마우스를 우화적으로 표현하였고, <그림 49>는 과장된 입술, 유아적 컬러의 사용으로 우스꽝스러운 분위기를 연출하여 유머러스한 이미지를 보여주었다. 물에서 영감을 얻어 눈물과 빗물 문양을 그려 넣어 만화같은 느낌을 표현한 <그림 50>은 유희성을 표현한 작품으로 현실을 벗어난 흥미의 세계, 감흥의 세계, 착각의 세계를 보여준다. 유희성 메이크업은 장난스러운 회화적 기법을 응용하여 얼굴의 조형요소를 무시함으로써 존재의 가벼움을 느끼게 하여 심각한 의미들이 사라진 재미거리를 준다.<sup>125)</sup> <그림 51>은 톱니형식의 눈썹과 점을 찍은듯한 만화적인 입술은 유아적 순수성과 즐거움을 표현하였다. 풍자 해학의 은유는 일상 규칙의 위반, 이질적 요소의 도입, 강조, 변형, 모순, 과장, 왜곡 등을 통해 보는 이로 하여금 놀라움과 쾌감, 우월감 등을 느끼게 하여 웃음을 자아내게 한다(그림 52, 53).

## (2) 메시지 전달의 은유

메시지는 의사소통 모델의 주된 개념이다. 메시지는 두 가지의 종류, 언어적(verbal) 메시지와 비언어적(nonverbal) 메시지로 나눌 수 있다.<sup>126)</sup>

메시지 전달의 은유는, 비언어적 메시지를 겉으로는 내면적 의도나 생각을

124) 동아원색세계대백과사전 (1984), 동아출판사, p. 102.

125) 이경은 (2007), 메이크업에 나타난 아방가르드 특성에 관한 연구, 성신여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pp. 164-165.

126) <http://ko.wikipedia.org/wiki/%EB%A9%94%EC%8B%9C%EC%A7%80> (위키백과 : 2014. 2. 11)

읽어내기 어려울 때, 그 표현을 기호화하거나 이미지화하여 메시지를 전달하는데 그 내면에 담긴 은유적 의미를 찾는 것이 중요하다.

<그림 54>는 NO라는 단어를 얼굴에 써 넣어 빠르게 변화하는 현대사회와 자아가 존중되기 보다는 번호로 인식되어지는 비인간적인 현실에 대한 메시지를 은유적으로 전달하고 있다. <그림 55>는 얼굴이 예술가를 위한 운동장이 되어 ‘쉬면서 즐겨라’라는 메시지를 전달하며,<sup>127)</sup> 급진적인 이미지를 표현하였다. <그림 56>은 얼굴을 천으로 감싸고 입술만 붉게 강조하여 얼굴이 가진 상징적인 의미를 최소화하였다. 눈과 귀, 코를 모두 막고 오직 입만이 보여지는데 이는 아무것도 인식할 수 없는 현실에 대한 무언의 발언을 은유적으로 표현한 것으로 해석된다. 또한 베르나르드 빌헬름 (Bernard Wilhelm)의 2009 F/W 컬렉션은 얼굴에 대담하게 자신의 생각을 반영하여 내적사고를 울고 있는 푸른 눈에 표현하고 있다. 푸른색이 가지는 색의 상징성은 차가움과 우울한, 슬픔 등으로 푸른 눈물은 비언어적인 요소이지만 많은 의미를 함축적으로 담고 있다(그림 57). 알렉산더 맥퀸(Alexander McQueen)은 실험적이고 창조적인 디자인으로 주목받은 패션계의 양광 테리블(Enfant terrible)<sup>\*</sup>로 2009년 F/W에 보여진 메이크업은 과장된 검붉은 입술에 콜라 캔, 랩이나 검은 테이프로 재활용된 쓰레기를 이용하여 환경오염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는 메시지의 전달을 목적으로 한다(그림 58).<sup>128)</sup> <그림 59>는 붉은 얼굴을 표현하여 자신을 감추고 싶은 내적 불안감을 은유적으로 전달하고 있고, <그림 60>은 헤어에 커다란 붉은 꽃을 장식하여 자아를 감추고 은폐하고자 하는 이미지를 은유적으로 표현하여 가장 중심이 되는 모델이 배경처럼 보인다.

127) IN BEAUTY, 2009 S/S. p. 98.

\*양광테리블(Enfant terrible) : 기성세대의 권위와 가치관에 정면 도전하는 이들을 일컫는 용어로서 프랑스어로 ‘무서운 아이들’이라는 뜻.

128) IN BEAUTY, 2009 F/W, p. 37.



<그림 34> Givenchy 2008 S/S  
([www.vogue.com.au](http://www.vogue.com.au))



<그림 35> Dupre Santa Barbara 2009 F/W  
(IN BEAUTY)



<그림 36> Junya Watanabe 2009 F/W  
(IN BEAUTY)



<그림 37> Hass Idriss 2009 F/W  
([www.firstview.com](http://www.firstview.com))



<그림 38> Jean Paul Gaultier 2010 S/S  
(www.style.com)



<그림 39> Vivienne Westwood Red Label 2014 S/S  
(www.vogue.co.uk)



<그림 40> Christian Dior 2003 F/W  
(www.style.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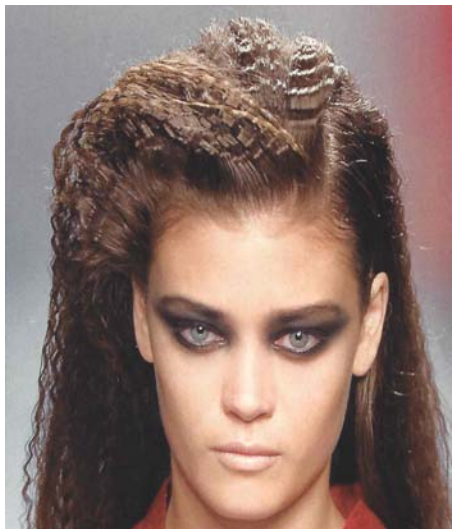
<그림 41> Christian Dior 2006 F/W  
(www.vogue.co.uk)



<그림 42> John Galliano 2007 F/W  
(www.style.com)



<그림 43> Gerlan Jeans 2010 S/S  
(IN BEAUTY)



<그림 44> Byblos 2010 S/S  
(IN BEAUTY)



<그림 45> Jean Charles De Castelbajac 2010 F/W  
(www.vogue.it)



<그림 46> John Galliano 2003 F/W  
(www.style.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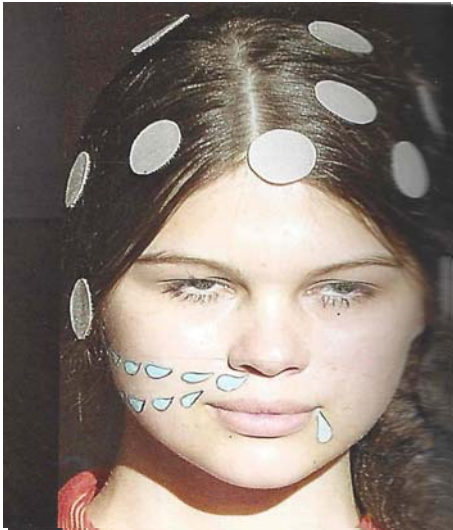
<그림 47> Christian Dior 2004 F/W  
(www.style.com)



<그림 48> Luella 2010 S/S  
(IN BEAUTY)



<그림 49> Emma Bell 2009 S/S  
(IN BEAUTY)



<그림 50> Mercibeaucoup 2009 S/S  
(IN BEAUTY)



<그림 51> Laura Lees 2009 S/S  
(IN BEAUTY)



<그림 52> Ashish 2009 F/W  
(www.popsugar.co.uk)



<그림 53> Vivienne Westwood Red Label 2013 F/W  
(www.vogue.co.uk)



<그림 54> Victor & Rolf 2008 F/W  
([www.vogue.co.uk](http://www.vogue.co.uk))



<그림 55> Levhon 2009 S/S  
(IN BEAUTY)



<그림 56> Maison Martin Margiela 2009 S/S  
([www.vogue.it](http://www.vogue.it))



<그림 57> Bernard Willhelm 2009 F/W  
(IN BEAUTY)



<그림 58> Alexander McQueen 2009 F/W  
([www.style.com](http://www.style.com))



<그림 59> Viktor & Rolf 2011 F/W  
([www.style.com](http://www.style.com))



<그림 60> Alexis Mabille 2012 S/S  
([www.style.com](http://www.style.com))

### 3. 복합적 미메시스

복합적 미메시스는 외형적 미메시스와 내면적 미메시스가 혼합되어 동시에 표현되는 것으로 현대사회의 미메시스 특징을 잘 나타내고 있다. 복합적 미메시스는 표현방법에 있어서도 형태가 왜곡되거나 이질적 소재의 사용으로 구분하기 모호한 경우가 일반적이다.

입체 조형물이나 이질적 소재 등을 사용한 혼합성과 추상적 표현이나 기하학적 표현, 과장되거나 축소된 왜곡된 표현으로 변형된 표현인 왜곡성으로 구분하고자 한다. 20세기 이후 등장한 복합적 미메시스는 현실의 재인식을 통해 원본을 재해석하고 현실보다 더 현실적인 복제가 가능하며 가상현실이 등장한다.

#### 1) 혼합성

혼합성은 한가지의 특성으로 설명 할 수 없으며 여러 가지 복합적인 특성이 함께 공유되어 진다. <표 3>에서 정리한 유사성, 혼합성, 변형성, 재인식, 상징성, 복제성의 특징으로 설명되어 질 수 있다.

혼합성은 입체적인 조형물이 응용되거나 오브제의 사용 등으로 형태가 혼합되어 다양한 양식이 절충되어 나타난다. 메이크업에서는 종이, 모래, 스톤, 스팅글, 깃털 등과 같은 이질적 소재가 혼합되어진 상태를 범주에 포함하여 설명하고자 한다.

#### (1) 형태에 의한 혼합

형태에 의한 혼합에서는 조형물이나 오브제의 사용으로 형태를 변형시킨 표현이 많이 보여지고 있다.

<그림 61>은 눈을 블랙의 라이너로 강조하고 깃털을 오브제로 사용하여  
 눈의 형태를 혼합하여 표현하였다. 외형적으로는 새가 연상되어지지만 원시  
 적인 시간의 재현과 검은 눈에서 은유적 상징성이 느껴진다. <그림 62>는  
 눈썹과 눈을 과장하여 표현하고 그물망을 얼굴에 씌워 형태를 변형하였다.  
 시간의 재현과 공간의 재현이 동시에 일어났으며 혼합적 이중성을 가지는  
 하이브리드적 성향이 보여진다. 눈에 비치는 소재의 천을 덮고 속눈썹과 검  
 은 점 장식을 천위에 부착함으로써, 공간에 대한 현실을 재인식하여 표현한  
 작품으로 눈의 본연의 형질을 보여야한다는 개념을 변형, 모순화 하였다(그  
 립 63). <그림 64> 또한 피부를 바탕 천처럼 이마와 볼에 아르누보적인 식  
 물 넝쿨의 문양을 검은 색 레이스를 사용하여 형태를 강조하였다. <그림  
 65>는 금속 마스크를 한쪽 얼굴에 씌우고 꽃과 나비모양의 왕관으로 기괴  
 하고 SF적인 느낌을 주었고 <그림 66>은 곤충에서 영감을 얻어 얇은 그물  
 망으로 얼굴을 덮어 얼굴이 가진 본연의 상징적인 의미를 부정하고 형태를  
 변형 시켰다. 장 폴 고티에(Jean Paul Gaultier)의 2007 F/W 컬렉션에서는  
 아치형의 눈썹, 진한 아이 메이크업과 오렌지색 입술로 메이크업을 표현하  
 고 구멍 난 검은 그물망을 얼굴에 덮어 관능미를 더했다(그림 67). 지저분한  
 머리카락, 검은 새도우와 꼬인 체인으로 엮힌 가죽 헤드밴드로 형태를 변형  
 하여 자유를 박탈당한 구속된 내면적 자아를 외형적 체인을 통해 표현하였  
 다(그림 68). 폼 데 가르송(Comme des garçons)의 2010 F/W 컬렉션에서는  
 가상현실인 분홍 동화의 나라를 테마로 기이한 형태의 외형적 소재와 내면  
 적 소재인 흥미로움을 표현하기위해 메이크업은 솜사탕 같은 붉은 머리와  
 붉은 장식으로 포인트를 주고 비치는 얇은 원단으로 얼굴 전체를 감싸 몽환  
 적인 소녀를 표현하였다(그림 69).

## (2) 이질적 소재의 혼합

이질적 소재의 혼합은 기존의 메이크업 소재 이외에 다양한 질감의 색다른 소재를 메이크업에 활용하여 풍부한 표현의 효과를 제시하며 조형성을 강조하여 창의적으로 나타난다.

피부를 창백하게 표현하고 눈썹의 선을 무시하여 사각형의 홀을 눈썹까지 잡아 깃털로 장식했다(그림 70). 이 작품을 분석한다면 작품이 가진 의미가 너무 다양하여 한가지로 설명되지 않는다. 이처럼 복합적 미메시스에서 보여지는 이질적 소재의 혼합은 다양한 특성들이 한 작품 안에 공존한다. <그림 71>은 금색의 종이와 스팅글을 붙여 다양한 질감의 소재를 사용하여 표현하였으며 시대의 재현으로는 이집트를 연상할 수 있다. <그림 72>는 새 깃털 문양의 종이를 얼굴에 붙여 새 깃털의 질감을 형상화 시켰다. 가상현실 또는 사람이 아닌 돌연변이를 연상시킨다. <그림 73>은 머리위의 장식과 눈 주위에 새의 깃털이 연상되는 패턴을 넣어 새의 모습을 형상화 하였다. 플라스틱 소재로 새와는 전혀 다른 이질적인 소재를 사용하였지만 반복적 표현으로 새의 깃털 질감이 표현되었다. <그림 74>는 이마를 도드라지게 넓고 크게 강조하고 그래픽적인 눈썹을 붙여 3차원적인 얼굴을 2차원적인 평면처럼 표현하였고, <그림 75>는 눈가에 반짝이 가루를 뿌려 모래를 흩뿌린 듯한 질감의 표현을 연출하여 전통적인 미의식을 왜곡하고 추상적으로 표현하였다.

## 2) 왜곡성

왜곡은 예술에서 원형과 그 표상 간의 의도적이거나 비의도적으로 나타나는 차이를 가리키는 용어로 사실과 다르게 해석하거나 그릇되게 표현되어지

는 것이다. 왜곡이 의도적으로 사용된 것은 20세기에 들어와서부터이며, 왜곡이 감정이입의 기법에 의해 정당화되기도 했으며, 때로는 개념적 모호성으로부터 왜곡의 근거를 찾을 수도 있다.<sup>129)</sup>

왜곡성은 과장, 축소, 삭제하여 왜곡하여 변형되어진 표현을 의미한다. 여기에는 형태의 과장, 축소, 삭제 등의 형태의 왜곡과 질감의 왜곡을 포함한다.

### (1) 형태에 의한 왜곡

형태에 의한 왜곡은 부분적으로 형태를 변형하여 왜곡시키거나 내적, 외적 변형을 통해 원본을 재해석한다.

<그림 76>은 비비드한 컬러를 사용하여 눈의 영역을 과장하여 표현하고 속눈썹을 인위적으로 왜곡하여 눈이 아니라 마치 꽃이나 나비의 형태로 보여지는 시각적 왜곡성을 보여준다. 형태에 의한 왜곡에서는 형태의 왜곡과 시간의 재현이 동시에 보여지는 경우가 많이 나타났다. 크리스찬 디올(Christian Dior)의 2005년 F/W 컬렉션에서는 기본눈썹을 지우고 활모양의 크고 긴 눈썹을 이마까지 크게 왜곡하여 표현하여 형태의 왜곡과 1920년대의 시간의 재현이 동시에 보여진다(그림 77). <그림 78>은 얼굴에 비치는 천을 씌워 얼굴의 형태를 왜곡하고 이를 통해 알듯 말듯 한 내적 심상의 모호성을 표현하였다. 깨끗한 피부 표현과 과장된 이목구비는 형태를 왜곡하여 사실과 다르게 표현하였다(그림 79). 펄 화이트 컬러를 눈 주위에 바르고 블랙라이너로 눈썹과 아리라인의 선보다 바깥으로 과장되게 그려 자춧빛 입술과 조화롭게 표현하고 보라색의 헤어색상이 작품을 명확하게 설명할 수 없게 만든다. <그림 80>은 눈에 흰색의 사각형을 그려넣고 회색선을 얼굴

---

129) 세계미술용어사전 (1996), 서울: 월간미술. p. 295.

그러 형태를 왜곡하였다. 대칭적인 구도가 미래적인 양식을 느끼게 하지만 각진 머리모양 속으로 머리카락을 쓸어 넣어 아마존 우림지역에서 영감을 얻은 패션의 혼용을 가져왔다.<sup>130)</sup> <그림 81>은 눈에 아이새도우와 동일한 금속 시트를 붙여 눈을 과장되어 보이도록 왜곡하여 강한 내적 자아의 이미지를 표현하였다. <그림 82>는 눈 주위의 형태를 왜곡하여 입술과 같은 색으로 다이아몬드 모양의 그림자를 주어 박쥐의 날개를 표현하여, 보라색이 갖는 신비하고 귀족적인 이미지와 상반되는 느낌을 표현하였다. 알렉산더 맥퀸(Alexander McQueen)의 2010년 S/S 컬렉션에서는 더마왁스나 실리콘을 사용하여 얼굴의 골격을 변형한 특수분장과 외계인의 모습을 연상시키는 미래의 메이크업을 연출하였다. 머리에 뿔을 만들어 형태를 왜곡하였으며 시간의 재현성이 보여진다(그림 83). 보라와 녹색을 매치하여 새도우를 표현하고 검은색의 고리모양을 눈밑에 왜곡된 형태로 그려 강한듯 하면서도 부드러운 여성성을 표현하였다(그림 84). <그림 85>는 물고기의 지느러미의 모양으로 물고기의 형태를 얼굴에 왜곡하여 표현하였고, 동시에 사람 얼굴에 물고기의 우스꽝스러운 형태를 네온 빛의 모호한 컬러를 사용하여 표현함으로써 풍자 해학적 은유성이 보여진다. <그림 86>은 레고를 얼굴에 마스크의 형태로 씌워 얼굴의 형태를 왜곡하고 동시에 팝아트의 은유성이 보여진다.

## (2) 질감의 왜곡

질감의 왜곡은 다양한 소재를 활용하여 과장되고 왜곡되어진 표현이다. 질감의 왜곡에서는 다양한 모양과 컬러의 필름지나 종이를 얼굴의 일부분에 붙여 강조하거나, 강조된 부분 이외의 다른 부분의 메이크업을 절제하여 무한한 가능성을 열어주기도 한다(그림 87, 88). <그림 89>는 아랫입술에 금속성의

130) IN BEAUTY, 2009 F/W, p. 86.

소재를 붙여 표현하여 질감을 왜곡하였고, 입술만을 강조함으로써 말하고자 하는 무언의 메시지가 느껴져 은유성이 보여진다.

질감의 왜곡에서는 형태에 의한 왜곡과 마찬가지로 질감의 왜곡과 시간의 재현이 동시에 보여지는 경우가 많이 나타났는데, 눈두덩이에서 눈썹까지 연결하여 더마왁스를 붙이고 무채색상의 그라데이션으로 눈주위를 과장하여 질감을 왜곡하여 자연스런 인간의 모습이 아닌 인위적인 이미지가 느껴지며(그림 90), 질감을 강조한 소재를 눈 주변에 사용하여 질감을 그라데이션하여 표현하였고, 붉은 컬러의 퍼지는 듯한 형태는 불안한 내적자아의 모습을 나타내고 있다. 기이한 헤어스타일과 메이크업에서 시간의 재현성과 해학성이 함께 보여진다(그림 91). <그림 92>는 눈을 과장하여 표현하고 깃털, 글리터, 스톤 등의 소재를 이용하여 변화된 질감을 표현하였다. <그림 93>은 미래주의적 표현을 위해 반짝이는 차가운 실버 스킨톤과 컬러풀한 네온 헤드피스를 사용하여 기계적인 사이보그가 연상된다. 여기서는 시간의 재현과 질감의 왜곡이 동시에 보여진다. <그림 94>는 삼각형의 종이를 흑과 백의 투톤의 색조로 눈의 바깥쪽에 붙여 속눈썹에 이질적인 소재인 종이를 사용하여 삼차원적으로 보이게 하였으며, <그림 95>는 솜털을 눈가에 과도하게 사용하여 질감을 왜곡하여 표현하였다. <그림 96>은 망사와 스톤을 이용하여 얼굴의 형태와 질감을 왜곡하여 표현하고 마치 마스크를 쓴 것같이 얼굴을 가림으로써 기괴한 이미지를 상징한다.



<그림 61> John Galliano 2002 F/W  
([www.stylebistro.com](http://www.stylebistro.com))



<그림 62> Christian Dior 2006 F/W  
([www.style.com](http://www.style.com))



<그림 63> Chanel 2007 S/S  
([www.style.com](http://www.style.com))



<그림 64> Jean Paul Gaultier 2007 F/W  
([www.style.com](http://www.style.com))



<그림 65> Andres Sarda 2009 S/S  
(IN BEAUTY)



<그림 66> Alexander McQueen 2009 S/S  
(www.style.com)



<그림 67> Jean Paul Gaultier 2009 F/W  
(www.vogue.co.uk)



<그림 68> Ann Demeulemeester 2010 S/S  
(IN BEAUTY)



<그림 69> Comme des garçons 2010 F/W  
(IN BEAUTY)



<그림 70> Yohji Yamamoto 2006 S/S  
(www.style.com)



<그림 71> Christian Dior 2008 S/S  
(www.vogue.co.uk)



<그림 72> Alexander McQueen 2008 S/S  
(www.style.com)



<그림 73> Kamishima Chinami 2009 S/S  
(IN BEAUTY)



<그림 74> Natasha Stolle 2009 F/W  
(IN BEAUTY)



<그림 75> Threasfour 2010 S/S  
([www.stylebistro.com](http://www.stylebistro.com))



<그림 76> Christian Dior 2003 F/W  
([www.vogue.co.uk](http://www.vogue.co.uk))



<그림 77> Christian Dior 2005 F/W  
(www.style.com)



<그림 78> Christian Dior 2006 S/S  
(www.style.com)



<그림 79> Jean Paul Gaultier 2009 S/S  
(IN BEAUTY)



<그림 80> Manish Arora 2009 F/W  
(www.vogue.co.uk)



<그림 81> Mary Katrantzou 2009 F/W  
(IN BEAUTY)



<그림 82> Nico D 2009 F/W  
(IN BEAUTY)



<그림 83> Alexander McQueen 2010 S/S  
(www.style.com)



<그림 84> Mary Katrantzou 2010 S/S  
(www.fashionactive.com)



<그림 85> Charlie Le Mindu 2014 S/S  
([www.style.com](http://www.style.com))



<그림 86> Nadia + Zehra 2014 F/W  
([www.vogue.co.uk](http://www.vogue.co.uk))



<그림 87> John Galliano 2007 S/S  
([www.vogue.com.au](http://www.vogue.com.au))



<그림 88> Givenchy 2007 S/S  
([www.style.com](http://www.style.com))



<그림 89> Christian Dior 2008 S/S  
(www.style.com)



<그림 90> Fabia Bercsek 2009 S/S  
(IN BEAUTY)



<그림 91> Hass Idriss 2009 F/W  
(www.firstview.com)



<그림 92> Barbie 2009 F/W  
(www.fabsugar.com)



<그림 93> Manish Arora 2010 S/S  
(IN BEAUTY)



<그림 94> Christian Dior 2013 S/S  
(www.style.com)



<그림 95> Gareth Pugh 2014 S/S  
(www.style.com)



<그림 96> Givenchy 2014 S/S  
(www.vogue.co.uk)

이상과 같이 2000년대 이후 패션컬렉션의 메이크업에 표현된 미메시스의 특징을 표로 정리하면 <표 4>와 같다.

<표 4> 패션컬렉션 메이크업에 표현된 미메시스

구분		개념	이미지 표현
외형적 미메시스	동일성	형태에 의한 동일	본래의 형태에 충실한 있는 그대로의 표현 · 네추럴 메이크업
		연상에 의한 동일	패러디하여 대상을 연상 가능하게 표현 · 빼어로, 파멜라 앤더슨, 프리다 칼로
	재현성	시간의 재현	시대적 특징을 재해석한 표현 · 중세, 이집트, 트위기, 고대전사, 은하계, 미래주의, 1980년대, 로코코
		장소의 재현	나라별, 지역적 특성이 보여지는 유사한 표현 · 가부끼, 경극, 오리엔탈, 아프리카, 러시아 인형, 게이샤
내면적 미메시스	상징성	이미지의 상징	내면의 이미지 형상화 · 어두운, 종교적, 외계인, 기괴한, 공포스러운 이미지
		관념의 상징	내적 사상이나 관념의 상징적 표현 · 히피, 펑크, 고스
	은유성	풍자 해학의 은유	내적 심리의 우화적 표현 · 유머러스, 유아적, 풍자적, 팝아트
		메시지 전달의 은유	메시지의 전달 · 내적 사고, 환경 오염의 경각심
복합적 미메시스	혼합성	형태에 의한 혼합	형태와 질감의 절충된 표현 · 조형물의 조합 & 이질적 소재의 혼합 · 깃털, 그물망, 마스크, 왕관, 체인
		이질적 소재의 혼합	
	왜곡성	형태에 의한 왜곡	형태와 질감의 변형된 표현 · 단순화, 도식화, 과장, 축소, 제거, 추상화, 형태의 파괴, 기술적 왜곡
		질감의 왜곡	

## IV. 작품제작

### 1. 제작 의도 및 제작방법

현대 사회는 예술적 영역 안에서 수많은 이미지들이 모방과 재현을 거듭하면서 변형되고 새롭게 창조되어지고 있다. 오늘날 미메시스는 단순한 모방이 아닌 창조적 재현으로 이해되어 긍정적인 의미로 받아들여지고 외적 현상과 내적 반영 그리고 이들의 혼재가 나타나 좀 더 다양하고 복잡한 의미를 지닌다.

작품은 2000년대 이후 패션컬렉션에 보여진 메이크업을 조형적 분석을 통해 재구성하여 그 미적 가치를 작품제작에 표현하고자 시도하였다. 이미지 표현에 있어 신체의 자연스런 아름다움을 보여 줄 수 있는 네추럴 메이크업, 시대적 특징을 반영한 레트로 메이크업, 내적 심리나 사상을 표현한 상징적 메이크업, 형태나 질감 등을 표현한 메이크업을 작품에 부분적으로 적용하여 단순한 모방이 아닌 창조적 재현으로 바디아트 작품을 연출하고자 하였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미메시스라는 예술적 현상을 시각적 형태, 색채, 문양, 소재를 통하여 미메시스의 특성을 반영한 바디아트 작품을 디자인 하였다. 바디아트는 몸을 매개로 하는 조형예술로 미메시스를 외형적, 내면적, 복합적으로 분류하고, 그 특징인 동일성, 재현성, 상징성, 은유성, 혼합성, 왜곡성의 요소를 신체에 표현하여 미메시스의 의미를 강조하고 새로운 바디아트 작품의 가능성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의 작품은 얼굴에 한정하여 표현하는 페이스 페인팅(face painting), 신체의 부분으로 얼굴에서 허리까지를 범위로 한 상반신 바디 페인팅

(upper-body painting), 몸의 전체를 범위로 한 바디 페인팅(body painting)으로 구분하여 주제와 색채를 사용할 때 미메시스의 표현 특성을 시각화하여 작품을 제작하였다.

작품의 디자인은 연구 분석한 미메시스의 개념과 특성에서 도출한 요소들을 바탕으로 하여 미메시스의 표현방식을 중심으로 외형적 미메시스 4점, 내면적 미메시스 5점, 복합적 미메시스 6점으로 총 15점의 바디아트 작품을 계획하였으며, 작품마다 디자인 이미지를 통해 작품의도와 작품의 미메시스 표현양식과 재료, 컬러 등을 설명하였다.

작품에 사용된 재료는 아쿠아 컬러(aqua color), 라이닝 컬러(lining color)를 기본으로 디자인 의도에 맞게 한지, 기름종이, 골판지, 소포지, 색모래, 톱밥, 밀가루, 털실, OHP필름 등의 다양한 소재를 사용하였다.

<표 5>의 디자인 계획에서 알 수 있듯이, 작품의 표현 유형과 미메시스 분류에 따른 표현 특성, 디자인 특징을 함께 정리하여 주제가 지닌 상징적 의미를 시각화하여 전개하면서 제작 방법을 설명하였다.

<표 5> 디자인 계획

작품명	작품 I	작품 II	작품 III	작품 IV	작품 V	작품 VI	작품 VII	작품 VIII	작품 IX	작품 X	작품 XI	작품 XII	작품 XIII	작품 XIV	작품 XV
표현유형	페이스 페인팅					상반신 바디페인팅					전신 바디페인팅				
분류	외형적 미메시스	외형적 미메시스	내면적 미메시스	복합적 미메시스	복합적 미메시스	외형적 미메시스	내면적 미메시스	내면적 미메시스	복합적 미메시스	복합적 미메시스	외형적 미메시스	내면적 미메시스	내면적 미메시스	복합적 미메시스	복합적 미메시스
미메시스 표현특성	동일성	재현성	은유성	혼합성	왜곡성	재현성	상징성	은유성	혼합성	왜곡성	동일성	상징성	은유성	혼합성	왜곡성
재료	라이닝 컬러 아이새도우	라이닝 컬러 아쿠아 컬러	라이닝 컬러 석고가루	라이닝 컬러 ohp 필름	라이닝 컬러 아쿠아 컬러	라이닝 컬러 아쿠아 컬러	아쿠아 컬러 라인 테잎	아쿠아 컬러 밀가루 톱밥 색모래	아쿠아 컬러 털실	라이닝 컬러 골드 박스	아쿠아 컬러 한글 패턴의 한지	라이닝 컬러 아쿠아 컬러	아쿠아 컬러	아쿠아 컬러 기름종이	아쿠아 컬러 소포지
컬러															
디자인 특징	몬드리안 작품의 패턴을 응용하여 표현	아프리카 부족의 얼굴 장식의 패턴의 재현	무분별한 성형의 경각심의 메시지 전달	얼굴의 골격을 강조한 중첩효과	눈을 감은 상태에서 뜨고 있는 모습의 왜곡된 표현	이집트 상형문자의 형태를 응용	종교적 이미지를 상징하는 십자가를 표현	환경 오염에 관한 경각심의 메시지 전달	이질적 소재의 선의 중첩을 통한 혼합	도형을 응용한 인체의 왜곡	한글 패턴의 형태에 의한 동일성 표현	문장 부호를 응용한 이미지의 상징	팝아트 작품의 은유적 표현	아르누보의 곡선과 입체적인 꽃의 혼합	인체 골격의 왜곡된 표현
디자인 이미지															

## 2. 작품 제작

### 1) 작품 I - 연상의 동일성

주제 : 동일성

표현 유형 : 페이스 페인팅

작품 I 은 외형적 미메시스의 특징인 동일성을 중심으로 몬드리안의 작품 「빨강, 파랑, 노랑의 구성」의 패턴을 모티브로 하여 연상에 의한 동일성의 이미지를 얼굴에 표현하였다(그림 97). 균형을 중요시하여 단순한 기하학적 도형을 이용한 몬드리안의 패턴을 얼굴의 입체적인 곡선의 형태를 따라 면을 분할하여 퍼즐과 같은 형태로 구성하였다. 몬드리안의 작품은 사물을 단순화고 가장 명확한 수평선과 수직선으로 표현하지만 추상주의의 자유로운 비대칭 구도로 본 작품도 몬드리안의 패턴을 동일하게 구성하여 표현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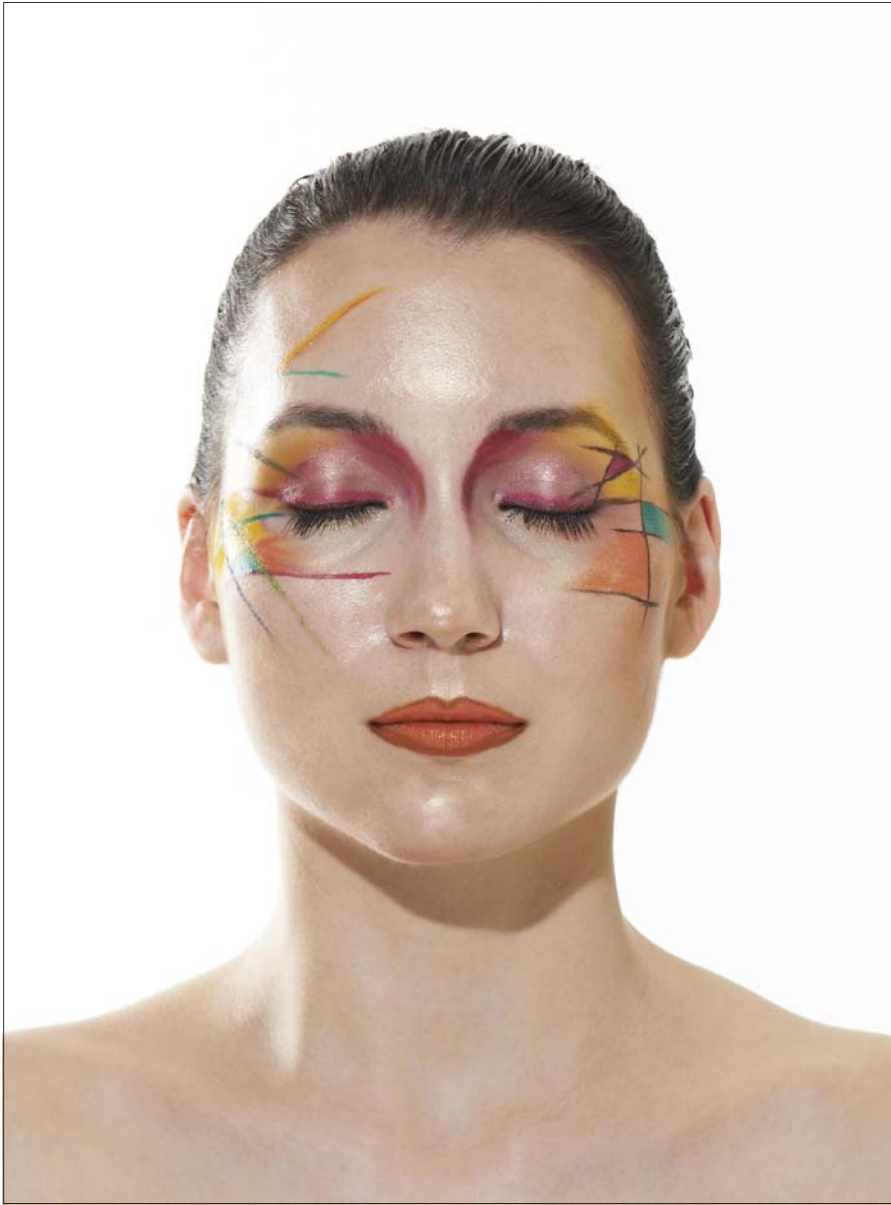
몬드리안의 작품을 모티브로 미메시스의 동일성의 특성을 표현한 작품 I 의 제작 과정은 다음과 같다.

- ① 펠 베이스로 피부를 정돈하고 리퀴드 화운데이션을 화운데이션 브러쉬로 바른다.
- ② 얼굴의 입체적인 형태에 따른 곡선을 고려하여 몬드리안 패턴의 면을 분할하고 이미지를 재구성 한다.
- ③ 옐로우, 오렌지, 그린 , 핑크의 라이닝 컬러와 아이섀도우를 사용하여 분할된 면에 그라데이션 해주어 몬드리안 패턴의 이미지를 표현한다.

작품 I 의 디자인 이미지와 구성 내용은 <표 6>과 같다.

<표 6> 작품 I 의 디자인 이미지와 구성내용

디자인 이미지	
	
구성	내용
미메시스 표현양식	동일성
재료	라이닝 컬러, 아이섀도우
컬러	



<그림 97> 작품 I

## 2) 작품 II - 장소의 재현성

주제 : 재현성

표현 유형 : 페이스 페인팅

작품 II 는 외형적 미메시스의 특성 중 재현성을 중심으로 아프리카 원시 부족의 문양과 색상을 모티브로 하여 장소의 재현성 이미지를 얼굴에 표현하였다(그림 98).

신체 보호, 장식, 미화, 위장을 목적으로 한 상흔 등의 패턴을 얼굴의 골격의 흐름에 따라 다양한 컬러의 점 형태로 표현하여 아프리카의 장소를 재현하여 표현하였다.

아프리카 원시부족의 패턴을 모티브로 미메시스의 재현성 특성을 표현한 작품 II 의 제작 과정은 다음과 같다.

① 브라운 컬러의 리퀴드 화운데이션과 골드 브라운 펄 파우더를 오일과 혼합하여 피부를 표현한다.

② 블랙 아쿠아 컬러로 코의 골격을 표현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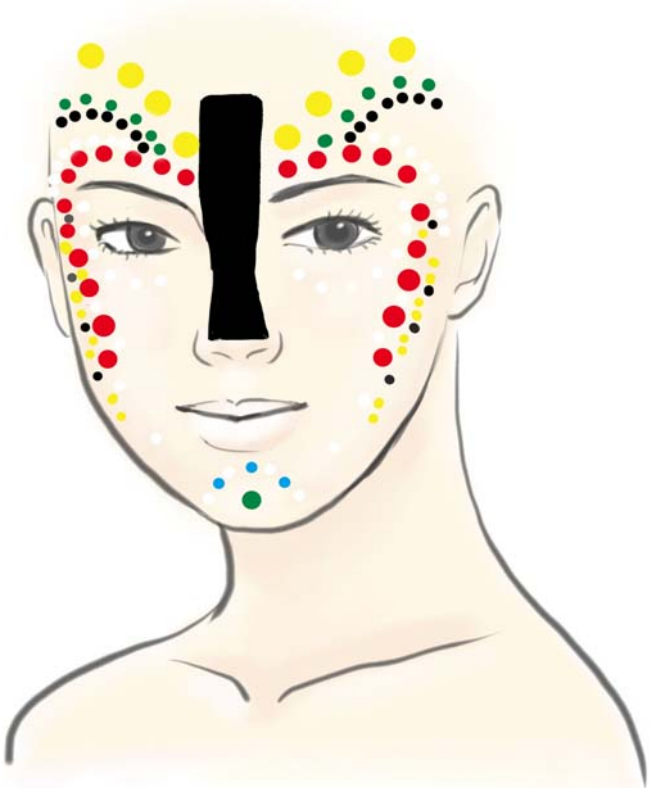

③ 얼굴의 골격을 입어 좌우 대칭으로 레드, 옐로우, 그린, 블랙, 화이트의 점을 표현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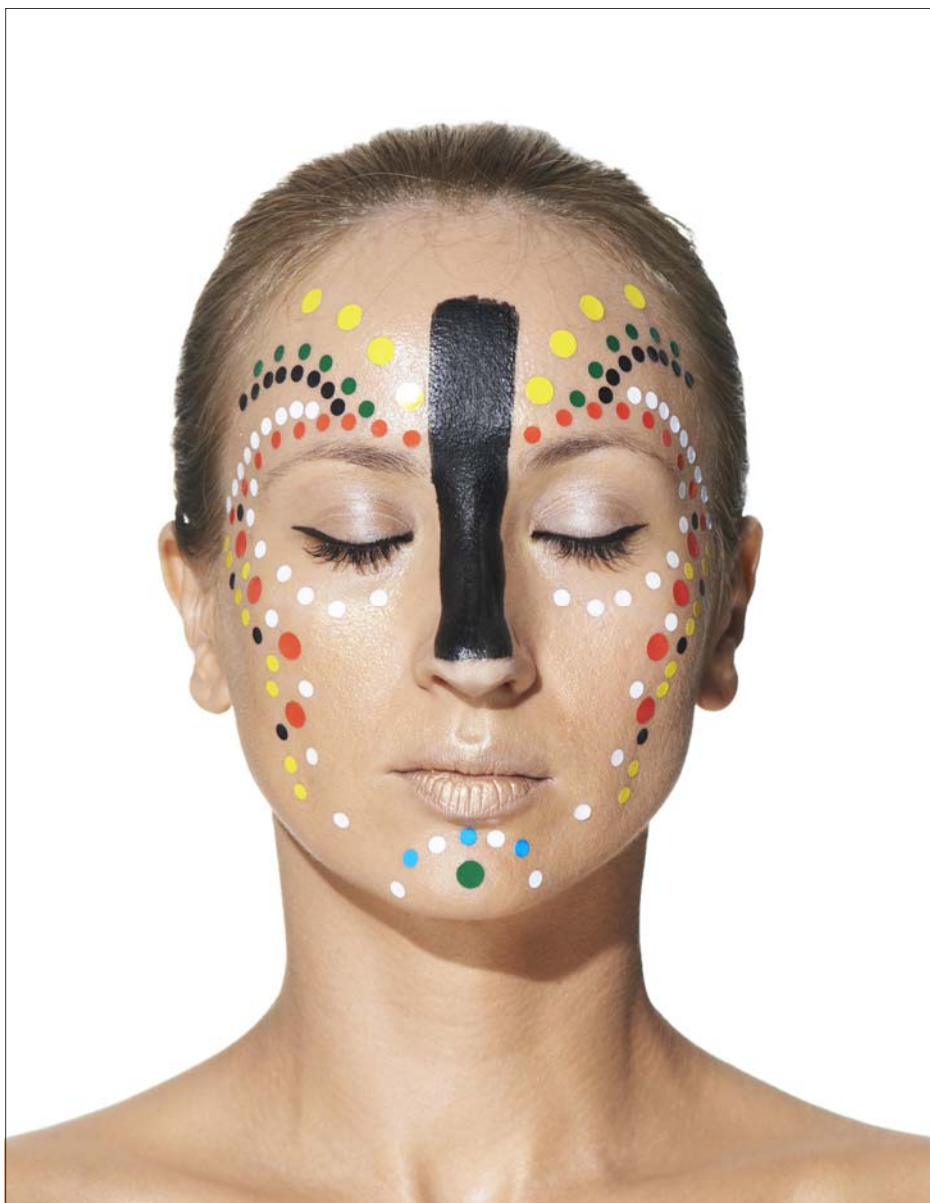
④ 펄 화이트로 아이섀도우를 표현하고 블랙 리퀴드 아이라이너로 아이라인을 그려 넣는다.

⑤ 입술은 골드펄 파우더와 베이지 라이닝 컬러를 혼합하여 표현한다.

작품 II 의 디자인 이미지와 구성 내용은 <표 7>과 같다.

<표 7> 작품 II 의 디자인 이미지와 구성내용

디자인 이미지	
	
구성	내용
미메시스 표현양식	재현성
재료	라이닝 컬러, 아쿠아 컬러, 펄 파우더, 아이섀도우
컬러	



<그림 98> 작품 II

### 3) 작품 III - 메시지의 은유성

주제 : 은유성

표현 유형 : 페이스 페인팅

작품 III 은 내면적 미메시스의 은유성 특성을 중심으로 현대 사회에 무분별하게 만연되어 있는 성형에 대한 경각심을 전달하고자 메시지 전달의 은유성을 얼굴에 표현한 작품이다(그림 99).


무분별한 성형수술에 대한 부작용과 그에 따른 폐해에 대한 메시지 전달을 위해 눈 주위를 망가진 형태로 표현하고 피부에는 석고를 부분적으로 입혀 균열되게 표현하였다.

성형에 대한 경각심의 메시지 전달을 모티브로 미메시스의 은유성 특성을 표현한 작품 III 의 제작 과정은 다음과 같다.

- ① 화이트 화운데이션과 화이트 펄 베이스를 혼합하여 피부를 표현한다.
- ② 블랙과 화이트 라이닝 컬러로 눈가의 번짐을 표현한다.
- ③ 얼굴 한쪽 면에 석고가루를 물에 섞어 바른 후 건조시켜 부분적으로 균열을 표현한다.
- ④ 입술은 블랙 라이닝 컬러를 사용하여 스트레이트 형으로 라인을 잡고 베이지 컬러의 립스틱으로 그라데이션 해준다.

작품 III 의 디자인 이미지와 구성 내용은 <표 8>과 같다.

<표 8> 작품 Ⅲ 의 디자인 이미지와 구성내용

디자인 이미지	
	
구성	내용
미메시스 표현양식	은유성
재료	라이닝 컬러, 펄 파우더, 아이섀도우, 석고가루
컬러	<div style="display: flex; justify-content: space-between; width: 100%;"> <div style="width: 45%; background-color: #ffffff; height: 20px;"></div> <div style="width: 45%; background-color: #000000; height: 20px;"></div> </div>



<그림 99> 작품 III

#### 4) 작품 IV - 형태의 혼합성

주제 : 혼합성

표현 유형 : 페이스 페인팅

작품 IV 는 복합적 미메시스의 혼합성 특성을 중심으로 얼굴의 골격을 모티브로 하여 형태의 혼합성 이미지를 얼굴에 표현하였다(그림 100).


메이크업은 얼굴의 골격을 파악하여 입체감을 부여하는 작업이므로 골격의 올바른 파악이 중요하겠다. 그러므로 본 작품에서는 얼굴의 눈썹, 눈, 광대, 입술, 턱의 윤곽과 골격의 흐름을 고려하여 OHP필름에 골격의 위치를 표시하여 얼굴 위에 중첩시켜 위치를 강조함으로써 형태에 의한 혼합을 표현하였다.

얼굴의 골격을 모티브로 미메시스의 혼합성 특성을 표현한 작품 IV 의 제작 과정은 다음과 같다.

- ① 네추럴 메이크업으로 얼굴을 표현한다.
- ② OHP필름에 눈썹, 눈, 광대, 입술, 턱의 위치를 파악하여 블랙컬러의 매직으로 표시한다.
- ③ 얼굴 위에 OHP필름을 골격의 위치에 맞게 중첩시켜 윤곽을 나타낸다.

작품 IV 의 디자인 이미지와 구성 내용은 <표 9>와 같다.

<표 9> 작품 IV 의 디자인 이미지와 구성내용

디자인 이미지	
	
구성	내용
미메시스 표현양식	혼합성
재료	라이닝 컬러, 아쿠아 컬러, 펄 파우더, 아이섀도우
컬러	



<그림 100> 작품 IV

## 5) 작품 V - 형태의 왜곡성

주제 : 왜곡성

표현 유형 : 페이스 페인팅

작품 V 는 복합적 미메시스의 특성인 왜곡성을 중심으로 눈의 형태를 왜곡하여 표현하였다(그림 101, 102).



본 작품은 마치 눈을 뜨고 있는 듯 보이지만 실상은 눈을 감은 상태에서 그 위에 뜬 눈을 표현함으로써 형태를 왜곡하였고, 이마, 볼, 턱, 목의 입체적 선을 왜곡시켜 강조하여 표현하였다.

눈의 형태를 왜곡하여 미메시스의 왜곡성의 특성을 표현한 작품 V 의 제작 과정은 다음과 같다.

- ① 화이트 아쿠아 컬러로 베이스를 표현한다.
- ② 레드, 오렌지의 라이닝 컬러로 선을 분할하여 채색한다.
- ③ 눈을 감은 상태에서 눈두덩이에 눈의 형태를 그려 넣는다.
- ④ 블랙 라이닝 컬러로 분할된 선을 강조하고 눈썹, 눈동자의 윤곽을 잡아준다.
- ⑤ 입술은 오렌지 라이닝 컬러로 표현한다.

작품 V 의 디자인 이미지와 구성 내용은 <표 10>과 같다.

<표 10> 작품 V 의 디자인 이미지와 구성내용

디자인 이미지	
	
구성	내용
미메시스 표현양식	왜곡성
재료	라이닝 컬러, 아쿠아 컬러
컬러	



<그림 101> 작품 V - ( i )



<그림 102> 작품 V - (ii)

## 6) 작품 VI - 시간의 재현성

주제 : 재현성

표현 유형 : 바디 페인팅 (상반신)

작품 VI 은 외형적 미메시스의 재현성 특성을 중심으로 이집트의 상형문자를 모티브로 하여 시간의 재현성 이미지를 상반신에 표현하였다(그림 103, 104).

이집트 상형문자는 그리스어로 ‘성스러운 기록’이라는 뜻으로 이에 대한 의미를 밝히려는 연구는 현재까지도 꾸준히 이어오고 있다.<sup>131)</sup> 역사적으로 가치 있는 이집트 상형문자의 패턴을 상반신에 응용하여 인체의 곡선을 고려하여 디자인함으로써 과거가 아닌 현재의 이미지로 재현하여 표현하였다.

이집트의 상형문자의 패턴을 모티브로 미메시스의 재현성 특성을 표현한 작품 VI 의 제작 과정은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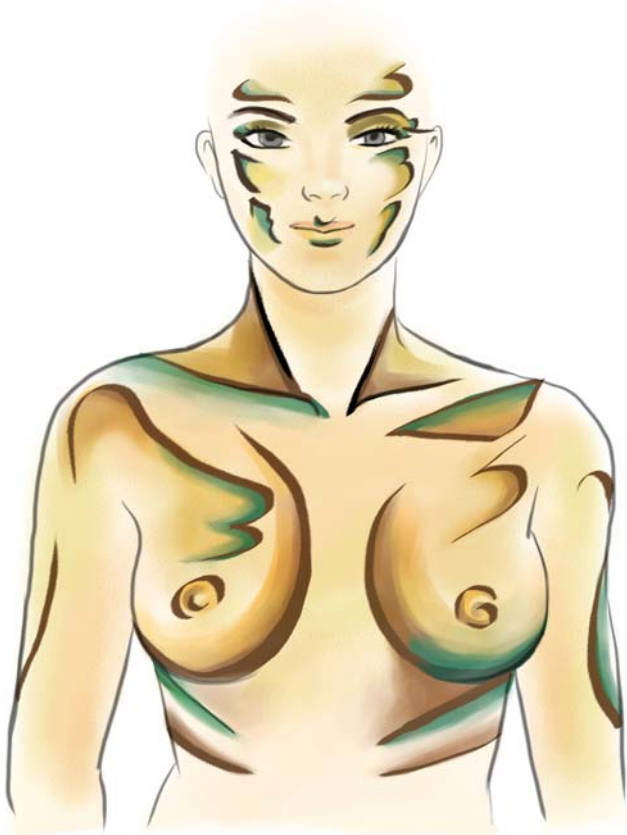

- ① 브라운 컬러의 리퀴드 화운데이션과 골드 브라운 펄 파우더를 오일과 혼합하여 피부를 표현한다.
- ② 펄 그린, 펄 브라운, 골드 컬러의 아쿠아 컬러로 상형문자의 선을 표현하고 동일 컬러의 아이섀도우로 그라데이션한다.
- ③ 블랙 라이닝 컬러로 아이라인을 표현한다.
- ④ 골드 라이닝 컬러로 입술을 표현하고 블랙 라이닝 컬러로 입술 선을 표현한다.

작품 VI 의 디자인 이미지와 구성 내용은 <표 11>과 같다.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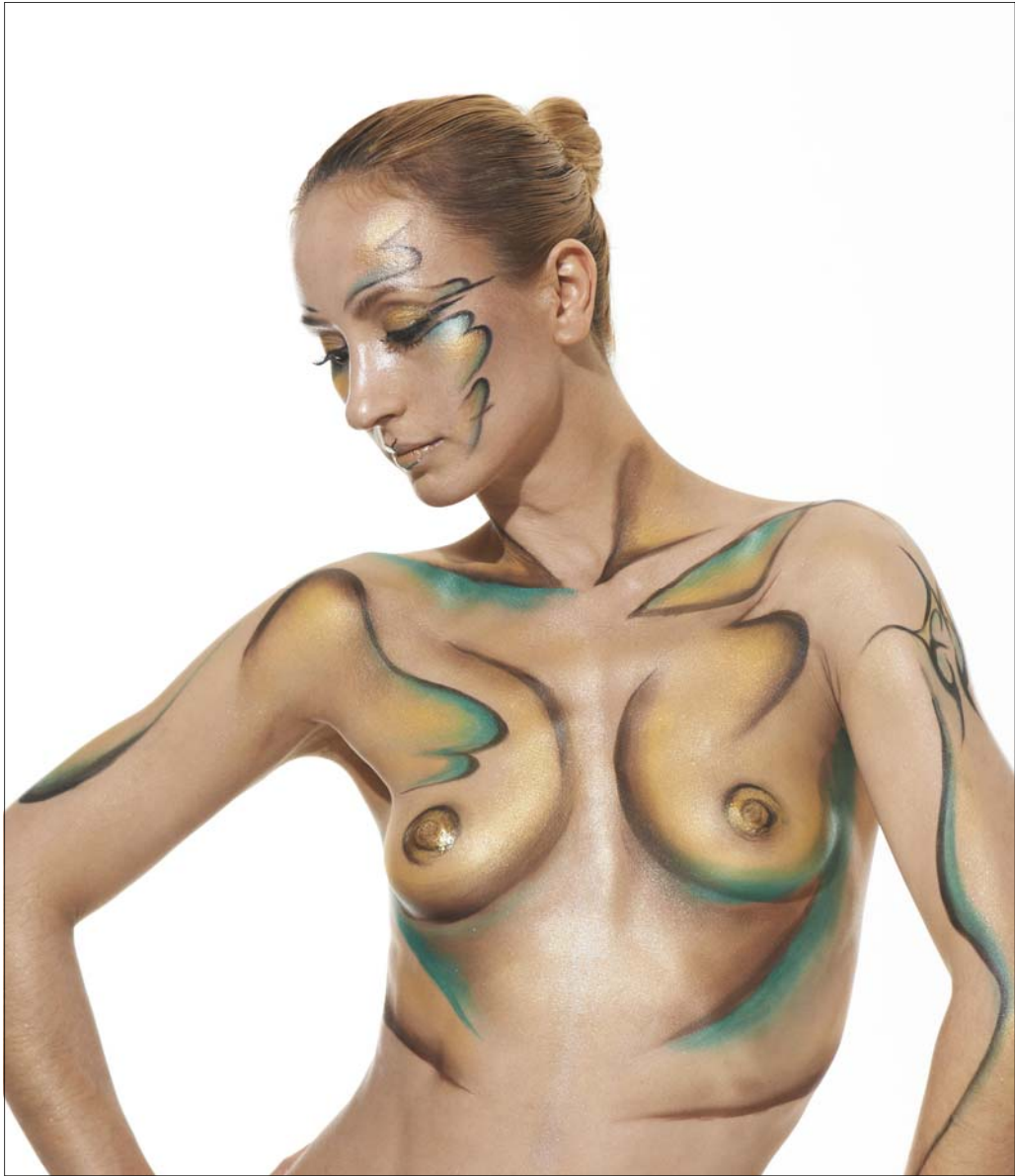
131) 김진영 역 (1995), 이집트 상형문자 이야기, 서울: 예문, p. 29.

<표 11> 작품 VI 의 디자인 이미지와 구성내용

디자인 이미지	
	
구성	내용
미메시스 표현양식	재현성
재료	라이닝 컬러, 아쿠아 컬러, 펄 파우더, 아이섀도우
컬러	



<그림 103> 작품 - ( i )



<그림 104> 작품 VI - (ii)

## 7) 작품 VII - 이미지의 상징성

주제 : 상징성

표현 유형 : 바디 페인팅 (상반신)

작품 VII 은 내면적 미메시스의 특성중 상징성을 중심으로 종교적 이미지를 상징하는 십자가를 모티브로 이미지의 상징성을 상반신에 표현하였다(그림 105, 106).

모티브의 형태가 되는 십자가는 그 상징적인 의미가 포괄적이다. 십자(十字)의 징표는 많은 종교나 제사에 있어서 ‘생명’ 또는 ‘영원’의 상징으로 쓰여 졌으나(고대 이집트의 앙크 등), 기독교 신앙에 따르면 인류 구제를 위한 희생인 그리스도의 수난의 상징, 또는 죽음에 대한 ‘승리’, ‘영원’의 상징이다.<sup>132)</sup> 기독교의 십자가 패턴을 얼굴에서부터 목, 가슴라인까지 연결하여 그려 넣어 종교적인 이미지를 상징하여 표현하였다. 파란색은 피에타(Pieta)상의 성모가 입던 성스러운 컬러로 사제와 왕이 입으면서 성스러움, 신비함, 근엄함의 의미로 재해석 되었다.<sup>133)</sup> 색의 상징성에서는 마음을 차분하게 만들어 진정효과를 얻을 수 있는 파란색을 사용하여 종교적 이미지를 상징하는 십자가를 표현하고 동양의 오정색 중 위계가 으뜸이며 중앙에 위치하는 금색은 가장 절대적인 존재만이 사용할 수 있는 색으로 작품의 배경색으로 사용하였다.<sup>134)</sup>

종교적 이미지의 십자가 패턴을 모티브로 미메시스의 상징성 특성을 표현한 작품 VII 의 제작 과정은 다음과 같다.

---

132) 한국사전연구사편집부 (1998), 미술대사전, p. 479.

133) 오수연 (2008), 색의 유혹 ; 색채심리와 컬러마케팅, 서울: 살림, p. 7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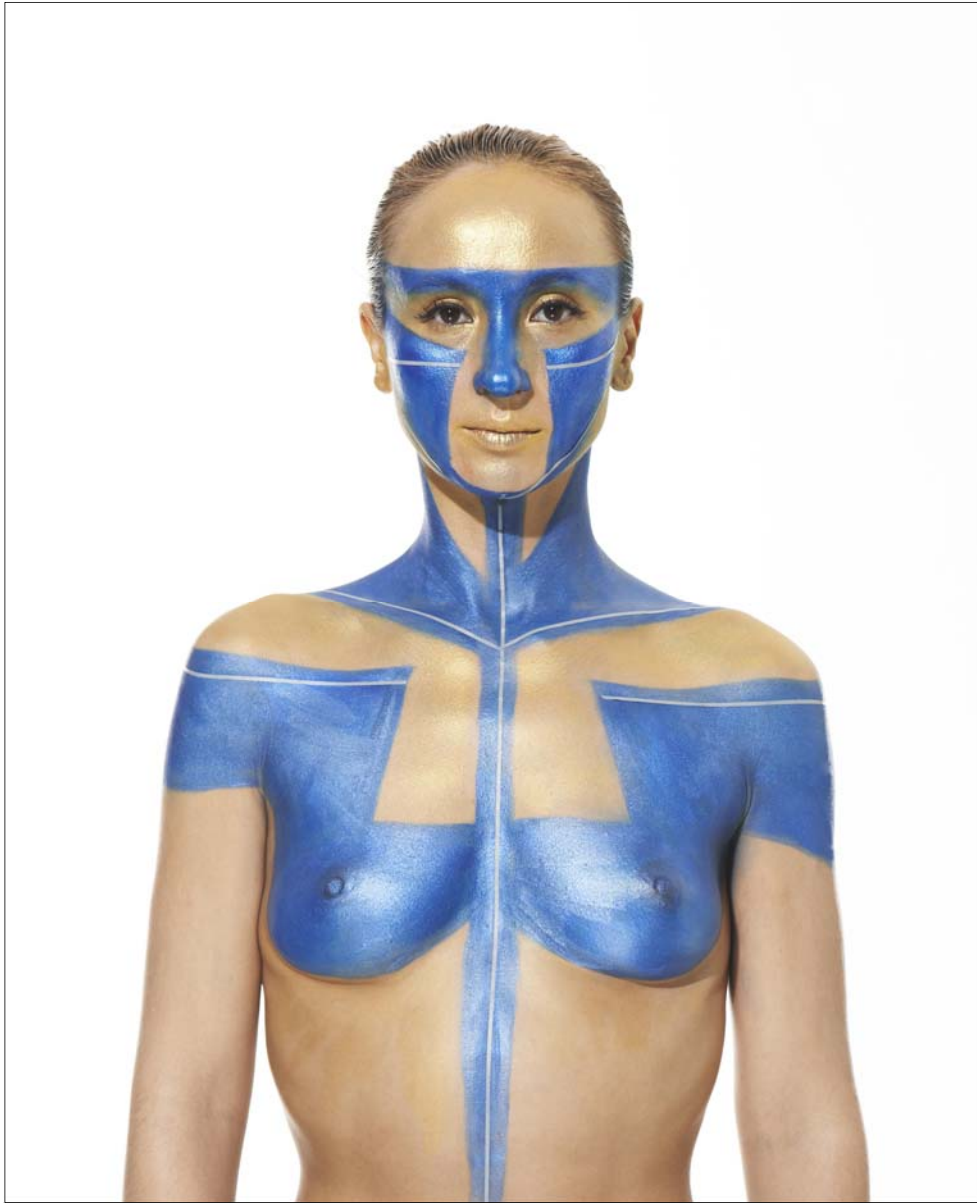
134) 박연선 (2007), 색채용어사전, 서울: 도서출판 예림, p. 128.

- ① 리퀴드 화운데이션과 펄 베이스를 혼합하여 피부를 표현한다.
- ② 펄 블루 아쿠아 컬러로 얼굴과 목, 가슴의 연결선 상에 십자가를 표현한다.
- ③ 광대, 쇄골, 팔 부분의 십자가선을 다시한번 강조해준다.

작품 VII 의 디자인 이미지와 구성 내용은 <표 12>와 같다.

<표 12> 작품 VII 의 디자인 이미지와 구성내용

디자인 이미지	
	
구성	내용
미메시스 표현양식	상징성
재료	아쿠아 컬러, 라인 테잎
컬러	<div style="display: flex; justify-content: space-between; width: 100%;"> <div style="width: 50%; background-color: #0056b3; height: 20px;"></div> <div style="width: 50%; background-color: #d9c08c; height: 20px;"></div> </div>



<그림 105> 작품 VII -(i)



<그림 106> 작품 VII -(ii)

## 8) 작품 VIII - 메시지 은유성

주제 : 은유성

표현 유형 : 바다 페인팅 (상반신)

작품 VIII 의 <그림 107, 108>은 내면적 미메시스의 은유성의 특성을 중심으로 지구 생태계 오염에 대한 경종의 메시지의 전달을 위한 은유성의 이미지를 상반신에 표현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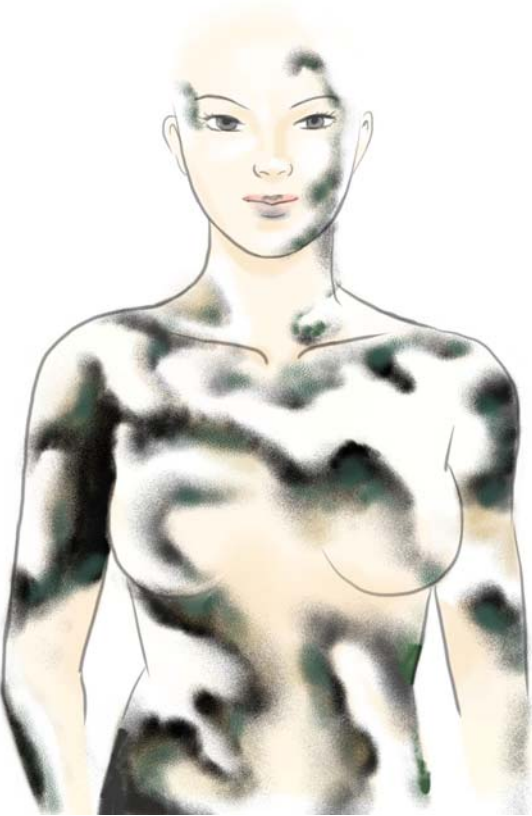
현대 사회는 문명의 발달로 편리하고 윤택해졌지만 이로 인한 부작용으로 지구의 온난화, 오존층의 파괴 등의 심각한 환경오염이 나타나고 있다. 본 작품은 문명의 발달로 인한 지구의 파괴를 상반신에 표현하여 환경오염에 대한 경각심의 메시지를 은유적으로 표현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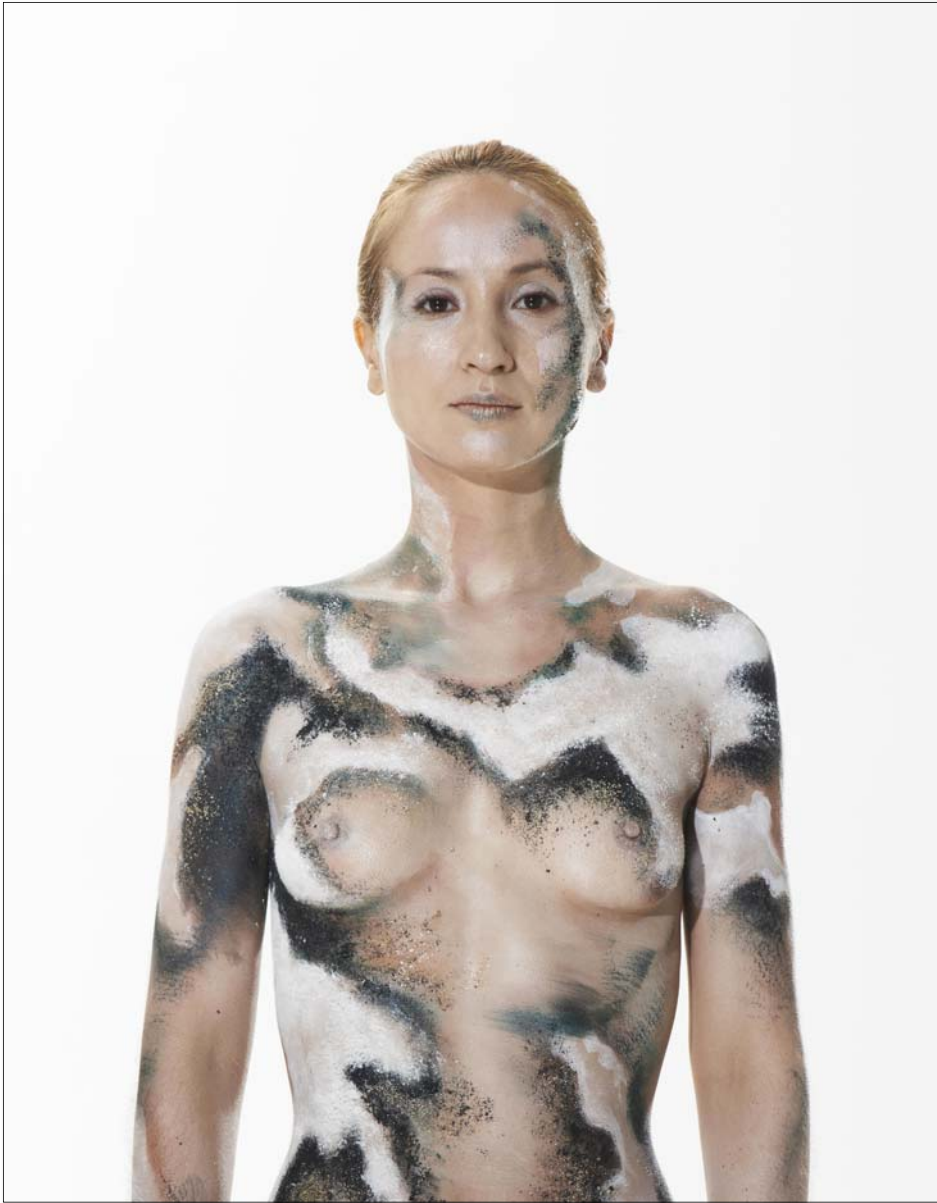
환경오염의 경각심에 대한 메시지를 모티브로 미메시스의 은유성의 특성을 표현한 작품 VIII 의 제작 과정은 다음과 같다.

- ① 화이트와 베이지 컬러의 리퀴드 화운데이션과 오일을 혼합하여 피부를 표현한다.
- ② 화이트와 펄브라운 아쿠아 컬러로 지구의 대륙을 표현한다.
- ③ 펄 그린과 블랙 아쿠아 컬러로 오염을 표현한다.
- ④ 오염 부분은 드라이 브러쉬로 거칠게 표현한다.
- ⑤ 밀가루, 색모래, 톱밥을 부분적으로 바른 후 물 스프레이를 뿌려 오염된 부분의 질감을 표현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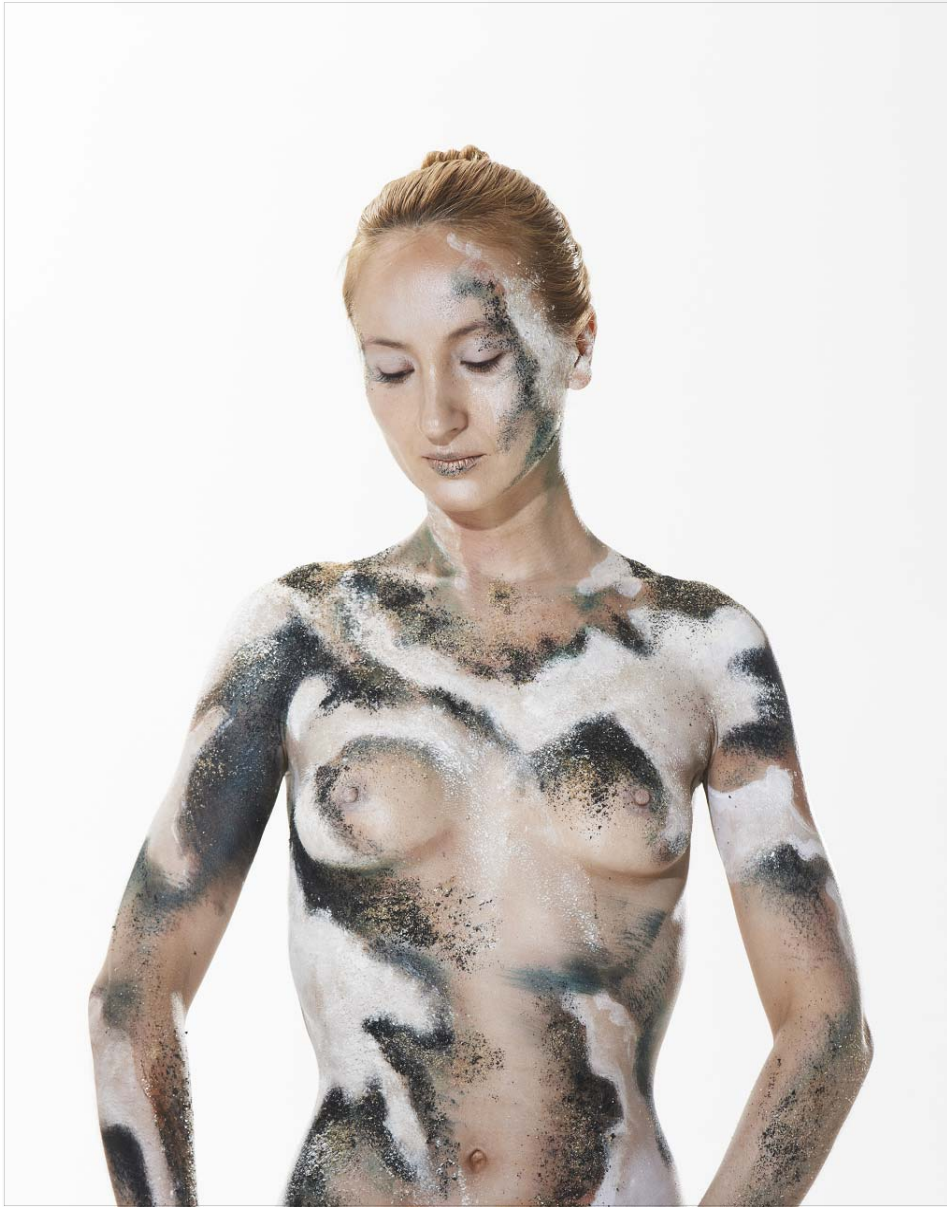
작품 VIII 의 디자인 이미지와 구성 내용은 <표 13>과 같다.

<표 13> 작품 Ⅷ의 디자인 이미지와 구성내용

디자인 이미지	
	
구성	내용
미메시스 표현양식	은유성
재료	아쿠아 컬러, 밀가루, 톱밥, 색모래, 물 스프레이
컬러	<div style="display: flex; justify-content: space-around; align-items: center;"> <div style="width: 30px; height: 30px; background-color: white; border: 1px solid black;"></div> <div style="width: 30px; height: 30px; background-color: darkgreen; border: 1px solid black;"></div> <div style="width: 30px; height: 30px; background-color: black; border: 1px solid black;"></div> </div>



<그림 107> 작품 VIII -(i)



<그림 108> 작품 VIII -(ii)

## 9) 작품 IX - 형태의 혼합성

주제 : 혼합성

표현 유형 : 바디 페인팅 (상반신)

작품 IX <그림 109, 110>는 복합적 미메시스의 혼합성 특성을 중심으로 이질적인 소재의 붉은 색상의 선을 질감의 혼합성을 통해 이미지를 상반신에 표현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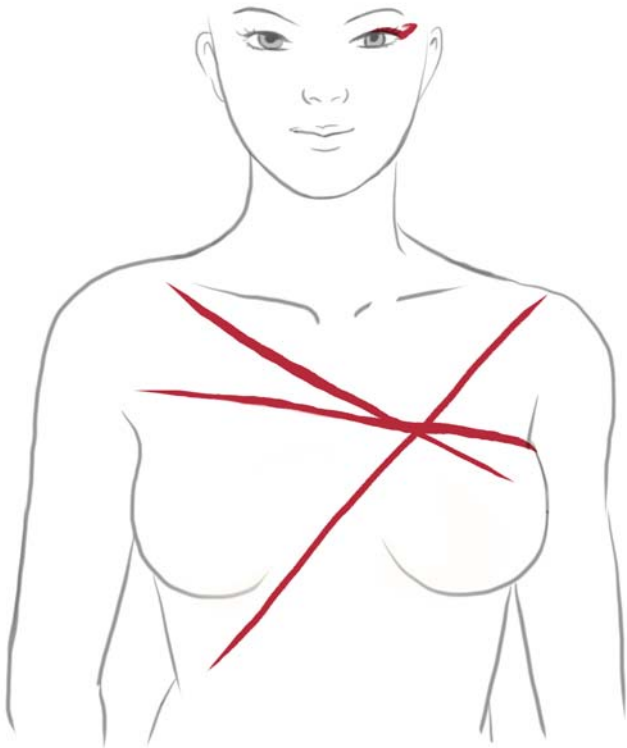
2009년 F/W 컬렉션, 요오지 야마모토(Yohji Yamamoto)의 ‘일본의 향기’라는 주제의 작품 <그림 33>은 장소의 재현으로 표현 되었지만 작품 IX는 흰색과 붉은 색, 그리고 강조된 붉은 아이라인은 일본의 이미지를 나타내고 있지만 여기에 질감이 다른 두 가지 이상의 소재를 사용하고 공간감을 주어 형태의 혼합성을 동시에 추구하고자 하였다. 붉은 선의 패턴을 가슴과 어깨에 교차하여 그린 후 액자틀에 고정시킨 이질적 소재의 붉은 털실의 선을 혼합하여 같은 형태의 붉은 선을 다른 질감으로 혼합하여 절충된 형태를 표현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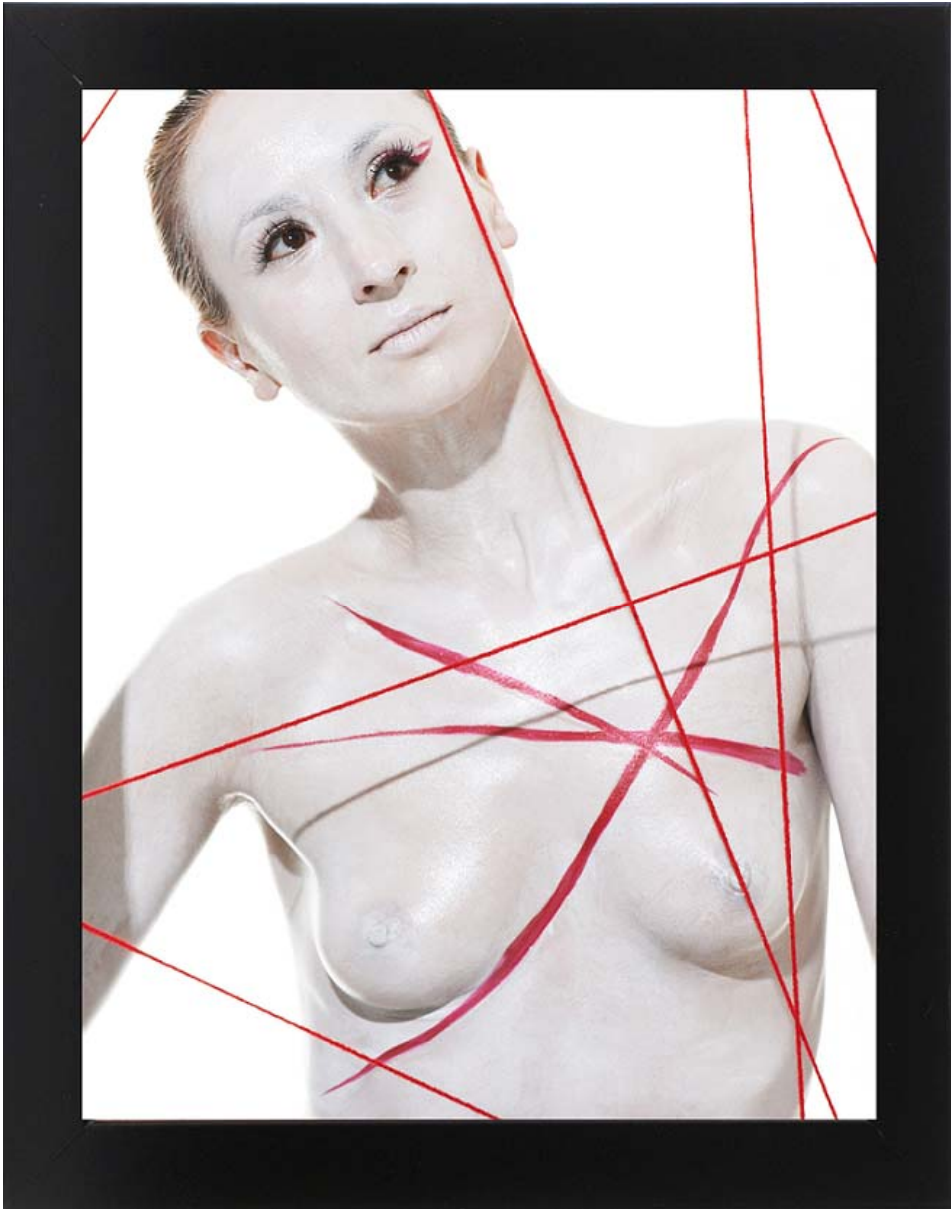
선이 중첩된 혼합의 패턴을 모티브로 미메시스의 혼합성 특성을 표현한 작품 IX의 제작 과정은 다음과 같다.

- ① 화이트 아쿠아 컬러로 피부를 표현한다.
- ② 바탕색과 구별되는 레드 아쿠아 컬러를 선택하여 가슴과 어깨에 교차 선을 그린다.
- ③ 붉은 털실로 구성된 액자 형태를 적용하여 먼저 그려진 붉은 선과 혼합하여 표현하고, 한쪽 눈에도 붉은 아이라이너를 그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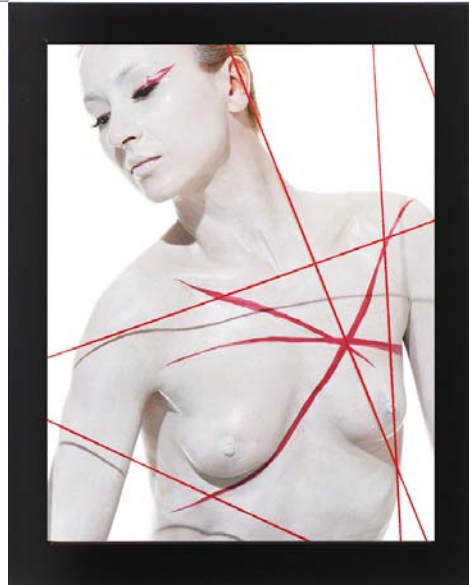
작품 IX의 디자인 이미지와 구성 내용은 <표 14>와 같다.

<표 14> 작품 IX 의 디자인 이미지와 구성내용

디자인 이미지	
	
구성	내용
미메시스 표현양식	혼합성
재료	아쿠아 컬러, 털실
컬러	<div style="display: flex; justify-content: space-between; width: 100%;"> <div style="width: 45%; border: 1px solid black; height: 20px;"></div> <div style="width: 45%; background-color: red; height: 20px;"></div> </div>



<그림 109> 작품 IX - ( i )



<그림 110> 작품 IX - (ii)

## 10) 작품 X - 형태의 왜곡성

주제 : 왜곡성

표현 유형 : 바디 페인팅 (상반신)

작품 X <그림 111, 112>은 복합적 미메시스 중 왜곡성의 특성을 중심으로 도형을 모티브로 하여 형태의 왜곡성 이미지를 얼굴과 상반신에 표현하였다.

선을 연결하여 딱딱한 느낌을 주는 삼각형, 사각형 등의 도형의 직선 패턴을 이와는 대조적인 얼굴과 인체의 부드러운 곡선에 응용하여 신체의 일부를 분할하거나 신체 일부의 형태를 왜곡하여 표현하였다.

도형의 패턴을 모티브로 미메시스의 왜곡성 특성을 표현한 작품 X의 제작 과정은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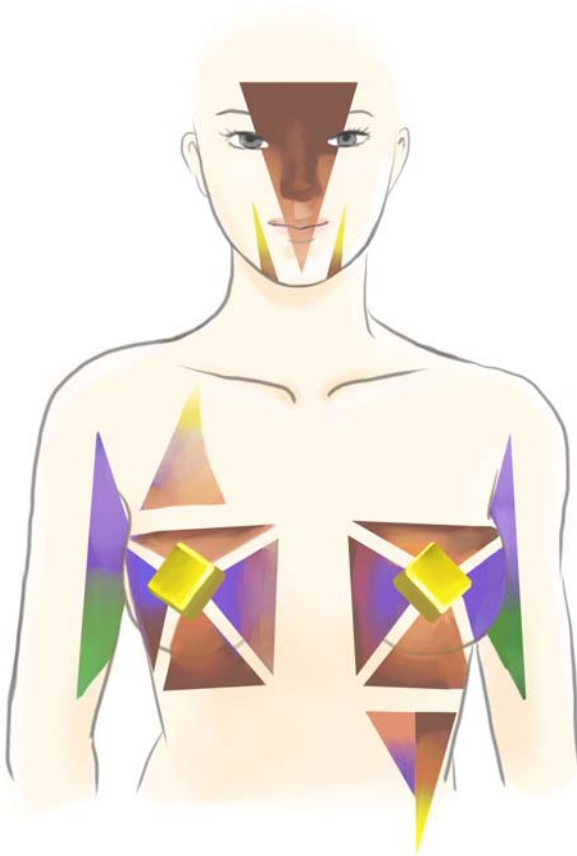

① 브라운 컬러의 리퀴드 화운데이션과 골드 브라운 펄 파우더를 오일과 혼합하여 피부를 표현한다.

② 얼굴과 가슴, 팔, 허리를 삼각형과 사각형의 도형으로 분할하고 옐로우, 오렌지, 브라운, 그린, 퍼플의 라이닝 컬러로 그라데이션 한다.

③ 가슴 부분을 사각형 모양으로 입체감을 살려 과장되게 왜곡하여 표현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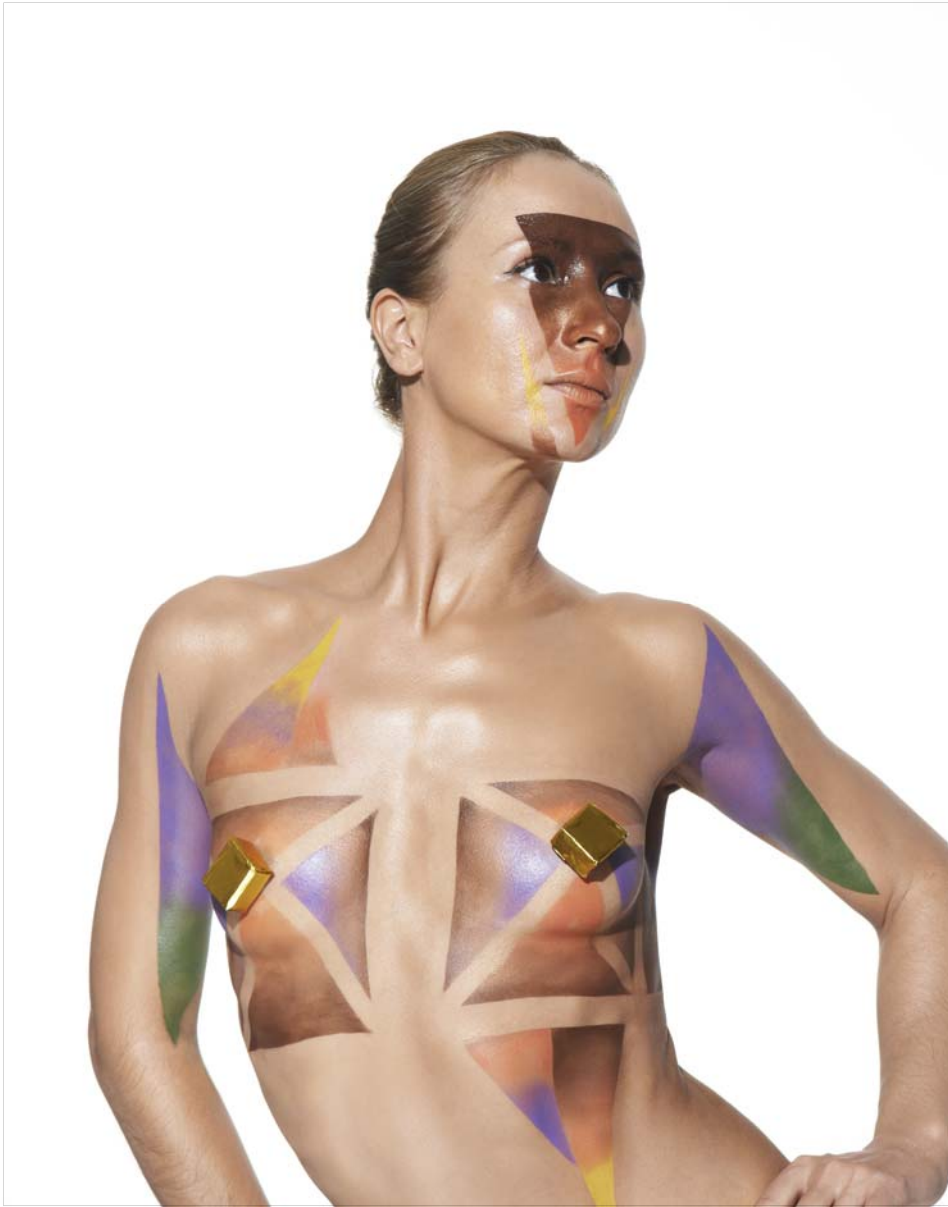
작품 X의 디자인 이미지와 구성 내용은 <표 15>와 같다.

<표 15> 작품 X 의 디자인 이미지와 구성내용

디자인 이미지	
	
구성	내용
미메시스 표현양식	왜곡성
재료	라이닝 컬러, 골드 박스, 펄 파우더
컬러	



<그림 111> 작품 X - ( i )



<그림 112> 작품 X - (ii)

## 11) 작품 XI - 연상의 동일성

주제 : 동일성

표현 유형 : 바디 페인팅 (전신)

작품 XI <그림 113, 114>은 외형적 미메시스의 특성인 동일성을 중심으로 한글의 패턴을 모티브로 하여 연상에 의한 동일성의 이미지를 전신에 표현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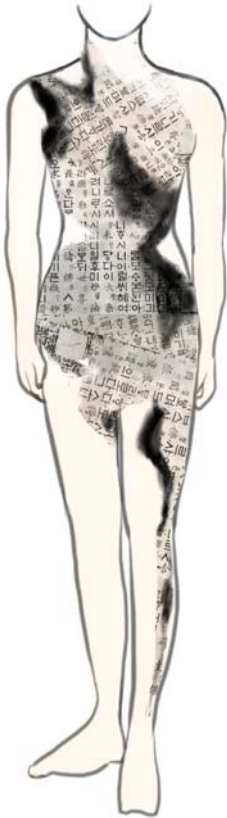
한지에 쓰여진 한글의 패턴을 이용하여 머리와 목을 포함한 전신에 형태의 흐름에 따라 입체감 있게 디자인하여 연상에 의한 동일성을 표현하였다.

한글 패턴을 모티브로 미메시스의 동일성 특성을 표현한 작품 XI의 제작 과정은 다음과 같다.

- ① 전신을 투명감이 나타나도록 화이트 아쿠아 컬러로 얇게 페인팅 한 후 화이트 펄 파우더를 브러쉬로 문치지 않게 바른다.
- ② 한글 패턴의 한지를 물에 적셔 모델의 신체 위에 입체감이 나타나도록 붙여준다.
- ③ 얼굴의 눈두덩이와 이마, 목 부분에도 동일한 방법으로 붙인다.
- ④ 지속적으로 물을 뿌려 한지가 마르지 않고 밀착되도록 하면서 블랙 색상의 아쿠아 컬러로 어깨, 가슴, 허리, 다리의 윤곽을 강조하면서 번지듯 표현하여 입체감을 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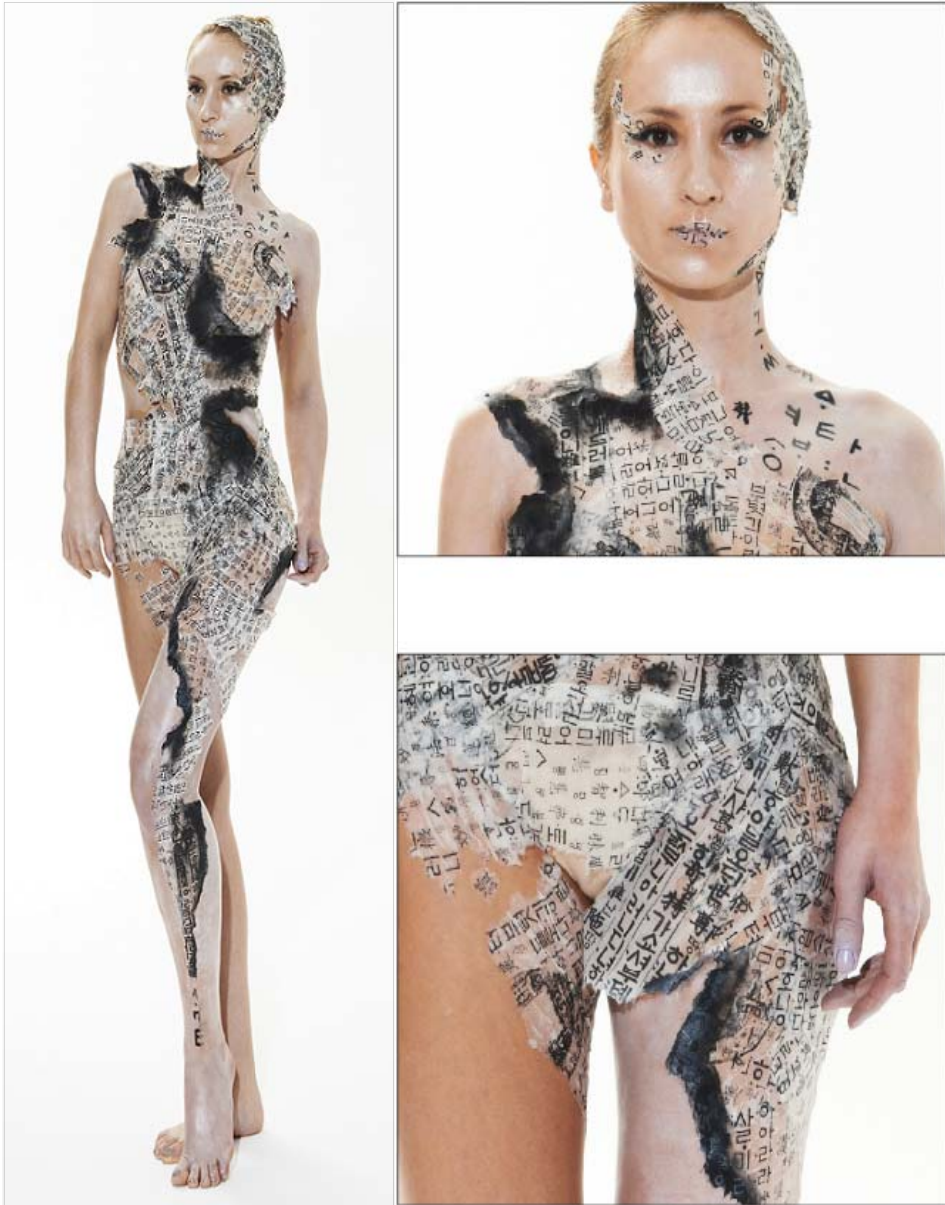
작품 XI의 디자인 이미지와 구성 내용은 <표 16>과 같다.

<표 16> 작품 XI 의 디자인 이미지와 구성내용

디자인 이미지	
	
구성	내용
미메시스 표현양식	동일성
재료	아쿠아 컬러, 펄 파우더, 한글 패턴의 한지
컬러	<div style="display: flex; justify-content: space-around; align-items: center;"> <div style="width: 30%; height: 20px; background-color: #808080;"></div> <div style="width: 30%; height: 20px; background-color: #000000;"></div> <div style="width: 30%; height: 20px; background-color: #000000;"></div> </div>



<그림 113> 작품 XI - ( i )



<그림 114> 작품 XI - (ii)

## 12) 작품 XIII - 이미지의 상징성

주제 : 상징성

표현 유형 : 바디 페인팅 (전신)

작품 XIII <그림 115, 116>는 내면적 미메시스의 상징적인 특성을 중심으로 물음표, 느낌표, 쉼표, 마침표, 따옴표 등의 문장 부호를 모티브로 하여 상징성의 이미지를 전신에 표현하였다.

문장부호는 글의 뜻을 효과적으로 표현하고, 문장을 이해하는데 오해가 없도록 하기 위해 사용되는 부호이다. 글의 가독성을 높여주며, 문장 각 부분, 사이에 표시하여 논리적 관계를 명시한다<sup>135)</sup>. 문장의 정확한 의미전달을 위한 수단인 다양한 문장부호의 패턴을 화이트 바탕색 위에 다양한 컬러를 이용하여 나타냄으로써 흰 종이 위의 문장을 강조 또는 부연설명 해주는 역할로서의 문장부호의 중요성을 상징적으로 표현하였다.

문장 부호의 패턴을 모티브로 미메시스의 상징성의 특성을 표현한 작품 XIII 의 제작 과정은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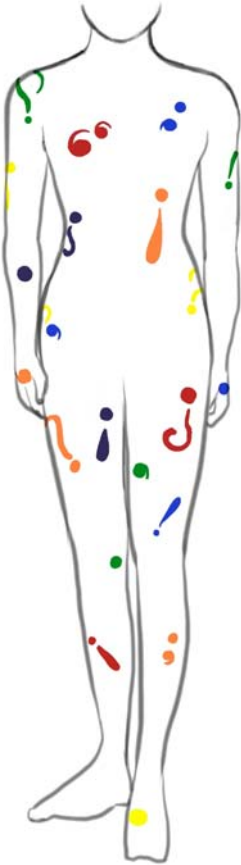

- ① 전신을 화이트 아쿠아 컬러로 페인팅 하여 표현한다.
- ② 다양한 문장 부호의 패턴을 모델의 신체 위에 인체의 곡선을 고려하여 레드, 오렌지, 옐로우, 블루, 그린, 블랙의 라이닝 컬러로 다양한 크기와 형태로 그린다.

작품 XIII 의 디자인 이미지와 구성 내용은 <표 17>과 같다.

---

135) 세종대왕기념사업회 (2007), 한글글꼴용어사전, p. 114.

<표 17> 작품 XIII 의 디자인 이미지와 구성내용

디자인 이미지	
	
구성	내용
미메시스 표현양식	상징성
재료	라이닝 컬러, 아쿠아 컬러, 펄 파우더, 아이새도우
컬러	



<그림 115> 작품 XII -(i)



<그림 116> 작품 XII - (ii)

### 13) 작품 XIII - 풍자의 은유성

주제 : 은유성

표현 유형 : 바디 페인팅 (전신)

작품 XIII <그림 117, 118>은 내면적 미메시스의 은유성을 중심으로 키스해링의 작품을 모티브로 하여 팝아트의 풍자적 은유성의 이미지를 전신에 표현하였다.

미국의 그래피티 아티스트(낙서화) 키스해링 작품의 패턴을 몸의 반을 분할하여 디자인하여 팝아트의 이미지를 부각할 수 있는 비비드한 색상을 사용하여 은유적으로 표현하였다.

키스해링 작품의 패턴을 모티브로 미메시스의 은유성 특성을 표현한 작품 XIII의 제작 과정은 다음과 같다.

① 그래피티 아티스트 키스해링 작품의 패턴을 몸에 분할하여 다양한 크기로 디자인한다.

② 옐로우, 오렌지, 브라운, 퍼플 등의 필감이 들어있는 아쿠아 컬러를 이용하여 그라데이션 한다.

③ 블랙 아쿠아 컬러로 패턴의 테두리를 강조하여 마무리한다.

작품 XIII의 디자인 이미지와 구성 내용은 <표 18>과 같다.

---

\* 키스해링(Keith Haring : 1958~1990)

미국의 그래피티 아티스트로, 하위문화로 낙인찍힌 낙서화의 형식을 빌려 새로운 회화양식을 창조하였다. 강렬한 선과 색을 사용하고 재치와 유머가 넘치는 표현으로 그의 작품은 전 세계적으로 대중적인 인기를 얻고 있다.

<표 18> 작품 XIII 의 디자인 이미지와 구성내용

디자인 이미지	
	
구성	내용
미메시스 표현양식	은유성
재료	아쿠아 컬러
컬러	



<그림 117> 작품 XIII-(i)



<그림 118> 작품 XIII-(ii)

#### 14) 작품 XIV - 형태와 질감의 혼합성

주제 : 혼합성

표현 유형 : 바디 페인팅 (전신)

작품 XIV <그림 119, 120>는 복합적 미메시스의 혼합성의 특성을 중심으로 아르누보의 곡선을 모티브로 하여 형태와 질감에 대한 혼합성의 이미지를 전신에 표현하였다.

아르누보 곡선의 패턴을 신체의 뒷모습에 블랙의 강한 컬러를 이용하여 강조하고, 이와는 대조적으로 화이트 컬러의 꽃을 입체적 조형물로 만들어 첨가함으로써 형태와 질감을 혼합하여 표현하였다. <그림 64>에서 보여진 장 폴 고티에의 작품은 이마와 볼에 아르누보적인 식물 넝쿨의 문양을 자수 형태의 레이스를 붙여 형태를 강조하였는데 이 작품을 참고하여 아르누보 시대에 나타난 여러 가지 문양을 모티브로 하여 작품 XIV 를 제작하였다.

아르누보의 곡선 패턴을 모티브로 미메시스의 혼합성의 특성을 표현한 작품 XIV 의 제작 과정은 다음과 같다.

① 몸의 뒷면에 베이지 컬러의 리퀴드 화운데이션과 오일을 혼합하여 피부부를 표현한다.

② 블랙 아쿠아 컬러를 이용하여 인체의 곡선을 고려하여 식물 줄기의 곡선의 느낌이 들도록 두께의 강약을 조절하여 표현한다.

③ 기름 종이로 다양한 크기의 꽃을 만들어 입체감을 살려 붙여준다.

작품 XIV 의 디자인 이미지와 구성 내용은 <표 19>와 같다.

\*아르누보(Art Nouveau : 1890~1910)양식

새로운 예술 사조를 뜻하는 아르누보는 덩굴식물 모티브와 구불구불하고 유연한 선으로 장식된 철제난간, 섬세한 꽃무늬의 반복적인 패턴, 긴 실루엣의 여인의 이미지가 연상되며, 세기 전환기의 시대적 요구와 분위기를 적극적으로 반영한 예술운동이다.

<표 19> 작품 XIV 의 디자인 이미지와 구성내용

디자인 이미지	
	
구성	내용
미메시스 표현양식	혼합성
재료	리퀴드 화운데이션, 블랙 아쿠아 컬러, 기름종이
컬러	<div style="display: flex; justify-content: space-between; width: 100%;"> <div style="width: 45%; background-color: white; border: 1px solid black;"></div> <div style="width: 45%; background-color: black; border: 1px solid black;"></div> </div>



<그림 119> 작품 XIV-(i)



<그림 120> 작품 XIV-(ii)

## 15) 작품 XV - 형태의 왜곡성

주제 : 왜곡성

표현 유형 : 바디 페인팅 (전신)

작품 XV <그림 121, 122>는 복합적 미메시스의 왜곡성 특성을 중심으로 인체의 골격을 모티브로 하여 형태의 왜곡성 이미지를 전신에 표현하였다. 신체를 지탱하는 기둥역할을 하는 인체의 골격을 소포지를 이용하여 부분적으로 분할한 후 골격을 블랙 컬러로 강조함으로써 인체의 골격을 과장하여 형태를 왜곡하여 표현하였다.



인체 골격의 패턴을 모티브로 미메시스의 왜곡성의 특성을 표현한 작품 XV의 제작 과정은 다음과 같다.

① 소포지를 이용하여 어깨, 가슴, 허리, 팔, 다리의 골격을 단순화하여 크게 분할하고 분할된 부분에 구멍을 낸 후, 신체에 붙인다.

② 분할된 부분에 블랙 아쿠아 컬러로 인체의 골격을 변형하여 그려주며 왜곡된 신체를 표현한다.

작품 XV의 디자인 이미지와 구성 내용은 <표 20>과 같다.

<표 20> 작품 XV 의 디자인 이미지와 구성내용

디자인 이미지	
	
구성	내용
미메시스 표현양식	왜곡성
재료	아쿠아 컬러, 소포지
컬러	



<그림 121> 작품 XV-(i)



<그림 122> 작품 XV-(ii)

## V.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미학의 미메시스 개념이 갖는 정의를 시대의 변화에 따라 고찰하여 그 유형을 살펴보고 이에 따른 하위요인을 트렌드를 잘 파악할 수 있는 패션컬렉션의 메이크업에 적용시켜 특성을 분석하였다. 이를 토대로 미메시스의 특성을 얼굴 뿐 아니라 신체의 전체적인 범위로 확대시켜 바디아트에 적용하여 작품을 제작함으로써 메이크업과 바디아트의 다양한 접근방법을 시도하였다.

연구 방법과 범위는 국내. 외의 단행본 및 연구논문을 바탕으로 한 문헌연구와 2000년 이후부터 현재까지의 패션컬렉션의 메이크업을 중심으로 한 실증 연구를 함께하였다. 이를 통해 분석한 미메시스의 특성을 얼굴에만 한정하지 않고 페이스 페인팅을 포함한 신체의 일부와 전신을 사용한 인체의 전체적인 범위로 확대하여 바디아트 작품을 제작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에서 미메시스의 개념을 외형적 미메시스, 내면적 미메시스, 복합적 미메시스로 구분할 수 있었다.

외형적 미메시스는 대상의 있는 그대로를 따라하거나 흉내내는 동일성과, 재인식하여 비슷하게 창조하는 재현성의 특징을 갖는 외부적 형태의 재현이다.

내면적 미메시스는 마음의 상태나 내적인 심리, 상상의 세계 등을 재현하는 내적인 의미의 개념으로, 내면의 이미지를 형상화하거나 내적 관념이 표현된 상징성과 내면의 심리상태나 전달하려는 메시지가 간접적이고 의도적으로 표현되어지는 은유성으로 나타났다.

복합적 미메시스는 20세기 이후 미메시스의 개념이 다양한 의미로 해석되어

외형적 미메시스와 더불어 내면적 미메시스가 혼합되거나 그 형태가 왜곡되어 표현되어진다.

둘째, 미메시스의 표현 특성을 패션컬렉션 메이크업에 적용시켜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외형적 미메시스의 동일성은 얼굴의 있는 그대로의 형태에 변화를 거의 주지 않고 표현한 내추럴 메이크업이 주로 보였으며, 이는 최근의 패션컬렉션의 메이크업에서 주로 보여져 오늘날 과장되지 않고 자연스러운 메이크업 트렌드를 반영한다. 또한 재해석한 유사한 표현인 재현성은 고대, 이집트, 중세, 로코코, 1960년대 트위키, 1980년대 복고, 미래주의적 특징이 보여지는 메이크업으로 시대별 메이크업의 특징을 비슷하게 재현하였으며, 게이샤, 경극, 오리엔탈, 아프리카, 러시아 인형 등의 이미지를 토대로 이를 재해석하여 유사하게 재현하였다.

내면적 미메시스의 상징성은 내면의 이미지를 형상화하여 종교적 색채를 상징하거나 공포를 상징하는 그로테스크적인 이미지로, 이는 21세기의 포스트모더니즘이 갖는 탈정형과 탈구조적인 특징을 잘 반영하는 것이다. 또한 은유성은 패션컬렉션 메이크업에 자주 등장하는 특징으로 유머스럽고 풍자적인 요소의 포함, 팝아트적인 요소 또는 키치적 표현이 나타나거나 숨은 의도가 담겨져 메시지를 전달하고자 하는 욕구를 보인다.

복합적 미메시스는 패션컬렉션의 메이크업에서 형태와 질감이 절충되거나 변형된 표현으로 조형물이 첨가되거나 다양한 종류의 오브제의 사용, 이질적 소재가 혼합되어 혼합성의 형태를 보이거나 단순화, 도식화, 과장된 표현, 추상화 등을 통해 왜곡성의 특징을 보이고 있다.

셋째, 미학적 개념에서 미메시스의 특성을 분석하여 이를 페이스 페인팅 5점, 상반신 바디페인팅 5점, 전신 바디페인팅 5점, 총 15점의 바디아트 작품을

제작하였다.

작품 I, II 는 각각 몬드리안 작품의 패턴과 아프리카 문양을 모티브로 동일성과 재현성을 표현하였다.

작품 III 은 내면적 미메시스의 은유성을 표현한 작품으로 무분별한 성형에 대한 경각심의 메시지 전달을 목적으로 제작하였다.

작품 IV 와 V 는 얼굴의 골격을 중심으로 입체적 형태를 강조하여 표현한 작품으로 복합적 미메시스의 혼합성과 왜곡성을 표현하였다.

작품 VI 은 외형적 미메시스의 재현성이 나타난 작품으로 이집트의 상형문자를 인체의 곡선을 고려하여 상반신 바디아트로 표현하였다.

작품 VII, VIII 은 내면적 미메시스의 상징성과 은유성을 나타낸 작품으로 각각 십자가를 통해 종교적 이미지를 상징하고 환경오염의 경각심의 메시지를 은유적으로 상반신 바디아트로 표현하였다.

작품 IX, X 은 복합적 미메시스의 혼합성과 왜곡성의 특징을 중심으로 각각 붉은 선을 모티브로 이질적 소재를 혼합하거나, 서로 다른 도형의 이미지를 인체의 곡선에 입체적으로 표현하였다.

작품 XI 은 외형적 미메시스의 동일성의 특성을 중심으로 한글의 패턴을 입체감 있게 전신 바디아트로 제작하였다.

작품 XII, XIII 은 내면적 미메시스의 상징성과 은유성을 특징으로 문장 부호와 그래피티 아티스트 키스해링의 작품의 이미지를 전신 바디아트로 표현하였다.

작품 XIV, XV 는 각각 아르누보적인 곡선과 입체적인 조형물의 혼합과 인체의 골격을 과장되게 왜곡하여 전신 바디아트로 복합적 미메시스의 혼합성과 왜곡성을 표현하였다.

이상과 같이 미학의 범주 안에서 미메시스의 개념을 시대의 흐름에 따른 트

렌드를 잘 파악할 수 있는 패션컬렉션의 메이크업에 적용하여 표현특성을 분석한 결과 과거와 현재의 메이크업을 비교, 분석하여 모방이나 재현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할 수 있었다. 이와 더불어 미메시스의 특성을 바디아트에 적용함으로써 메이크업과 바디아트의 다양한 접근방법을 시도 할 수 있었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현대 사회에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는 현상을 미메시스 현상에만 한정하여 분석하였다는 한계점을 가지므로 후속 연구에서는 다양한 사회 현상에 대한 더욱 포괄적이고 종합적인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또한 미메시스의 개념을 단순한 모방이 아닌 창조적인 재현의 포괄적인 개념으로 이해하여 이를 통한 바디아트 분야의 지속적인 발전을 기대한다.

# 참 고 문 헌

## 국내문헌

- 강대영. (1999). *한국분장예술*. 서울: 지인당.
- 강순근. (1997). *플라톤 미학에 있어서 '미메시스'에 관한 연구*. 동아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강용수. (2008). *발터 벤야민이 들려주는 복제 이야기*. 서울: 자음과 모음.
- 국립국어원 (1999). *표준국어대사전*. 두산동아.
- 권구정 외 3인. (2009). *Makeup Icon*. 서울: 청구문화사.
- 권혁성. (2012). “플라톤에 있어서 미메시스와 예술 - 「국가」를 중심으로” *한국미학회지*, 69.
- 김광요 외 4인. (2010). *드라마 사전*. 서울: 문예림.
- 김상현 역. (2005). *판단력 비판*. 서울: 책세상.
- 김수련. (2012). “폴 리콥르의 미메시스 이론으로 본 영화적 재현방식 고찰”. *한국콘텐츠학회지*, 12(8).
- 김성곤. (1988). *탈구조주의의 이해*. 서울: 민음사.
- 김양은 외 3인. (2009). *ART MAKE-UP*. 파주: 광문각.
- 김유성 · 홍세원. (2005). *바디아트에 나타난 타이포그래피 표현에 관한 연구*. *한국미용학회지*, 11(2).
- 김진해. (2012). “미메시스적 관점에서 본 디지털 영화이미지”. *씨네포럼*, 4.
- 김해선 · 강은주. (2013). *바디페인팅을 활용한 광고속성이 구매의도에 미치는 영향*, *한국디자인문화학회지*, 19(3).
- 김효일. (2006). “영상이미지의 다시점구조에 의한 미메시스 연구”. *한국기초*

조형학회지, 7(4).

김희보 역. (2008). *고백록*. 서울: 동서문화사.

동아원색세계대백과사전 (1984). 동아출판사.

문정은. (2003). 현대 패션에 나타난 바디아트의 형태와 특성에 관한 연구. *한국인체예술학회지*, 4(1).

박경연. (2003). *지역문화축제에서 페이스페인팅 영향력에 관한 연구*, 조선대학교 산업대학원 석사학위논문.

박연선 (2007). *색채용어사전*. 도서출판예림.

박영태. (2013). *성찰적 근대화 이후 건축의 전복적 미메시스 표현 특성에 관한 연구*. 홍익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서대정. (2007). *재현의 위기 시대의 메타 담론 연구 - 영화의 자기 반영 미학을 중심으로-*. 한양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세계미술용어사전 (1996). 월간미술.

세종대왕기념사업회(박병천 외 5인) (2000). *한글글꼴용어사전*. 한국글꼴개발원.

손효주 역. (2006). *미학의 기본개념사*. 서울: 미술문화.

신재욱. (2012). *현대 미메시스 문화와 캐릭터 디자인의 시각적 불일치에 관한 연구*. 홍익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안인경 역. (2009). *위대한 철학책*. 서울: 지식나이테.

양수미. (2012). *현대패션과 미디어의상에 표현된 미메시스 연구*. 부산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양희영. (2009). "현대패션에 나타난 재현과 되기현상에 대한 비교연구; 미메시스와 뮐러의 되기이론을 중심으로". *한국의류학회지*, 33(2).

오병남. (2003). *미학강의*. 서울대학교 출판부.

- 오수연. (2008). *색의 유혹 ; 색채심리와 컬러마케팅*. 서울: 살림.
- 오인영 외 3인. (2009). *메이크업디자인*. 서울: 훈민사.
- 오인영, 신원선, 안성준. (2010). *아트 메이크업 디자인*. 서울: 훈민사.
- 원준식. (2007). *아도르노의 미메시스론 연구*. 홍익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유기환. (2010). “미메시스에 대한 네 가지 시각 -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벤야민, 리콰르”. *세계문화비교학회지*, 33.
- 유호전 역. (2001). *미학개론*. 서울: 동문선.
- 유태순 역. (2004). *서양화장문화사*. 서울: 동서교류.
- 이경은. (2007). *메이크업에 나타난 아방가르드 특성에 관한 연구*. 성신여자대학교 일반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이상훈. (2009). *현대건축에서 재현의 의미에 관한연구; 비표상주의 비판을 중심으로*. 명지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이유나. (2011). *시플라시옹 개념에 따른 바디아트의 시각적 이미지 표현에 관한 연구*. 성신여자대학교 일반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이주영. (1996). *루카치 미학연구; 미메시스론을 통해 본 예술과 현실의 관계*. 홍익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이주영. (1996). “루카치의 미메시스론을 통해 본 예술과 현실의 관계”. *한국미학예술학회지*, 6.
- 이주영. (2005). “재현의 관점에서 본 예술과 실재의 관계”. *미학예술학연구*, 22.
- 이주영. (2002). “미메시스의 관점에서 본 문학과 미술의 관계- 리얼리즘을 중심으로”. *미학예술학연구*, 16.
- 이종하. (2007). *아도르노 고통의 해석학*. 서울: 살림.

- 이진용. (2012). “카무플라주를 이용한 바디아트 연구”. *한국인체미용예술학회지*, 12(2).
- 이한우 역. (1999). *가다머*. 서울: 민음사.
- 임호일. (2005). “가다머의 예술론- 미메시스의 권리회복”. *한국비히너학회지*, 25.
- 정석현. (2012). “아도르노 미메시스 개념의 의미”. *새한철학회지*, 70(4).
- 정승희. (2010). *2000년대 패션쇼에 나타난 메이크업디자인의 이국적 이미지 연구*. 경희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정연자. (2009). “바디페인팅에 표현된 미적 미메시스- 루카치의 후기미학을 중심으로-”. *한국인체예술학회지*, 10(3).
- 조극훈. (2007). *가다머가 들려주는 선입견 이야기*. 서울: 자음과 모음.
- 조은숙. (2004). *현대 메이크업에 나타난 오리엔탈리즘이 반영된 바디아트에 관한 연구*. 성균관대학교 생활과학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진중권. (2008). *진중권의 현대미학; 숭고와 시뮬라크르의 이중주 강의*. 서울: 아트북스.
- 천병희 역. (2004). *시학*. 서울: 문예출판사.
- 천지연 외 4인. (2013). *Art & Character Make up*. 서울: 청구문화사.
- 철학사전편찬위원회 (2008). *哲學史典*. 중원문화.
- 최경옥. (2009). *아르누보 문양 이미지를 응용한 바디아트 연구*. 성신여자대학교 일반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최광진. (2004). *현대미술의 전략*. 서울: 아트북스.
- 최성만 역. (2007). *기술복제시대의 예술작품; 사진의 작은 역사 외*. 서울: 길.
- 태동숙. (2011). *투명성을 응용한 바디아트 표현연구*. 성신여자대학교 일반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하태환 역. (2003). *시물라시옹*. 서울: 민음사.
- 한국사전연구소 (1998). *미술대사전*.
- 한국사전연구소 (1998). *종교학대사전*.
- 한명숙. (2005). *바디아트에 나타난 메이크업의 포스트모더니즘적 특성에 관한 연구*. 대구대학교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국외문헌

- Aristotele, *Poetics*. (1985). tr.by I. Bywater, "The Complete Works of Aristotle", ed. by J. Barnes, New Jersey : Princeton Univ. Press 2.
- David P. Parris. (2002). *Imitating the Parables: Allegory, Narrative and the Role of Mimesis*, Colorado Springs, *Journal for the Study of the New Testamenr* 25(1), Fuller Theological Seminary in Colorado.
- Derrida, trans. Johnson. B. (1981). "*The Double Session; Dissemination*", Chicago : University of Chicago Press.
- Heynen. H. (2000). *Architecture and Modernity A Critique*, Cambridge, MA, The MIT Press.
- Karl Gröning. (1997). *Decorated skin : A world servey of body art*, New York : Thames & Hudson.
- Vincent. M. (1999). *Re-Wilding Imagination : Mimesis and Ecological Restoration*, *Ecological Restoration*, 17:4, Winter 1999, University of Wisconsin Press, er.uwpress.org.

- Leach, N. (2005). 'Mimesis' in *ATR*, Special Issue on Walter Benjamin, 10(1).
- Smith, P. Carolyn Wilde. (2008). *A Companion to Art Theory: The Classical Concept of Mimesis*, Göran Sörbom, Wiley-Blackwell.
- Dybicz. P. (2010). "Mimesis: Linking Postmodern theory to human behavior" , *Journal of Social Work Education*, 46(3), Council on Social Work Education, Inc.
- Richard J. Lane. (2001). *Jean Baudrillard*, Taylor & Francis e-Library.
- Richard W. Baldes. (1975). "Democritus on Visual Perception: Two Theories or One?" , *Phronesis*, 20(2).
- Sarah E. Worth. (2000). "Aristotle, Thought, and Mimesis; Our Responses to Fiction", *The Journal of Aesthetics and Art Criticism*, 58; 4 Fall.
- Maran. T.(2003). *Mimesis as a phenomenon of semiotic communication*, Tartu, Estonia, Dept. of Semiotics, University of Tartu, Sign Systems Studies 31: 1.
- Huhn. T. (2003). *Heidegger, Adorno, and Mimesis*, Dialogue and Universalism, (11-12).
- Foster. T. (2001). *Hermeneutics, Poetry, and the Irony of Plato*, Kansas, *Auslegung*, 24(2), University of Kansas.
- Ted Polhemus. (2004). *Hot Body : Cool Styles*, New York : Thamas and Hudson.
- V. Timofeev. (2009). *Creators, Literature and the Fine Arts*, EOLSS

Publishers Co(On-Line).

William C. Dowling. (2011). *Ricoeur on time and narrative, An Introduction to Temps et recit*, Notredame, Indiana, University of Notre Dame Press.

## 인터넷 자료 및 간행물

[www.google.com](http://www.google.com) [검색일 : 2014. 1. 21]

[www.naver.com](http://www.naver.com) [검색일 : 2014. 1. 21]

[www.bellazon.com](http://www.bellazon.com) [검색일 : 2014. 4. 11]

[www.eyesing.typepad.com](http://www.eyesing.typepad.com) [검색일 : 2014. 4. 10]

[www.fabsugar.com](http://www.fabsugar.com) [검색일 : 2014. 4. 10]

[www.fashionactive.com](http://www.fashionactive.com) [검색일 : 2014. 4. 11]

[www.firstview.com](http://www.firstview.com) [검색일 : 2014. 2. 22]

[www.modelinia.com](http://www.modelinia.com) [검색일 : 2014. 3. 18]

[www.oxforddictionaries.com](http://www.oxforddictionaries.com) [검색일 : 2014. 2. 15]

[www.popsugar.co.uk](http://www.popsugar.co.uk) [검색일 : 2014. 3. 18]

[www.style.com](http://www.style.com) [검색일 : 2014. 2. 17]

[www.stylebistro.com](http://www.stylebistro.com) [검색일 : 2014. 2. 17]

[www.vogue.co.uk](http://www.vogue.co.uk) [검색일 : 2014. 2. 22]

[www.vogue.com.au](http://www.vogue.com.au) [검색일 : 2014. 2. 22]

[www.vogue.it](http://www.vogue.it) [검색일 : 2014. 2. 22]

<http://khooll-elinor.tumblr.com> [검색일 : 2014. 5. 15]

<http://ko.wikipedia.org/wiki/%EB%A9%94%EC%8B%9C%EC%A7%80>

[검색일 : 2014. 2. 11]

IN BEAUTY. 2009 S/S. InStyle Fashion Co., Ltd.

IN BEAUTY. 2009 F/W. InStyle Fashion Co., Ltd.

IN BEAUTY. 2010 S/S. InStyle Fashion Co., Ltd.

# ABSTRACT

The work of study on the body art expressions  
based on the applications of concepts of Mimesis

Kim, Hyun - Jin

Department of Clothing  
The Graduate School of  
Sungshin Women's University

In modern days, Mimesis is translated as 'Creative Representation' in the social, cultural and artistic areas as it has repeatedly translated as imitation, transformation, or creation.

This work is aiming at analyzing the characteristics of Mimesis and producing the works of body art by applying the result of research. While applying the mimetic characteristics to whole body but not restricted to the face, the various efforts have been made for the make-up and body art to expand the applications and usages of concepts of Mimesis.

The methods and the range of study are as followings.

First, the characteristics and factors of Mimesis are identified based on the analysis of precedent theses and academic studies on the concepts and background of Mimesis. The concept and origin of body art are

reviewed and the forms of body art are analyzed as well.

Secondly, based on the factors identified, the analysis is made on the characteristics of mimetic expression in the works of make-up art designers in the fashion collection till 2014 F/W since 2000.

Thirdly, based on the mimesis theory, the design intention and production method are presented and the work of body art which adopts mimetic characteristics is produced.

The results of study are as followings.

First, three types of Mimesis are categorized as Internal Mimesis, External Mimesis and Plural Mimesis.

External Mimesis has the characteristics of Identity which allows to follow or to emulate the actions of objects and of Representation which allows to re-interpret similarly.

Internal Mimesis has the characteristics of Symbolism which allows to present by imagining internal idea and of Metaphor which allows to deliver the message on mental state.

Plural Mimesis is presented as the Mixture and Distortion due to the reasons that External Mimesis and Internal Mimesis are mixed or distorted as the concept of Mimesis is interpreted as various meanings since 20th century.

Second, the results of analysis on the make-ups of fashion collections based on the characteristics of mimetic expression are below.

The Identity of External Mimesis is expressed as natural make-up without making any changes in facial shape and the Representation is

presented as the image which reflects the specific time and place.

The Symbolism of Internal Mimesis shows the grotesque image which symbolizes the religious tinge or horror. The Metaphor has the hidden intention to deliver the humorous and satirical message as the characteristics of pop-art and kitschy factors are contained in it.

The Plural Mimesis shows the characteristics of Distortion through simplification, schematization, exaggerated expression, and abstraction by including three-dimensional forms, various objects, mixed types composed of heterogeneous materials and distorted or transformed shapes.

Thirdly, based on the aesthetics concepts, 15 body art works are produced in total for this work, which are 5works of face-painting, 5works of upper body painting and 5works of full body painting.

Work I ~ V present the mimetic characteristics on the face. Work I and II shows the Identity and Representation by using Mondrian work pattern and African design as motive and Work III expresses the Metaphor of Mimesis to deliver the alarming message on the indiscreet cosmetic surgery. Work IV and V highlight facial skeleton by overlapping and mixing or distorting facial forms.

Work VI ~ X present the characteristics of Mimesis on the upper body. Work VI expresses the Representation of External Mimesis by painting the curve of human body with Egyptian pictographs. Work VII and VIII present the Metaphor to deliver the message on the symbol of the religious image with the Cross and the caution of environmental pollution. Also, Work IX and X are focused on the Mixture and Distortion of Plural

Mimesis by expressing the mixture of heterogeneous materials with the motive of red lines and the distortion of figures expressed on the human body.

Work XI ~ XV are the body art works which express the characteristics of Mimesis on the whole body. Work XI uses the pattern of Hangeul(Korean Letters) and produces the three-dimensional effect to express the Identity of External Mimesis. Work XII and work XIII express the Symbolism and Metaphor of Internal Mimesis using sentence marks and the work of Keith Haring, American graphic artist, as motive. Work XIV and work XV present the Mixture and Distortion of Plural Mimesis with the art nouveau style curve, the mixture of three-dimensional figures and the exaggeration of human skeleton.

As mentioned above, the concepts and characteristics of Mimesis, which has been on-going topics since prehistoric age, are applied to make-ups for fashion collections. The characteristics of mimetic expression are categorized on the visual basis and are applied to the body art with its trend. The study of body art design and its prospective future are suggested in this work. The body art will make continuous progress as the concept of Mimesis might not be understood just as simple imitation but would be expanded to the meaning of creative representation.